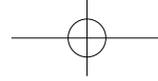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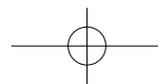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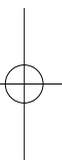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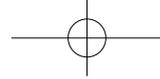
하늘나라

하늘인,
희망을 안고 하늘로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지 '하늘나래'는
학생 여러분의 글과 소식으로
매년 1회 발행되는 문예지입니다.





:Contents

1. 하늘인, 희망을 안고 하늘로!

연표 8
학교 안내 10
인사말 11

2. 흥하재! 하늘고

특색활동 16
과제연구 21
동아리 + 비공식동아리 25
1인 1예 1체 프로그램 +수기 우수작 36

3. 행복했던, 아름답던

불가리아 대사 강연 48
주철환PD 강연 49
하늘진로아카데미 50
도서관 행사 53
쉬어가는 페이지 56
현장체험학습 57
힐링 콘서트 60
체육대회 64
하늘 라크로스 67
급식실 행사 69
백일장 + 교지 작품 응모 수상작 71
하늘고 사용 설명서 : 장소 91
하늘고 사용 설명서 : 교복 94
기숙사 + 면학실 특집 99

4. 사랑하는 너희에게

아버지들의 편지 106
졸업생 인터뷰 111
관장님 (외 4인) 인터뷰 115
쉬어가는 페이지 118

5. 훈훈하구나

2대 학생회장 인사말 120
학생회 인터뷰 122
쌍둥이 특집 124
만나고 싶은 선배 인터뷰 128
세월호 모금활동 특집 인터뷰 130
선배들이 들려주는 대입 이야기 134
컨퍼런스 데이 특집 140
년 어느 별에서 왔니? 143
쉬어가는 페이지 144

6. 동행

1학년 담임교사 호(號) 소개 146
2학년 삼행시 150
선생님 가정 인터뷰 152
교사 앙케이트 156

7. 우리들의 해피엔딩

반별 한마디 169
편집후기 193

2014 연표

3



입학식
3월 3일,
제4회 입학식이 거행됨

4



세월호 모금
4월 19일, 3학년의 주도로
전교생이 세월호 모금에
참여함.

5



힐링 콘서트
5월 15일, 시험으로 인해 지친 심신을 힐링 콘서트
로 치유함.



불가리아 대사 학교 방문
5월 23일, 불가리아 대사님과의 만남으로
생소했던 나라 불가리아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해짐.

6



학생회장선거
6월 4일, 제3대 학생회장을 선출함.

월드컵 응원과 합성
6월 18일, 강당에서 학생과 선생님 모두 열띤 응원
을 펼치며 대한민국 대 러시아의 월드컵 경기를
시청함.

7



현장체험학습
7월 10일, 1학년 학생들은 롯데월드로, 2학년 학생
들은 에버랜드로 신나는 소풍을 떠남.



진로 아카데미 활동
7월 11일, 저명한 외부 교수님과 학부모님께 각 분
야의 진로 방향에 대해 듣고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짐.

8 9

여름방학식
7월 17일, 신나는 여름방학을 맞이함.

10



체육대회
10월 21일. 비가 오는 곳은 날씨였지만, 하늘인의
열정과 패기를 뽐내며 체력 증진과 상호 존중의
자세, 교우들과의 우애를 다지는 시간이었음.



김진명 작가와의 행복한 만남
10월 24일, 김진명 작가님을 초대하여 작가님의
말씀도 듣고 질문을 통해 작품도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짐.

11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13일, 수능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후배들
의 열띤 응원을 받고 3학년 학생들이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치름.

12



겨울방학식
12월 24일, 행복과 보람이 가득했던 2014년을
마무리하며 겨울방학을 맞이함.



학교 안내

1. 교훈

꿈을 향한 비상, 세상을 움직이는 열정, 도전을 즐기는 배움터

2. 교화 · 교목

매화 : 예로부터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려줌으로써, 불의에 굴하지 않는 고결한 품성의 선비를 상징합니다. 이는 매화의 맑고 청아한 기상으로 굳건하게 목표를 향하는 인천하늘인을 의미합니다.

3. 교육목표

건학이념 : 열린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 양성

핵심가치 : 지성과 인성, 공동체적 가치, 창의적 도전, 세계인을 꿈꾸는 요람

교육목표

개 인 :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인적 인간, 1예 · 1체

사 회 :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공동체적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간

세계화 :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인간

4. 학교장 경영방침

건학이념의 구현 - 꿈과 열정을 지닌 창의적, 도전적 인재로 키운다.

- 나눔과 배움의 정신을 실현하는 공동체 시민을 기른다.

- 국가의 장래를 선도할 책무성 강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교원상 -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신념을 가진 건강한 교원이 된다.

- 사랑과 정성을 다해 제자를 교육하는 헌신적 교원상을 수립한다.

-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한다.

학생상 -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자란다.

-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다한다.

- 미래를 선도하는 새 시대의 선구자적 인재가 되고자 노력한다.

인사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장 강석운

인천하늘고가 개교한 지 5년째 되고, 올해 2월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학교 공사 완공이 절반도 안 된 채 진흥 받에서 개교하여, 초창기에 많은 고생을 했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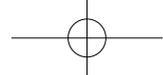
이제 돌이켜보면, 당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용기 있게 일을 추진했던 여러 훌륭한 분들의 덕택으로 오늘날의 하늘고가 존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우리들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미로 같은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토인비’ 교수의 말처럼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입니다. 한시도 마음 놓고 안일(安逸)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자 해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러 있으면 금세 우리는 낙오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창의적인 혁신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창의력이 나오려면 스키마가 많아야 하고 직접·간접적인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무(無)에서 유(有)가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두 미완(未完)의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미래에 무엇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생(未生)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게으른 자의 미래가 암울하고, 현실 안주하려는 자의 미래가 낙오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고, 우리는 또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돌이켜 봅시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무형의 저축이라면, 남들은 개미처럼 겨울의 비축을 위해 노력하고, 나는 베짚이처럼 놀고 있지 않았는가 반성해 봅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해 보면서 소모적인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인사말

우리 학교,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

학생회장 김민성

안녕하세요. 인천하늘고등학교 3대 학생회장 김민성입니다. 어떻게 써야할지 조금은 막막 하지만 하고 싶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써내려 가고자 하니 다소 두서없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회장에 도전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최근이었습니다. 4월 16일, 대한민국에는 잔인한 비극이 일어났고 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선배들의 주도 하에 그들을 돕기 위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이 활동에 임하면서 저 역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치유를 받았고, 스스로의 모습에 벽감을 느낀 것도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주도 하에 무언가가 달성되는 것을 보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한 번 앞장서서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에 선거는 진행되었고, 능동적인 위치에서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다짐했던 저와 2학년 김도현, 1학년 정나리가 함께 선거에 출마해 여러분의 믿음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든 항상 한정된 몇몇의 학생들만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회와 같은 곳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 중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학교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떤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에서 가장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늘

공동회’를 개최했고,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주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만큼 뿌듯했던 것도 사실이나 진행방식의 문제점을 포함한 보완점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후의 ‘하늘공동회’에서는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문화가 우리만의 전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대 학생회장 조성철 선배를 비롯한 2대 학생회의 노력으로 우리 학생회는 큰 자율성을 갖게 되었고 학생회의 위치도 비교적 능동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처음 학생회를 꾸리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소통의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어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진심어린 조언, 학생회 임원단의 협심에 따른 보완책들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회장 김도현과 정나리, 학생회 부서인 기획재정부, 문화체육부, 학생활동지원부, 학교안전부, 학교홍보부의 부장들과 차장들. 항상 함께 노력하고 힘들 때마다 같이 고민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응원해주는 친구들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되새기며 저와 김도현, 정나리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추억을 노크하세요

교지 편집장 이익준

안녕하십니까? 교지편집업무를 담당한 하늘나래 2기 편집장 이익준입니다.

처음 교지편집위원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교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토론했던 시간,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많은 설문지를 배부하고 정리하던 기억과 마지막 원고인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벌차고도 행복했던 기억들인데 그 간격이 너무나 좁아서 당황스럽기도 할 만큼 시간은 빨리 지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술적으로도 약 200일 가량이 흘렀고, 막 고2가 되던 제가 이제는 고3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막상 어제와 같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길지만 이처럼 막연한 추억으로 우리의 기억들이 사라져갈 때, 한 해 한 해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늘나래를 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교지는 제3의 누군가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편집’ 되었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을 하늘고에서 푸르게 보낸 모두가 이 교지의 작성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래는 우리의 일 년을 한데 묶어 그저 보기 좋게, 읽기 좋게 편집을 한 일 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한 해 동안의 모든 일과 모든 학생들을 다 교지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함께 추억할 수 있는 행복한 기억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따스함을 우선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교지를 읽으면서 그냥저냥 지나다가 있어버릴 수 있는 기억들을 되새기고 즐겁게 우리의 한 해를 생각하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교지편집업무를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김민희 선생님과 모자란 나를 채워준 3기 민성, 태현, 미나, 정연, 희구, 그리고 앞으로도 교지를 위해 더욱 힘써 줄 우리 4기 지민, 수빈, 해영, 용훈, 정은, 종성, 가현, 우현,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태형이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시고 편집부원들의 부탁에 적극 협조해주신 친구들에게도, 지금 기대의 눈빛으로 이 책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역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뜨거웠던 우리의 2014! 그 일 년의 기록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자! 하늘고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학교생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활동은,
하루하루 나를 조금씩 더욱 자라게 한다.

일어나자 하늘인, 흥하자 하늘고!

특색활동

1. AP

- 해외 대학 진학 희망자를 위한 AP과정 개설 및 AP 테스트 센터 운영
- 미국 칼리지보드(college board)로부터 AP 테스트 센터 지정, 운영

2. R & E

KAIST-Vanderbilt R&E (Research & Education) 프로그램
 - 개인 및 그룹별 프로젝트와 전문교과를 운영하여 지도교사(교수)의 지도 아래 집중 연구 후 연구보고서(논문)를 작성함으로써 인문 및 과학 교육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제	교수	교내 지도교사
(수학) Math in Experiment	Woo-jin Choi, Ph.D. KAIST	수학과 교사 2명
(물리) Statistical Physics with big data	Soo-yong Kim, Ph.D. KAIST	과학과 교사 2명
(화학) Outreach 2014 Tentative Program	Hak-Joon Sung, Ph.D. Vanderbilt Uni.	과학과 교사 2명

3. 교과 심화 및 전공연구

우리 학교에는 일반 교과 수업 외에도 많은 선생님들의 전공연구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수업들은 고등학생 수준의 교과 수업을 뛰어넘어, 특정 영역의 심화된 지식을 탐구하거나 교양을 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직접 수업의 특징을 들어보자.



천도현 선생님 | 이수민 선생님

천도현 선생님 <Good Opi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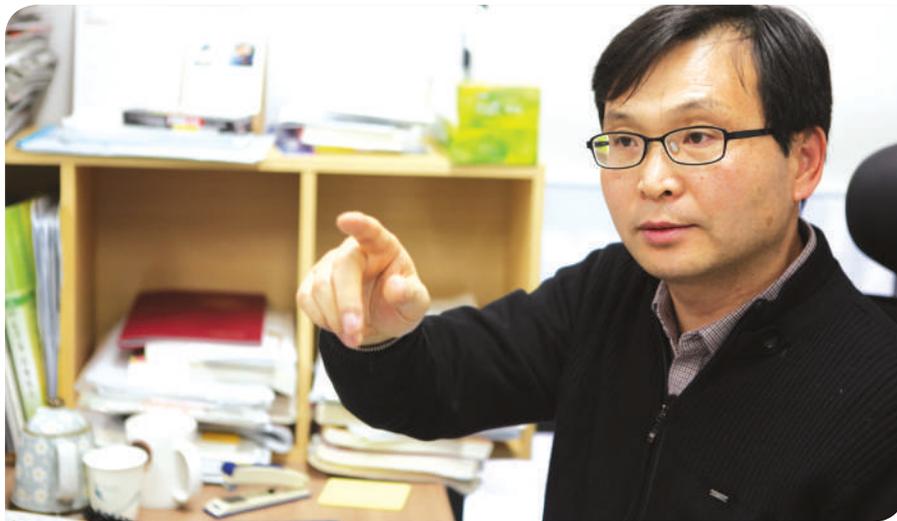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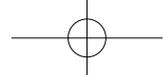
- 신문이나 뉴스 등에 ‘딴지 걸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반가운 수업
- 수업의 특징은 주입식 수업이 아니고, 토론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뉴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된다는 것.

황혜림 선생님 <사제동행 독서>

- 교양 독서를 읽어본 적 있다고 우쭐대고 싶은 학생과, 자유·정의·진리 등에 대해 생각은 해봤으나 글로 옮겨본 적이 없는 학생.
- 자랑거리는 에리히 프롬, 니코스 카잔차키스, 공자 같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작가들을 만난다는 것.

이중언 선생님, 이수민 선생님, 김원석 선생님 <인문논술>

-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인문계 학생. 3학년에 가서 논술전형을 급히 준비하기보다는 논술 고사의 개념이나 성격, 특징 등을 미리 연습하고자 하는 학생.
- 논술 고사의 특징 및 유형에 대한 확실한 정리, 그리고 시크한 첨삭, 지적 고통의 과정을 경험해 보는 수업.



이영중 선생님

송남영 선생님 <영어신문강독>

-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이용하여 심화 학습을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 영어에 재미있게 접근하는 수업!!

이영중 선생님 <수능 한국사>

- 정시에서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면 서울대라도 가야 될 것 같은 학생.
- cf) 서울대는 한국사가 필수
- 수업의 자랑거리는 하늘고 최고의 엘리트들과 함께 하는 소수 정예 수업이라는 점.

Cowie Teacher <Debate and Interview Skills>

- Anyone who wants to improve English and /or confidence is welcome.
- I think the best part of the class was seeing all the students grow so much in their confidence not only in English, but their ability to speak before a group with confidence and express themselves very well.

김민연 선생님 <수리 탐구 토론>

- 평소에 궁금하거나 공부하고 싶은 수학 내용이 있는 학생에게 추천
- 학생이 만들어 가는 수업이라는 점. 스스로 공부(=탐구)하는 수업이라는 점이 자랑거리.



류대곤 선생님

하정선 선생님 <신 HSK 4급반>

- 자신의 뛰어난 중국어 실력을 뽐낼 곳이 없던 학생들에게 강추!
- 살아있는 중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자랑거리.

김동영 선생님 <TIME 리딩반>

- 다양한 방면의 좀 더 심화된 시사 내용을 영어로 배워보고 싶은 학생. 영어와 관련된 스펙을 쌓고 싶은 학생.
- 배우면 배울수록 쌓여가는 고급 시사지식. 수강 후엔 신문을 읽으며 국제 관계까지 연결해 세상을 보다 넓게 볼 수 있음.
- 살아 숨 쉬는 현대 영어를 익히고자 한다면 도전!

류대곤 선생님 <문학 작품 토론>

- 작품을 읽으며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수업. 그 과정에서 인간미를 기를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환영.
- 수렴적인 사고를 벗어나 발산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매 수업시간마다 문학작품이 현실의 반영임을 알 수 있음.

김경훈 선생님, 송남영 선생님 <영어 심화 수업>

-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 관련 심화 수업으로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진행됨.



Cowie teacher

이중언 선생님 <국어 심화 수업>

- 학교에서 진행되는 국어 관련 심화 수업으로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진행됨.

외부 선생님 <해석학개론>

- 2학년 이과 대상의 심화 수업
- 대학에서 배우는 해석학을 미리 배우는 기회, 대학 강의 형식으로 진행됨.

Cowie Teacher <College English>

- 2학년 문과 대상의 심화 수업
- 영어로 진행됨.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의 탐구 발표 및 수업이 진행되며 시험을 보는 방식, 상당 수준의 회화능력을 익힐 수 있고, 시사상식도 습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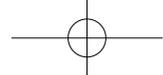
과제연구

1학기 1학년 과제연구

1학년 1학기 과제연구는 총 3개의 분야로 진행되었다. '항공 물류', '항공 엔지니어', 그리고 '동일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와 진로를 고려해 자유롭게 강연을 선택해 들었다. 처음 3주 동안은 공통교육으로 김동영 교수님께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설립 과정을 비롯해 '항공 물류', '항공 엔지니어' 강좌의 기본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항공 물류' 강의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수업이 진행 되었다. 하나는 항공 물류의 중심인 인천국제공항에 관해 공항의 역사, 항공의 역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미래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른 하나의 주제는 전 세계의 물류 시장이었다. 현재 공항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나 항공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 그리고 각 물류 회사의 CEO를 초빙하여 직접 물류의 흐름과 항공 물류로 인해 변화된 시장에 대해 들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항공 엔지니어’ 강의는 비행기의 기계적 원리 및 구조에 관한 수업이었다. 비행기의 작동 원리인 베르누이의 원리에 대해서도 배웠고, 비행기 구조의 이해를 통한 비행기의 운항에 대해서도 배웠다. 또한 각종 기내와 항공기의 사고 케이스도 알려주셨으며, 미래의 비행기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통일교육’ 수업은 통일에 대한 이념적 수업이 아니라, 북한의 지형, 문화, 그리고 사회에 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듣고 새터민을 초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또한 북한의 3대 세습 등을 비롯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학생들 간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연을 들을 때마다 학생들은 강연 일지를 남겼는데, 강의를 담당하신 교수님들께서는 강연의 내용을 소화하며 자신의 것으로 재구성해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셨다. 모든 학생들은 강연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학습의 태도를 보였고 여러 번의 탐구 과정을 통해 소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1학년 2학기 과제연구



1학년 2학기 과제연구는 총 2개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수업이고, 다른 하나는 ‘World of Mathematics’ 수업이었다.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수업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매주 창의, 철학, 인문, 사회과학 등을 주제로 색다르게 생각하는 방법과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셨다. 교수님들께서는 매주 강의 직후, 과제를 내주셨는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강의 중에 배운 지식을 스스로 실천하며 내면화 했다.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 도움을 준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숙제에는 3장의 사진을 준 후 이야기를 만드는 과제, 자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과제,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에 대한 글을 쓰는 과제 등이 있었다. 강의를 듣고 과제를 수행하며 학생들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도 하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더욱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World of Mathematics’ 수업에서는 행렬과 관련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인 벡터의 성질에 관해서 배우고, 선형대수학 중 행렬 부분에 대해 공부했다. 행렬을 이용한 심화 학습인 가우스 소거법도 배우고, 벡터와의 1차 결합과 3차원 공간, 벡터의 내적 및 길이, 단위 벡터, 역행렬, 실생활에서의 암호 등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은 선형계획법을 통한 경제학에서의 게임이론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암호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수업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 중 커피와 술에 대한 비율의 고유값을 구하는 등 재미있는 주제도 다루어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의 넓은 세계에 대해 감탄했고, 비록 어렵긴 했어도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깊이 알게 되어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2학년 과제연구



2학년이 되면 인문계와 자연계의 구분이 생기기 때문에 과제연구도 그에 맞춰 나뉜다. 자연계의 경우는 순수과학과 공학으로 다시 한 번 나뉘어, 1학기에는 본격적인 논문 작성에 앞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보기도 했고, 나무젓가락으로 교량을 만들어보는 과학 탐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문계의 경우는 논문 작성 방법을 익히고 스스로 조를 이루어 논문을 작성했다. 진행 중인 논문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발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받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 탐라’, ‘언론 프레임’, ‘크림반도 사태를 중심으로 본 국제적 영토 분쟁의 요인-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을 작성했다.

2학기 때는 1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문을 작성하며, 1학기와는 또 다른 주제로 활동을 진행했다.

2학년이 말해주는 과제연구 발표 TIP

과제연구 발표를 준비하면서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나요?

논리적 비약과 허점을 보완하고, 조사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파워포인트와 같이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발표를 듣고 비판을 할 땐 어떻게 하나요?

논문과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왔다면 충분히 답을 하고 설득할 수도 있어야겠지요. 가끔은 예리한 친구들에 의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급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려할 만한 보완점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동아리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자랑거리에는 ‘동아리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전국을 기준으로도 우수한 동아리로 손꼽히는 학생 주도의 동아리부터 각종 대회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 그리고 교 생활의 활력소이자 힐링의 공동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각종 동아리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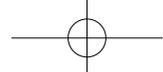
방송 동아리 | ON AIR

방송 동아리 ON AIR

교내의 여러 행사에서 진행과 영상 제작 등을 도맡아 하는 방송 동아리입니다. 각 행사마다 영상 촬영과 방송기기 조작 등으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실적으로는 교내 방송 진행과 수능 응원 영상 제작, 졸업식 영상 제작, 학술제 진행 등을 들 수 있으며, 외부활동으로 단편 영화를 제작해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경쟁하는 영화제에 출품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화학 동아리 ALCHEMIST

화학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실험을 계획, 실행하며, 화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최근에는 아스피린 합성 실험, 타이레놀 합성 실험과 나일론 합성 실험, 유기 화합물의 구조 이해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인하대학교의 화학 연구실을 탐방하기도 했고, 동아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화학을 주제로 한 R&E를 하기도 합니다.



정치·외교 동아리 | YUPAD

학교 홍보 동아리 S.O.C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외부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광고와 홍보' 등에 대해 알아가는 동아리입니다. 학교의 입학설명회나 신입생을 선발하는 면접을 도우며, 방송부와 연합하여 학교 홍보의 립뎀(lip dub)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홍보 UCC 공모전'처럼 UCC 공모전에도 참가하여 역량을 기르기도 하며 여러 캠페인 활동에도 참여하고 기업별 홍보전략 등을 분석,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 동아리 CARITAS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참된 봉사를 하기 위한 친구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순수 봉사에 그 목적을 두고 '큰사랑 재가 요양센터'에서 방 리모 델링, 말벗 해드리기, 목욕봉사 등의 노력봉사도 실시했고, '월드비전 모금 활동' 등 여러 방면으로 꾸준한 봉사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 동아리 YUPAD

전국청소년정치외교연합동아리 YUPAD는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며, 연구와 토론활동으로 자신들의 열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전국 총회 참석과 같이 전국 YUPAD의 전체 활동에도 참여할 뿐 아니라, 찬반토론, 라운드 강의, 청와대 방문 등의 교내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융합 과학 동아리 ISHA

과학의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며 탐구와 실험활동을 통해 과학을 더 자세히 알아가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학생과학관을 방문하여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그 원리를 이용한 게임을 진행했으며, DNA 추출 실험과 닭 해부 실험, 롤러코스터 만들기 등 생명과학과 물리, 화학 등 종합적인 과학의 이해를 돕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리 동아리 | HTTP

교육 봉사 동아리 Volunteacher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서 진로를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가는 동아리입니다. 교내 선생님 특강, 시강 연습 및 상호평가, 다큐멘터리 시청뿐 아니라 인근의 중학교와 연계하여 멘토링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리 동아리 HTTP

기본적으로 물리교과에 관심이 많으며 물리와 관련된 학과로의 진학을 꿈꾸는, 열정 있는 학생들의 동아리입니다. 과학관 탐방, 물리의 원리를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증명한 보고서 작성 활동, 꾸준한 외부 활동 등으로 물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문예 창작 동아리 아이와즈

작가를 희망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고 글을 쓰는 것을 즐기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자신의 생각이나 꿈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발산적 사고를 배양하고 사고력과 표현력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문학창작에 있어서도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글을 쓰고 상호 평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동아리 ARCHI

대한민국 건축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건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건축 관련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청강 후 토론활동, 외부강사님과 함께하는 건축 모형 만들기 활동, 건축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기개발, 학교 앞 빈 터를 활용한 도시계획 등 창의성 있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밴드 동아리 | 루미난트

경제 경영 동아리 CiPiE

매일경제 우수 동아리 선정, 틴 매경 test 단체 및 개인 수상, 매일경제 NIE 대회 최우수상 수상 및 다수의 우수작품 선정 등 많은 수상 실적과 우수 동아리로서의 활동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초빙 강사의 강의, 기업분석, 경제 토론 등 다양한 경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를 통해 동아리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직접 운영하며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물 동아리 Bio Farm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최강 동아리라고 자평하는 동아리로, 생물 실험과 더불어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주 동아리 시간마다 갯벌 체험, 닭뼈 맞추기, 종이컵으로 라면 끓여 먹기, 양파 표피 삼투압 실험 등의 실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신장하고 있습니다.

도서 동아리 DPC

하늘고의 독서 문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동아리입니다. 도서관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문화 활동을 통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논술활동을 진행하고, 국회 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 도서관 등 도서관으로 체험학습을 가기도 합니다.

밴드 동아리 루미난트

교내 동아리의 꽃이자 학교의 여러 행사마다 그 실력과 존재감을 인정받는 밴드 동아리입니다. 교내의 다양한 동아리 중에서도 가장 자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로 공연을 목적으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연습하고 동아리원들끼리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 Cielo

오케스트라 동아리 Cielo

악기 연주를 통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의 단합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나 연주 봉사 등을 동아리의 기본 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약 40명의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시간, 여가 시간 및 학습제 시간에 모여서 개인 연습과 합주를 하며 학업에 대한 중압감도 내려놓고 음악적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환경 동아리 움벨트

사람들의 의식 속에 '환경'이 사라져간다는 것에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사문제 중 특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에 대해 탐구합니다. '환경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생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순환 도전과 전문가들의 워크숍에 참가하여 폐자원순환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하울

'하나님의 울림'이라는 뜻을 가진 기독교 동아리 '하울'은 '사랑을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사랑의 모자 뜨기' 캠페인,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낯설고 외로운 기숙 학교에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 동아리 시간에 모여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영자 신문 동아리 The HANEUL Post

원어민 선생님이신 John Cowie tr.와 함께 매년 영자 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러 학교와 외부 인사들의 방문 때마다 Haneul Post가 배부되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문일기 작성 및 발표 활동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동시에 주제를 선정하여 영문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유네스코 동아리 | 하늘유네스코

IT 동아리 HAM

IT와 어플리케이션 등의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기획, 디자인, 코딩 분야로 나누어, 기획은 어플리케이션 제작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디자인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갈 그림과 버튼을 만드는 역할을, 코딩은 Eclipse, Subline Text 등의 개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홍보 어플을 제작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동아리 하늘유네스코

한국 유네스코 ASP-net(협력 학교 프로젝트)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총 일곱 가지의 주제가 주어지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천국제제고와 협력하여 다 쓴 페트병을 모아 화분으로 만들고, 미추홀 외고와 연합해 시민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플래시몹도 실시했습니다. 전쟁 관련 영상을 보고 감상문 작성 및 토의 활동을 하는 등 국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외교 동아리 반크

세계인들에게 왜곡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알도록 시정하는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이버 민간 외교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알리기' 교내 캠페인과 '20년 후의 대한민국' 시청, '독도는 우리 땅' 교내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반크 동아리 연합총회에 매달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경기 지역 4개의 학교와 함께 '한글'을 주제로 연합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봉사 동아리 F.A.R

세계가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기아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 토론과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국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한 홍보와 단체 구매 운동, 난민·기아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 후 토론 보고서 작성하기, 유니세프·월드비전 등의 활동을 알리고 이에 함께 참여하는 일을 합니다.

비공식 동아리

정식 자치 활동은 아니지만, 진로나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토론이나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 등을 매주 지속하는 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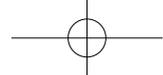
갈레노스

동아리 이름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생의 주인공인 히포크라테스, 동양의학의 기반을 닦으신 허준과 같은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갈레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의 의사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치료 방법은 중세시대까지 사용되었고, 특히 그는 해부학에 관심이 많아 해부학의 기반을 수립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숨겨져 있지만 실은 이처럼 뛰어난, 그런 동아리가 되고자 동아리명을 Galenos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학 동아리 '갈레노스'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학교에 감기 바이러스가 심하게 돌고 있을 때, '갈레노스'에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감기 예방과 관련하여 포스터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늘 학습의 형태로 진행되던 모임이었지만, 관심 분야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모두 뜻을 모아 포스터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만 앞설 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려움이 느껴졌지만, 점차 친구들과 의견을 맞추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모두의 노력 끝에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아(美兒)

‘미아(美兒)’는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가요?

혹시 ‘미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아’는 한자로 ‘迷兒’라고 쓰며 ‘잃어버린 아이’를 뜻하겠지만, 비공식동아리 ‘미아’는 ‘美兒’를 한자로 씁니다. 점차 삭막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적인 따스한 온기마저 잃어가며 ‘미아(迷兒)’같이 떠도는 우리들에게 시 창작을 통해 자아성찰과 여유를 갖게 되고 ‘미아(迷兒)’가 아닌 ‘미아(美兒)’로 거듭나 아름다운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시 창작’을 주된 활동으로 하여 일주일에 한번, 매주 일요일 오전에 자신이 창작한 시를 서로 나눕니다. 매주 일정한 주제(예를 들면 봄, 죽음, 극복 등)를 정해 일주일동안 고심하며 시를 창작합니다. 또한 창작뿐 아니라 주제에 맞는 유명한 시들을 함께 읽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비평과 토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잃었던 감성을 찾아가는 것도 즐겁지만,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바로 시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시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편견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든 한 편의 시를 창작하고 또 친구들의 시를 감상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색하기만 했던 발표가 어느새 시에 대해 생각한 바들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건, ‘미아’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하는 크고 작은 생각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문학적 감성에도 빠져보는 것. 그렇게 만들어진 시들이 모여 우리의 추억이 되는 것. 이와 같은 여정에 내년에도 들어올 5기 후배들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시나브로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시를 각자 창작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유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작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부르도자 부르조아’ 두 편의 시를 감상한 후 비교·분석한 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시에 사용된 시어의 분위기와 작가의 메시지를 추리해 보며 두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표현의 효과와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독서 토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기 중에는 내신과 모의고사 준비로 정신 없는 일과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자유 시간인 일요일을 활용해 의미미한 독서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따라가기도 바빠 평소에 읽고 싶은 책을 읽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책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지식 습득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분야 등 여러 책을 읽어볼 계획입니다.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도 쌓고 토론 활동으로 비판적인 시각도 얻고자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인텔리겐치아

동아리 이름인 '인텔리겐치아'는 무슨 뜻인가요?

'인텔리겐치아'는 본래 러시아 제정 시대의 서구파 자유주의자를 이르던 말로 지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층이라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사회의 지식계급'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교과시간에 배우는 지식의 내용뿐 아니라 '시사토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과 정확한 판단력 등을 신장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학생 수준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정한 지식인'이 되기 위해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존의 시사토론보다 '인텔리겐치아'만이 갖는 장점이 있나요?

우리 동아리는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관심을 갖는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동아리에는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경제·경영계열, 예체능계열, 이공계열 등을 진로로 희망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어, 하나의 시사문제에도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여러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올바른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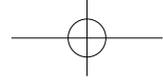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하늘로

'하늘로'는 다른 동아리와 달리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법과 정치 중심의 R&E를 하면서 R&E라는 활동의 특성에 알맞게 법과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경영, 복지, 역사, 외교, 심리, 사회 등의 분야도 모집해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활동하다 보니 연구 분야가 다양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두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10명 정도의 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R&E 활동 후에는 각자의 관심 분야별로 5~6페이지 가량의 보고서 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늘로'의 특색이라 하면 토론과 R&E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국정 전반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토론을 듣고 싶어요. 여러 토론 주제로 토론을 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토론은 '박정희는 좋은 대통령인가, 독재자인가?'입니다. 정답이 없는 이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을 들을 수 있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색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1인 · 1예 · 1체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학교특색 프로그램 1인 1예 1체 프로그램. 수강 학생들이 전하는 각 강좌의 소개와 특징을 들어보자.

No.	영역	강좌명	No.	영역	강좌명
1	예술	가야금	20	예술	플루트
2	예술	다도와 생활미학	21	예술	피아노
3	예술	대금	22	예술	해금
4	예술	더블베이스	23	예술	공예
5	예술	도자공예	24	예술	퀼트 소품 만들기
6	예술	바이올린	25	체육	검도
7	예술	베이스기타	26	체육	농구
8	예술	보컬트레이닝	27	체육	댄스
9	예술	비올라	28	체육	라크로스
10	예술	수예(자수)	29	체육	배드민턴
11	예술	우쿨렐레	30	체육	요가
12	예술	일렉기타	31	체육	절권도
13	예술	작곡	32	체육	축구
14	예술	종이접기	33	체육	탁구
15	예술	첼로	34	체육	태권도
16	예술	클라리넷	35	체육	테니스
17	예술	클래식기타1	36	체육	합기도
18	예술	클래식기타2	37	체육	헬스
19	예술	통기타	-	-	-

프로그램



가야금

- 가야금에 대해 배우고 연주법을 익힌 후 가야금으로 민요 혹은 동요를 연주
- 친절하시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신다.
- 배우고 싶은 곡을 말씀드리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로 인해 실력은 폭풍 상승



다도와 생활미학

- 차 문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종류의 차를 직접 마시며 행다(行茶)를 실습한다.
- 차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 '차 한 잔의 힐링 체험'
-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스승님. 인자하신 미소를 보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짐.



대금

- 대금의 기초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가족 같은 분위기의 수업으로 학생들 개개인을 잘 챙겨주신다.



더블베이스

- 더블베이스의 기초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재밌고 유쾌하시고 잘 대해주신다. 짱짱!
- 1:1 레슨으로 실력이 급 상승.



도자공예

- 도자공예의 기본 기법 학습 및 실습
- 직접 흙을 빚어 나만의 작품을 만든 후 외부 가마에서 구워 완성함.
- 원가 정적인 분이다. 조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광클 요망.
- 결과물이 있다는 것은 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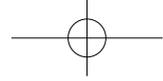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바이올린

- 바이올린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활발하고 바이올린 수업에 항상 적극적인 선생님
- 자세, 음정 등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습이 가능하다.
- 참새 같으신 분. 사람이 적어서 레슨을 더 받을 수 있다.



비올라

- 비올라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친절하시고 예뻐요. 열심과 쉬엄쉬엄의 적절한 조화.



보컬 트레이닝

- 개인별 맞춤 발성 지도 및 노래 연습을 통한 실력 향상
- 전문적인 지도로 발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체계적인 보컬 트레이닝
- 완전 꿀팁 자판기. 배워가는 게 매우 많다.
- 뮤지컬 배우 같으시고, 목소리는 빅마마.
- 이 바닥 목소리 크기 ㅁ은 나



수예(자수)

- 기초 서양 자수
- 한 땀 한 땀의 섬세함으로 나만의 소품 완성하기
- 포근하고 지적인 매력이 있으시다.



우쿨렐레

- 하와이의 작은 기타, 우쿨렐레는 통기타 곡의 반주, 클래식 기타로 치는 연주곡이 가능한 악기
- 간단한 코드로 반주하기, 아르페지오와 스트로크 연습
-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선생님께서 시크해 보이시지만 알고 보면 재있으신 분!



일렉 기타

- 일렉 기타의 기본적인 연주법을 바탕으로 일렉 기타와 Rock 음악의 역사, 문화를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강의
- 락커의 포스가 짝 느껴지는 장발의 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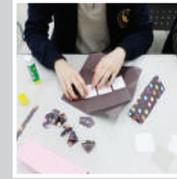
작곡

- 기본 화성악과 작곡법의 이해와 훈련을 통해 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소양을 높이고자 함
- 유일무이한 학구적 분위기
- 사람 수가 적어서 집중이 잘 된다.



첼로

- 첼로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배우는 것을 즐기도록 가르쳐주신다.
- 개인 레슨과 병행할 수 있어 좋음!



종이접기

- 알록달록 예쁜 종이로 여러 가지 모양을 접고 만들어 멋진 공예작품을 완성
- 조조조곤 부드럽으시고, 꾸미기를 좋아하셔서 스티커나 색종이나 레이스 등을 잔뜩 주신다.
- 시몬스 침대 같은 편안함, 훈훈하다 못해 뜨거움



클라리넷

- 클라리넷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선생님께서 클라리니스트 줄.
- 클라리넷 덕분에 18세기로 타임머신 타고 날아온 것 같은 분위기



클래식기타1,2

- 기타의 기본 지식부터 맛깔나게 기타치기, 그리고 다른 장르의 기타 연주
- 기타 왕초보 10주 탈출 프로젝트 완성하기
- 선생님의 아르페지오는 듣는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줌.
- 오래된 단골 카페에서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중년의 여인이 된 느낌
- 자칭 교회 오빠 스타일
- 자유로운 분위기, 자신이 원하는 곡을 칠 수 있게 도와주심



통기타

- 통기타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모든 학생들에게 1:1 레슨을 해줄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
- 마치 홍대에서 막 오신 것만 같은 여신.
- 가요를 내 손으로 칠 수 있다는 즐거움, 타인의 눈치는 노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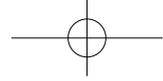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플루트

- 플루트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진짜 착하시고, 재밌고 선배들과도 친하게 잘 지내서 좋다.
- 백아연보다 예쁘시고 짱 잘하시고 그냥 짱!
- 배우고 싶은 곡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실력 상승 보장



피아노

- 피아노와 관련하여 작품과 연주법 등을 함께 연구하며 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응용력을 높이고자 함.
- 모든 것이 눈부신 음악 선생님, 유머와 친절까지 겸비한 완벽 그 자체
- 자유로운 분위기. 선생님의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덤.
- 왜 내 손가락이 분리주의를 옹호하는지 탐구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해금

- 해금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절대 음감의 소유자, 뜨개질하는 국악소녀.
- 모든 음악을 연주해 볼 수 있다.



공예

- 점토공예(폴리머 클레이), 섬유공예(염색), 종이공예(조명, 접시 등)
- 센스 만점 만능 손의 소유자.
- 사람도 적어서 너무 좋고 진짜 재밌으면서도 실용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좋다.
- 반죽할 때 오기가 생기면서 은근 중독성이 있음.



컬트

- 한 땀 한 땀 꿰매고 누벼 완성하는 나만의 소품
- 예술인의 혼이 느껴지는 분. 이선희 님은꼴.
- 현모양처 예약해두심.
- 직설적인 화법으로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
- 마치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바느질하는 느낌



검도

- 검도는 현대 생활 스포츠
- 심기력 일치, 기검체 일치를 통한 심신 발달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 생활에 활력을 높여주는 안전한 스포츠
- 친구처럼 다정하시고 엄마처럼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감동
-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농구

- 농구의 기초 기술 학습 및 룰의 이해
- 농구를 진짜 잘하셔서 농구로 농락을 잘하는 선생님.
- 친구 같은 선생님. 활발해서 서로 어색함이 없는 수업임.



댄스

- 무용을 통한 체력 단련 및 스트레스 해소, k-pop 댄스
- 개인별 맞춤 지도
- 하늘고 학생들보다도 더 넘치는 끼로, 만약 남자였다면 반했을 것.
- 쿨한데 정말 쿨하고 또 진짜 쿨하다.
- 빼가덕거리는 기계에 기름칠 해주는 수업으로 마치 연습생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수 있다.



라크로스

- 라크로스의 기초 기술 학습 및 룰의 이해
- 체력 단련 및 경기 운영
- 라크로스 분야의 천재, 재갈동운.
- 운동은 동운, 하늘고 라크로스는 최고의 스포츠 클럽.
- 단체, 협동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1,2학년 간에 허물이 없이 친하게 지내고, 팀워크를 기를 수 있음.



배드민턴

- 초급, 중급 과정으로서 드라이브, 서브, 클리어 습득과 규칙을 활용한 경기
- 친구들과 재밌게 칠 수 있어서 좋다.



요가

- 요가를 통한 체력 단련 및 자세 교정
- 개인별 맞춤 상담 지도
- 우리 근육을 고무줄로 만드시는 마법사.
- 유연해지겠다는 열망이 불타오른다.
- 나의 몸의 한계를 깨닫고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절권도

- 절권도를 통해 신체 원리를 이해하고, 철학 및 과학적 토대를 기반으로 건 강한 신체를 단련
- 내가 어찌 그 분에 대해 평을 하리오... 지구 최강의 사나이인 선생님이시라니..
- 고통을 당하면서도 즐겨워하는 엔돌핀이 넘치는 강좌
- 자유롭게 연습하는 듯하나, 인간 병기로 거듭나는 중임을 알아두시오.



축구

- 축구의 기초 기술 학습 및 룰의 이해, 체력 단련 및 경기 운영
- 즐겁게 체육활동을 하면서 체력 충전
- 오랜 자습으로 지친 정신에 활기를 불어 넣는 좋은 기회



태권도

- 태권도는 세계인의 무도 스포츠이며, 건강 체육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 같이 게임도 하는 등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다.
- 피구, 하키, 뽀뽀, 줄넘기 등 미니게임 천국 같다.



탁구

- 평생 운동으로 적합한 2.7g의 매력
- 굉장히 시크하시고 털털하심.
- 선생님과 개인 레슨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
- 운동이다 보니 실력이 늘어가는 게 재미있음



합기도

- 호신술과 쌍절곤, 낙범, 발차기 등을 수련
- 열심히 하는 학생들, 단증 딸 수 있는 기회 제공
- 뛰어난 개그의 실력자. 재미없는 듯하지만 매우 재밌다.
- 실전에서 기술 사용은 못할 것 같다.



테니스

- 테니스의 기초 기술 학습 및 룰의 이해
- 열정적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신다.
- 중국집 주방장 같은 푸근함(실제로 짬뽕 잘 만드신다고)
- 절대 부서지지 않는 멘탈의 소유자
- 상급반과 초급반으로 나누어 더욱 실력이 느는 것 같다.



헬스

- 개인별 맞춤 퍼스널 트레이닝
- 체력강화 및 자세 교정
- 연애학 개론 강사
- 말이 많으시고 자율적으로 헬스를 할 수 있다.

수기 공모전 1예 부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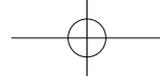
피아노와 라크로스 도전기

1학년 6반 문하영

나는 사실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입학하기 훨씬 전부터 이 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1인 1예 1체'라는 활동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1인 1예 1체'는 모든 학생들이 각자 하나의 특기를 계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공부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미와 소질을 살려주는 것을 의의로 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악기연주의 기회와 체육활동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신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피아노를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기에 예술 활동으로는 피아노를 선택하겠다고 금방 마음을 먹었으나, 체육부문을 선택할 때는 많은 고민이 되었다. 검도, 라크로스, 테니스, 합기도 등 평소에 쉽게 배우기 어려운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해보고 싶어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다. 결국 나는 하늘고등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나만의 특기가 될 것 같은 라크로스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입학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운동이었기에 더욱 기대가 컸다. 1예 1체 신청에는 인원 제한이 있어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했고, 나는 반드시 신청을 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으로 성공적으로 신청을 했다. 어렵게 신청한 만큼 미처 기회를 얻지 못한 친구들의 뒤통까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1예의 피아노 활동은 각자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다가 선생님께 일대일 레슨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선생님께서는 나의 취향을 물으셨고 나는 평소 관심을 갖던 'Jon Schmidt'가 작곡한 'Road trip'이라는 곡을 골라 한 학기 동안 이 곡을 연습해서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레슨 중에 선생님께서는 곡의 전체적인 느



김과 흐름뿐 아니라 피아노 건반의 터치 방법과 기본자세, 소리의 강약 조절, 페달을 다루는 방법까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레슨은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과 흥미를 주어, 1인 1체 1체 시간 이외에도 틈날 때마다 'Road trip'을 연습했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선생님께 곡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그 과정이 매우 즐거웠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의 취미였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적어 아쉬웠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 나의 특기를 살리고, 고등학생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더욱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체육 활동인 라크로스에서는 라크로스의 기본 기술을 배우고 실제 경기 룰에 맞춰 게임도 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니 스틱을 다루는 것에 익숙해졌고 공을 던지고 받는 실력 등도 점차 발전해갔다. 그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할 무렵, 우리 팀에게 라크로스 대회 소식이 알려졌다. 한영외고, 북일고, 용인외고, 경기외고 그리고 인천하늘고가 참가하는 고교 라크로스 대회였다. 대회 첫 경기에서 나는 포지션으로 '미디(미드필더)'를 맡아 온 힘을 다해 뛰었다. 넘어지기도 하고 상대편 선수에게 치이기도 하면서 경기에 임했다. 15분만 뛰어도 온 몸에서 땀이 나는 건 당연했고 호흡이 너무 가빠져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만큼 피로웠다.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팀이 이겼기에 힘든 것보다는 즐겁고 뿌듯한 마음이 더 컸다. 그렇게 남은 경기들까지 끝마치고 우리는 최종 3등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라크로스 대회를 통해 나는 혼자 연주하는 피아노와는 달리 라크로스 경기는 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팀 내에서의 협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그렇겠지만 혼자서만 잘한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수비와 공격, 미디가 모두 제 역할을 충실히 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렇게 나는 협력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모두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열심히 뛰었는데, 사실 그러한 투지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서로 더욱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돈독한 사이가 된 것 같았다. 라크로스 활동은 스포츠의 즐거움을 알려주며 내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준 잊지 못할 활동이다.

꿈 그리고 열정으로 이룬 라크로스 대회 우승!

1학년 6반 남윤아

2013년 여름, 나는 '인천하늘고 입학'이라는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보다 더 뜨겁고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하늘고 학생이 되었다. 한 학기를 보내면서 그 동안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것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겁내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고, 결과에 실망을 한 적은 있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는, 그런 고등학생으로서 하늘고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온 것 같다.

인천하늘고등학교에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성과 인성, 창의적 도전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 중 '1인 1체 1체'는 학업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휴식을 얻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여유와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해주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다.

'여자가 축구를?'이라는 편견을 깨고 축구를 하며 즐겁게 중학교 생활을 보냈던 나는 라크로스의, 라크로스 에 의한, 라크로스를 위한 열정을 담은 광속 클릭으로 당당히 라크로스부원이 되었다.

라크로스는 아직 대중화된 스포츠가 아니지만 건강과 체력, 정신력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로 하늘고를 비롯해 경기외고, 삼성고, 북일고, 용인외고 등 몇몇 학교에 팀이 구성되어 있다. 라크로스 경기는 한 팀에 12명으로 구성된다. 경기시간은 30분, 15분씩 나누어 경기를 하는데, 남자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충돌이 허용돼 럭비처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 되고, 여자부는 남자부와 같은 충돌이 허용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버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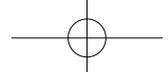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없으면 즐길 수 없는 스포츠이다. 또한, 팀 경기여서 팀원 간의 화합과 각자의 포지션에 대한 최선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공동체적 스포츠이기도 하다.

전국 고교 라크로스 대회 경기에서는 팀원 모두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냈고,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밀려오는 끈끈한 우정과 팀워크를 느꼈다. 다른 모든 스포츠 경기처럼 상대팀의 거친 공격과 수비를 뚫어야 이길 수 있는 경기라 넘어지고 부딪혀 부상도 많았고 상대팀과 신경전도 대단했지만 승패와 관계없이 경기가 끝나면 서로를 칭찬해주고 다음 경기에서 다시 만나자며 연락처를 주고받는 스포츠 정신 또한 라크로스를 통해 얻는 값진 경험이기도 했다. 경기 중 너무 힘들어서 교체 신호를 보냈지만 애써 모른 척하신 원동운 선생님 덕분에 나는 13점이라는 기록으로 여자부 대회 전체 MVP라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협력한 결과 1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경기를 함께 뛰 친구들과 경기장 밖에서 우리를 위해 경기장이 떠나갈듯 응원해준 라크로스팀원 모두가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우리는 매일 경쟁을 한다. 타인과의 경쟁, 자신과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 등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이 주는 교훈이 있다. 음악을 듣고 연주함으로써 감성을 성장시키고 학업에 지쳐갈 때 스포츠를 통해 다시 에너지를 채워간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 정신과 리더십이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낀다. 1인 1예 1체 수업은 하늘고가 주는 큰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다.

행복했던 아름답던

당신의 2014년에는 무엇이 있는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화려하고 행복했던 순간부터,
매일매일 반복되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까지.
우리의 일 년, 어땠을까?



JTBC본부장 주철환PD 강연

불가리아대사강연

Petar Andonov



2014년 5월 23일, 불가리아 대사님 Petar Andonov(페타르 안도노브)께서 인천하늘고등학교를 방문하셨다. 학생들은 정문에서부터 불가리아와 대한민국의 국기를 번갈아 흔들며 대사님을 환영

했다. 전교생이 모두 모인 가운데 체육관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1학년 김예리, 유현승 학생이 유창한 영어로 전체 진행을 맡았고, 미리 선발된 5개의 팀이 불가리아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발표도 있었고, 불가리아의 전통 의상을 직접 입고 나오기도 하는 등 그동안은 잘 알지 못했던 '불가리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학생들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대사님께서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직접 강연을 해주시기도 했다.



불행의 장벽을 넘어 빛나는 별이 되자

“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할 때,
지금은 42.195km 중 7km정도의
지점에 불과하기에 여러분에게는
아직 남은 인생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불행했어도
더 좋은 날은 바로 지금부터인 거죠
”

JTBC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신 주철환 PD의 강의가 있었다. 직접 노래를 불러주시고, 자신의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털어놓으시는 모습은 여타의 강의와 달라 신선함마저 느끼게 해주었다.

인천하늘고에 오면서 '하늘'의 친구는 무엇인지 생각해봤다는 그의 말, '하늘, 구름, 태양'보다 '하늘'의 가장 중요한 친구는 '오늘'인 것 같다는 긍정적이고 인상적인 말로 강연은 시작되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주철환 PD님께서 인생의 선배로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셨고, 직접 쓰신 시와 문구들로 삶에서 느낀 바를 전달해주셨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할 때, 지금은 42.195km 중 7km정도의 지점에 불과하기에 아직 남은 인생이 훨씬 많다고 하시며, 지금까지의 인생이 불행했어도 더 좋은 날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격려해주셨다. 수많은 불행의 장벽에 좌절하지 말고 뛰어넘자고, '벽을 넘어 별이 되자'고 힘을 주셨다.

강의 내내 주철환 PD님의 표정과 말투에서 긍정적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긍정적 마인드로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한 좋은 강연이었다.

2014년 하늘진로아카데미

2014 하늘진로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해당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구체적인 진로의 방향 안내, 그 직무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의 방법 등을 배우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2014 하늘진로아카데미를 통해 인천하늘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강연에 참여했다.

	강좌명	강의실	강연자
1	전자바이오횡과 소개 영화 속의 전자바이오 물리학	대강의실	권기청 교수 광운대 전자바이오횡학과
2	이공계 학생들의 전공 및 미래설계	강당	권영하 교수 경희대 기계공학과
3	사법부의 역할과 법관의 일	(2-1) 교실	김상철 판사 인천지방법원
4	경영·경제 분야 직업군 소개 (회계·세무)	(1-6) 교실	김선홍 세무사
5	사회교육학과-문화인류학 소개 및 관련 진로 안내	(2-2) 교실	김영순 교수 인하대 사회교육학과
6	한의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	(1-8) 교실	김우진 한의사
7	신문 기자의 세계(해외 특파원 경험 등) 신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1-7) 교실	김용철 기자 매일경제·경영 연구소
8	UN 및 국제기구 진출방법	과학실	김현 교수 경희대 입학처장
9	통계학과 소개 및 관련 진로 안내	(1-5) 교실	박상규 교수 중앙대 통계학과
10	의사로서의 삶이란? 심폐소생술 교육	(2-3) 교실	박찬재 항문외과 의사
11	미래 세계와 진로	대회의실	부경희 교수 광운대 미디어영상학과
12	약사로서의 삶과 진로 준비	(2-4) 교실	이혜진 약사

2014년 하늘진로아카데미 수기

평소 관심이 있던 통계학에 대해 더 알아보
고자 박상규 중앙대 통계학과 교수님의 강의
를 선택했다. 또한, 요즘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빅 데이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교수님을 통해 통계학과의 교
육과정과 이를 활용한 진로에 대해 알 수 있
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남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이다. 통
계학과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어려워 학생들
이 포기를 많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면 나중에 어느 분야에서든 중요한 학문이
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통계학은 공학통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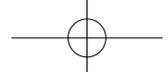
의학통계학뿐 아니라 손해사정인, 마케팅 등
폭넓은 분야가 있으며, 통계학자가 되기 위해
서는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뛰어나야하
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도 있어야 한
다고 하셨다. 이 강의를 듣고 빅 데이터의 시
대에 맞게 통계학의 힘은 대단하다고 느꼈다.
나의 진로에 관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번 강의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통
계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박상규 교수님을
만나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1학년 8반 이현지

나는 자연계열을 선택하였지만 최종적인 희
망 진로는 인문계열의 언론분야이다. 진로를
위해 나는 지름길과 돌아가는 길 중에 한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인데, 이러한 선택이
맞는지 사실 한참 고민하기도 했었다. 그러던
중 '2014 하늘진로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면
서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을 얻게 되었다. 광운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님의 '미래 세계와 진로'라는 강의를 선택하
여, 미디어영상학에 대한 소개와 현대사회에
서의 광고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들었다. 강의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자는 내용
의 공익광고- 지하철 계단에 에베레스트산의

모습을 그려놓고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을 오
르는 것이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준다는 내용-를 보았다. 이 강의를 듣
고 나는 광고나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다. 조금
은 돌아가야 하겠지만 나의 진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2014 하늘진로아카데미였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학년 1반 정상운



‘하늘진로아카데미’에서 나는 평소 궁금했던 문화인류학에 대한 정보 및 학과의 전망과, 사회교육학이란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회교육학과 진학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해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문화인류학’이라는 이름만 듣고서는 어떠한 학문을 배우는지 가능하기가 힘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지 다양한 일화들을 들려주셔서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보다 깊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교육학과 졸업 이후의

다양한 진로 - 교육부 공무원, 학교 교사, 로스쿨 진학 - 등을 소개해주셔서,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면 사회 교사를 한다는 단순한 고정관념을 깰 수도 있었다. 강연을 통해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진로를 위해 남다른 전문성을 갖춰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관심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해보며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목표도 갖게 되었다.

1학년 1반 함승헌

학부모님을 강사로 모신 ‘2014 하늘진로아카데미’는 진로탐색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는 평소 간호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박찬재 강사님의 ‘의사로서의 삶이란?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강연을 선택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차이가 있으면서도 협력하는 직업이고, 또 같은 직업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사가 되는 과정과, 의사로서의 그들의 삶은 정말 대단했다. 무엇보다도 강사님의 인턴, 레지던트 생활 이야기가 가장 멋있게 느껴졌다. 자신의 잘못된 환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

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면서 학생 때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는 공부와 노력은 무척 설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험난한 과정을 겪어 오신 의료진들이 참 존경스러웠다. 강연의 막바지에는 학생들에게 응급처치요령인 CPR을 알려주시려고 애쓰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방법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의료진으로서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2학년 7반 김소연

도서관 행사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자랑인 도서관에서는 매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2014년도 전미라 선생님의 열정과 센스가 돋보이는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5월 8일 어버이날을 위해, ‘엄빠드림’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4월에 열렸다.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버이날을 지킬 수 없을까봐 선생님께서 배려해주신 소중한 행사였다. 책을 대출하면 응모권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당첨 되면 도서관에서 준비한 선물과 카드를 받게 되어 어버이날 선물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부모님께 드리는 책 선물은 5월 1일에 일괄 발송되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세계 책의 날’ 행사가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도서 대출자에게 수제 책갈피를 나누어주기도 했고, 응모를 통해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 도서를 받는 ‘사제드림’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이 ‘사제드림’ 행사는 선생님께서 추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으로, 응모자 중 총 7명의 학생들만이 그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또 작년과는 달리 ‘연체 클린 쿠폰’ 발행도 있어서 연체 기록을 지워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쿠폰은 방학 중에 ‘KDC 빙고판 채우기’에서도 발행 되었다.

7월에는 신착 도서를 대출하는 학생들에게 포춘 쿠키를 선물하는 행사가 있었다. 5개의 포춘 쿠키 안에는 당첨이 되었다는 문구의 쪽지가 들어있어 당첨자들은 쿠키와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2학기 초 예정된 ‘김진명 작가님’ 초청 강연에 대한 내용도 안내 받았다.





김진명 작가와의 만남 |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대학생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작가 1위'에 선정되신 김진명 작가님께서 우리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베스트셀러 메이커, 누적 판매부수 1300만 부를 기록하신 작가님인 만큼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날은 특별히 사전에 선발되어 개별 미션을 수행한 약 12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참석의 기회가 주어졌다.

김진명 작가님 소개 |

강연 시작에 앞서 2학년 강희구 학생과 1학년 박소민 학생이 작가님을 소개해주었다. 작가님께서 작품에 소개된 역사적인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 소개해주셨고, 그 후 2학년 김보성 학생이 작가님 소설들의 간단한 줄거리를 설명해주었다.

김진명 작가님의 강연 |

독서와 사색을 통한 내면의 힘 기르기

여러분들 때에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가치관, 철학이 하나도

없이 인생을 살면 껍데기 인생만 사는 거예요. 공부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은 독서를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힘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힘은 얻으면 얻을수록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면을 잃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사고, 즉 내면의 힘을 키워 세상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하는 목적이 세속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리가 트여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면의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지함, 성실함, 순수함, 정의로움, 착함, 효도, 사랑 등 모든 인류의 스승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길들이 전부 내면의 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힘은 독서에서 나옵니다.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깊이를 갖추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책에 푹 빠져서 책만 읽어보세요. 그렇게 삶을 풍성하게, 지식을 풍부하게 만든 다음에 공부를 해보세요. 세상은 넓고도 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서를 통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뒤편의 시각, 뒤편의 point of view.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명 작가님과의 질의응답 |

작가님께서 17세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그리고 작가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1학년 송은서)

저는 우리나라가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었어요. '작가'라는 꿈을 구체적으로 가진 건 아니었고, 항상 이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죠. 다양한 독서와 깊은 사색을 통해서 그것을 이 세상에 표현하고자 했어요.

보통 소설을 집필하실 때 자료를 얼마 동안 모으세요? 탈고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2학년 강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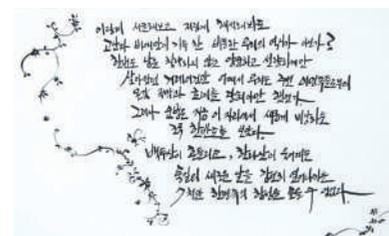
작품마다 달라요. 하지만 저는 문리가 트여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작가님께서 바라시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1학년 신창준)

'구체적'이라는 말에 의지가 보이네요.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풍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돈과 연관되어 생각하면 그 생각이 세대를 거쳐 그대로 이어져요. 이런 문화가 아닌,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가꿔온 가치와 의미를 봐야 해요. 그 세계와 호흡을 해야 돈에 관한 생각을 탈피할 수 있어요. 또 자꾸만 독서를 말하게 되는데, 독서를 통해서 문화와 철학, 그리고 내면적 가치관이 풍성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컨스피러시'에서 인문계만 우대하는 현실이 보였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그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학년 소윤)

'삼성 컨스피러시'의 원작인 '최후의 경전'을 쓸 때는 우리나라의 이공계가 정말 비참했어요. 15년 사이에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한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인문계를 나오면 학생 말대로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문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문계의 힘은 내면의 힘이에요. 깊은 생각을 통해 겉으로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는 것이죠. 역시 이를 위해선 독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인문계 학생에게는 당장 눈앞의 취직이 보이겠지만 독서를 기본으로 한 학생들은 사람의 삶을 봅니다. 인문계만의 고고한 길, 돈이 부족해도 당당하게 내면의 힘을 키우면 진정한 인간의 가치도 보게 될 겁니다.



2014 교내 백일장 변외편

슬로탈출

'나는 하겠지' 라는
헛된 희망

언제쯤

두 개의 타조알
최고의 등지에 있네.
그래서 그런가
부화할 생각을 안하네.

(주제 : 떨어지지 않는 다리 밑에 대한 안타까움)

다리

나의 시선은
이미 그 곳에

다리

지금 그녀와 나 사이에 인천대교
저기 서있는 저 친구는 우리들의 오작교
그래도 만나기 힘든 이유 학교
우리를 유일하게 이어줄 수 있는 다리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14년 현장체험학습

1학년 현장체험학습

지난 7월 10일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입학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하게 되었다. 모두가 설레고 들뜨는 마음으로 잠실 롯데월드로 향했다. 체험활동을 하기까지는, 잠실 지역의 싱크홀 문제와 여름의 더운 날씨 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도착하고 보니 적당한 더위와 함께 구름도 있어서 놀기에 적절했고, 놀이기구들도 모두 정상 운행 중이어서 신나게 즐길 수 있었다. 오랜만의 서울 나들이에 들며 모두가 즐거워했고, 낯선 공간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학교에서보다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교를 벗어나 자유롭고 신나 보이셨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지도를 마치고는 모두 함께 다니셨는데, 웃고 즐거워하시며 놀이기구를 즐기시는 모습이 흡사 10대 학생들 같이 천천만만해 보이셨다.

롯데월드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는 학급별로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남겼다.



2학년 현장체험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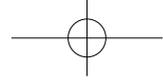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7월 10일, 2학년 학생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에버랜드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폭염 주의보가 내린 날이라 그런지 에버랜드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적어 학생들은 놀이기구를 비교적 수월하게 탈 수 있었다.

여름을 맞아 진행된 'Water Splash' 행사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주었는데, 학생들은 물줄기를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물을 맞았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단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종언 선생님을 필두로 한 행군이었다. 회전목마 전체를 대군으로 이끌고자 하셨던 계획은 인원 부족으로 청룡열차로 바뀌었으나, 청룡열차를 향해 한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따르라!!"하고 외치시던 이종언 선생님의 장엄한 목소리와 "와아아~" 하며 짐승 포스를 풍기던 학생들의 모습은 과연 장관이었다. 한 번의 출정을 계획했지만 놀이기구의 운영을 도와주던 알바생도 그 진격에 감동하여 또 한 번 웅망한 기상을 뿜어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저마다 재밌는 추억을 만들었다. 후롤라이드, T익스프레스 등 무섭다고 소문난 놀이기구를 타서 무표정으로 앉아 있기, 탑승객 전원 같은 자세 취하기 등 여러 내기와 이벤트로 그간의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하고 즐거움을 누렸다.





2014 | 힐링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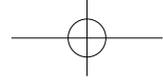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남자, 그대가 필요하오

HEALING CONCERT

‘힐링 콘서트’란 2013년 2기 이태현 도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학우들의 자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소. 출가하여 부모도 없이 힘들어하는 학우들을 위해 기획된 축제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할 수 있소. 2013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4년 까지 힐링 콘서트가 계속 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전통이 아니겠소?

자, 지금부터는 힐링 콘서트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 몇몇 학우들에게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인터뷰했으니 어디 한 번 들어보지 않겠소?





소방차 학우들 / 이주형, 문지원, 전기호

그대들은 힐링 콘서트에서 어찌 소방차 노래를 부를 생각을 했소?

힐링 콘서트에 나가기로 마음먹은 후 곡 선정에 대해 고민해 보았소. 보시다시피 우리는 아이돌 노래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기엔 너무 못생겼소. 결국 우리의 승부처는 선생님들까지도 공감하실 수 있는 추억팔이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이오. 이에 7080 히트곡이었던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선택했소. 사실 우리는 이 노래를 힐링 콘서트 하루 전날 선택하고 연습하였소.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 원곡의 춤을 완벽하게 재현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우린 춤을 하나하나 새로 만든 것이오.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해서 무대 위에서는 소름 돋는 땀사리와 몸뚱이들의 충돌 및 가사 실수, 마이크 선 꼬임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이해해주는 학우들의 넓은 이해심으로 이것이 개그로 승화되었던 것 같소.

그대들의 다음 계획은 무엇이오?

다음 우리와 함께 할 곡이 어떤 노래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소. 우리 소방차에는 심각한 위기가 있었소. 연봉 문제로 동료 간에 갈등(마지막 던진 새콤달콤이 주된 원인)이 생겼고 이로 인해 팀이 해체 위기에 놓였소. 하지만 우리는 신에 멤버를 등용하여 새로운 팀을 재탄생시켰소. 참고로 이번 곡은 소방차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빅재미를 선사할 곡이오.



송승원

송승원 학우는 어떤 사연으로 채택 되셨소?

안녕하시오. 소인은 송승원이라고 하오. 소인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연으로 나오게 되었소. 허나 그냥 갇히기만 했다면 사연에 채택되기 힘들지 않았겠소? 소인은 다른 이들과 달리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거나 문이 열리지 않았어도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소. 오히려 사방이 아주 조용하여 세상의 시끄러움을 단절해주었기에 더 좋았소. 하여 믿어지지 않겠지만 소인은 그곳에서 한국어 노트를 펴고 공부를 하였소. 그 다음날이 시험이어서 그런지 더욱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소.

또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없소?

흠... 정 엘리베이터가 싫다면 소인의 생각엔 비상계단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소. 저번에 어떤 선배가 비상계단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였다 하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꼭 소인처럼 공부할 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소.농이라네. 표정 무시게나. 역시 가장 좋은 곳은 면학실이 아니겠는가. 항상 면학실을 잘 활용해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 인천하늘고의 모든 학우들이 좋은 성적 연기를 기원하오.



윤동규

윤동규 학우는 어떤 사연으로 채택 되셨소?

소인은 이동수업 시 유일하게 여자반과 합반의 기회를 갖는 1학년 3반 학생이오. 때는 수학 분반시간. 봉우와 소인이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흰색 담요를 발견했소. 봉우가 소인에게 그것을 얼굴에 둘러싸고 '성냥팔이 소녀' 코스프레를 해보라고 권하기에 소인의 몸이 들썩거려 저절로 흰 담요를 취해버렸소. 현대 하필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 담요의 주인이었던 것이 아니겠소? 남자는 매우 찌푸린 얼굴로 '나의 것이니라' 하곤 담요를 획 낚아채 가버렸소. 소인은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기도 했으나 사과할 시기를 놓쳐, 힐링 콘서트를 기회 삼아 사과를 했던 것이오.

이후 그 남자와는 어떻게 되었소?

힐링 콘서트에서 너무 공개적으로 사건을 언급해서인지 그 이후 더 어색해진 것 같긴 하오. 허나 서로에게 악감정 없이 잘 지내고 있따오.



이승희

그대, 이 도령은 어떤 매력의 소유자인 것이오?

소인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내가 망가져도 확실하게. 다만 맺고 끊기는 철저히. 진지할 때는 진지한!' 그런 매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소. 하하하. 사실... 소인이 모르는 척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은 선수학습 때부터 이미 유명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정말... 미치겠구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니... 최하하하. 짙은 눈썹과 매서운 눈매의 소유자, 못하는 운동이 거의 없는 만능 스포츠맨, 공부...(잘하고 싶소!ㅋ) 그러나 소인 역시 단점이 많소. 자존심이 세서 화가 나면 주변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어색한 사람과는 정말 끝도 없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소. 그렇지만 스스로 이미 단점을 파악하고 있으니 고칠 수 있지 않겠소? 앞으로는 더욱 퍼펙트한 이승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소!

장기출연이온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하하~ 역시 승희커즈~!'라고 생각하오. 이 한마디로 봉우들의 큰 웃음을 볼 수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소.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이정은 남자, 영상을 편집해준 김보성 도령, 우리 여러 봉우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추억도 없었을 것이오.

이밖에도 힐링 콘서트 사회, 승희칩, 방송부 영화, 고3 응원 댄스, 학교 홍보 UCC, 학술제 '땡땡땡', 회장 선거운동 퍼포먼스 등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소. 늘 소인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 큰 힘이 된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소.



달려라 하늘고

2014년 체육대회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인천하늘고등학교 전체 학우가 오매불망(寤寐不忘)하던 체육대회 날이 밝았다. 하지만 체육대회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일어나자마자 마주한 회색빛 하늘과 비까지 뿌리는 하늘에 조금씩 무너지는 듯 했다. 학우들 사이에서는 체육대회가 취소되고, 롯데월드로 체험학습을 간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기에 오랫동안 체육대회를 기대하던 학우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체육대회를 상상하며 공들여 머리를 세우고 형용색색 찬란한 반티로 치장하던 전교의 많은 학생들은 절망에 빠졌고 축구를 하기 위해 축구화를 챙겨오던 남자 학우들도 모두 아쉬워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탄 버스는 목동 종합운동장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시작했다. 비를 뿌리는 시커먼 하늘도 체육대회를 기대하는 우리들 눈에는 찬란한 오색빛깔 비단처럼 고와 보였다. 곳은 날씨로 인해 안타깝게도 학급의 온갖 개성을 엿볼 수 있는 반별 퍼레이드는 생략한 채 바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면서도 열의를 다해 소리쳐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학우들의 모습, 또 승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친구들의 모습, '열일곱, 열여덟의 나이라서 가능한 투지와 열정이겠거니' 하고 지켜보시는 선생님들의 모습 등이 모두 뒤섞인 체육대회였다.



비오는 날씨와 추위도 잊게 만드는 청춘들의 재미있는 상황을 많이 연출되었다. 1학년 남학생들은 역시 '신입생'답게 어설피면서도 패기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씨름 경기에서 '1학년 3반의 아버지' 김준석 학우가 경기를 펼 때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아빠, 힘내세요.'로 응원가를 불러주던 모습이나, 추교영 학우의 5초 한판승, 그리고 피구 경기에서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으며 팀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몸부림 친 전동현 학우의 처절한 생존력은 단연 명장면으로 기억된다. 또한 회춘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정주원 선생님과 천도현 선생님께서





서 축구 경기에 함께 참여하신 것도 선생님과 제자 모두에게 뜻깊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약착같은 승부욕과 강한 남성의 상징인 '힘'이 오히려 1,2학년 여자 학우들에게서 보였다라는 것이다. 1학년 여학생들의 경우, 약천후와 신체적 조건 등에서 여러 불리함을 안고 있었던 박소현 학우의 씨름 무패 달성과, 그녀가 속한 학급의 가위바위보 전승 기록, 그리고 2학년 최미나 학우가 기적의 경기를 펼쳐며 라크로스 여장부로서의 진가를 발휘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피구에서는 1학년의 최다나-김지민 학우가 환상의 호흡을 선보여 6반이 전승을 했고, 발야구에서는 상대팀에 6점 차로 뒤지고 있던 7반이 맹추격을 펼쳐 최종 스코어 10 : 8의 역전승을 선보이며 스포츠의 짜릿함을 맛보기도 했다. 계주에서는 여자 '우사인 볼트' 이소정 학우의 존재감이 돋보였고, 줄다리기에서는 모두의 예상대로 과연 천하장사 5반이 승리했다.

아쉽게도 2학년 문과 여자 학우들은 이과 여자 학우들에게 근소한 차이로 많은 경기에 패했다. 2학년 문과 남자 학우들은 제갈공명에 빙의한 윤건우 학우의 지략과 노래 '연결고리' 리듬에 맞춰 힘차게 줄을 당겨 줄다리기에서 연속 네 경기를 모

두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축구는 치열한 접전 끝에 6반이 우승했다. 전반적인 모든 경기에서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과 협력하는 팀워크 등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력과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다.

경기 외에도 재미난 볼거리들은 많았다. 2학년 문과 남자 학우들은 축구 경기 패배 후 잔디밭에서 뒹굴며 놀고, 씨름판에서 슬라이딩을 하는 등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체육대회를 즐기며 추억을 쌓았다. 2학년 이과 여자 학우들은 파란색 반티를 입은 문과 여자 학우들을 대상으로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리게 해주마>라는 문구를 피켓에 적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문과 여자 학우들은 매 경기마다 훈민정음 서문을 외치며 '문과'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개인이 목에 걸고 다닌 플래카드와 남자 학우들의 축구 유니폼에 생긴 이름, 그리고 등번호는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제작해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냈다. 체육대회의 추억을 떠올리며 스케치를 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1학년 여자 학우의 '시골개'와(외모와 닮아 서인가...?) 남자 학우의 이름 'YUL GOK' 그리고 번호 '22'(울곡 이이)가 잊혀지지 않는다.



하늘인의 생활 하늘 라크로스



라크로스

채랑 공을 가지고 패스와 샷을 하여 골을 넣는 게임. 땅에서 하는 하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게임은 전반전 15분, 후반전 15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출전하는 선수의 인원수는 각 경기마다 다르지만 보통 공격수(2), 수비수(2), 미디(미드필더, 5)로 구성된다.

라크로스, 어렵지 않나

라크로스 특성상 계속 달려야 하다 보니 지구력과 체력이 받쳐줘야 한다. 달리는 게 빠르다면 금상첨화.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체념하긴 이르다.

들어오는 건 별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연습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기 때문.

하늘 라크로스의 장점

평소에 선배 또는 후배와 친해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크로스를 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다. 라크로스는 남자와 여자 경기가 따로 열리는데, 서로 챙겨줄 만큼 우애도 돈독하다. 그리고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면 성취감도 느껴진다. 라크로스 연습하는 데에서 오는 성실함은 덤.

드물긴 하지만 1기 때부터 학내의 최고 에이스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

다른 학교에 비해 하늘 라크로스는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틈틈이 시간을 쪼개 연습하고 라크로스에 애정을 가진 결과, 1년에 두 번 열리는 라크로스 전국고교대회에서 3점 차이로 2등을 할 만큼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1학년만 참여하는 경기에서는 1등이라는 우수한 결과를 얻기도 했다.

라크로스 친선 경기

2014 Korea-Japan Men's High School Lacrosse International Friendship Games

참가 인천하늘고등학교 + 이와쿠라고등학교 일시 2014년 3월 29일 (토) 10:00~13:00
장소 인천하늘고등학교 운동장

K 한국에는 이번이 처음 방문이신가요?

J 네, 처음 방문입니다.

K 그렇다면 인천하늘고등학교도 처음 방문하시겠네요.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J 제가 속한 고등학교의 라크로스 선생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K 라크로스 실력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평소 연습은 어떻게 하시나요?

J 실력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수줍게 웃음 ㅎㅎ) 운동장을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을 때 정신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팀 전체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배려하며 연습하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K 인천하늘고등학교와의 친선 경기에 앞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J 한 번의 친선 경기를 위해 한국에까지 왔으니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임하려고 합니다.

K 마지막으로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J 서로의 나라가 다르고 소속된 학교가 다르더라도, 그런 걸 뛰어넘어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EVENT 1



3월 신학기를 맞아 화제의 간식인 '빙식림'을 식후 간식으로 제공받았다. 모 연예인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화제가 된 이 간식은 빙튀기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만드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이 좋아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EVENT 2



'제기차기 이벤트'에는 많은 학생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참여하여 웃음을 준 행사였다. 1등을 하면 부상으로 롤케이크가 주어졌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

EVEN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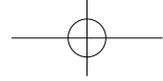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더운 여름을 맞아 '수박 무게 맞추기 대회'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수박을 눈으로 보고, 들어보면서 수박의 무게를 가늠하였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춰야 하는 이 대회에서 실제로 정확히 무게를 맞춘 학생이 있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다는 후문이 있다.



참참참♡
I♡Our Home

한 달에 한 번 집을 가는 학생들에게 날마다 영양 가득한 밥을 챙겨주는 인천하늘고등학교 급식실은, 식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소소한 이벤트로 학생들에게 재미를 선사해주기도 한다. 2014년에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던 급식실의 많은 행사를 소개한다.





EVENT 4



시험 기간에는 지친 학생들을 위한 소소한 ‘알까기 이벤트’가 있었다. 급식과 함께 받은 삶은 계란에 이벤트 결과가 적힌 쪽지가 붙어있어서 모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벤트에 참여했다. 행운의 1등에게는 학급 전체에 간식을 배부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고, 2등과 3등을 한 학생들은 푸짐한 과자를 상품으로 받았다.

EVENT 5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서 ‘신발 던지기 대회’도 있었다. 급식실 앞 통로에 줄을 그어 출발선을 만들어 놓아, 그 지점에서 신발을 던져 바구니에 넣으면 되는 간단한 경기였다. 바구니에 신발을 넣은 학생은 월드컵 응원상품을 뽑아 가져갔고, 신발을 바구니에 넣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참가만 하면 음료수를 제공해주어 모두가 즐겁게 참여했다.

2014' 백일장 수상작

산문부 대상 유리창(琉璃廠)

1학년 8반 홍유라

어둠이 짙게 깔린 조용한 산골의 정적을 깨트리는, 사내의 투박한 발걸음이 돌길을 따라 울렸다.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사내의 피곤한 발걸음이 은은한 호롱이 비치는 작고 깨끗한 초가집 앞에 멈춰 섰다. 사내는 긴장한 듯 갓을 고쳐 쓰고는 겸연쩍은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흘렸다. 이윽고 열린 사랑방 문으로 적막한 불빛이 새어나오더니 뒤이어 풍채 좋은 노인이 걸어 나왔다.

“예끼, 이 사람아. 기별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말없이 서있는 사내를 보며 노인이 던진 첫마디였다. 우두커니 선 채 난처한 듯 미소만 짓고 있는 사내를 바라보며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사랑방으로 사내를 이끌었다.

“퇴청하기도 힘든 규장각 검서관이 이런 산골짜기에 무슨 불일로 찾아왔단 말인가, 그래? 그것도 이런 야심한 밤에 말일세. 아니지, 그전에 말이야, 자네 꼴이 이게 대체 무엇인가? 약주나 한 잔 들며 먼저 여독이나 풀도록 함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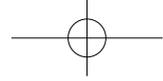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하루 온종일 글만 읽다보니 눈이 피곤해진 모양입니다. 그래도 상감마마의 성으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 허허. 연암께서 저를 내쫓진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네는 나를 아둔한 인간으로 보는가. 다른 이도 아니고 초정이 눈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곳까지 내려왔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는 말인가. 그리고 설령 자네가 그랬다 하더라도 당저께서 자네를 놓아주셨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던가. 외궐 편찬이 한창일 이맘때에 말이야.”

사내는 복잡한 표정으로 앞에 놓인 술잔을 바라보더니 곧 싱긋 웃으며 단숨에 잔을 비웠다. 그러기를 여러 번, 취기가 오른 사내는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운을 떠웠다.

“3년 전 오늘 같은 밤이었습니다. 한 손에 술병을 들고 달 밝은 유리창 거리를 다니며, 발 닿는 곳곳에 위치한 처음 보는 서책 앞에 멈춰서기를 여러 번, 또 달을 안





주삼아 나빙과 필담을 나누기를 여러 번 하던 밤이었지요. 조선의 선비로서 부덕한 생각인줄은 알지만, 흥취에 젖은 그날 밤 저는 조선으로 돌아갈 생각에 잠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내는 목이 타는 듯 급하게 술잔을 비우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다.

“얼마 전 열하일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걸었던 지난날의 거리가 고스란히 생각이 나더군요. 처음 사행에 나가던 날, 저를 압도했던 그 유리창 거리만큼이나 파격적인 스승님의 문장을 곱씹고 있던 중 그 때의 달밤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말을 멈춘 사내의 흔들리는 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곤 안타까운 표정을 애써 숨긴 채 사뭇 경쾌한 어조로 말했다.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보군, 초정을 이렇게 흔들리게 한 것이 무엇이랄 말인가? 달 밝은 밤은 유리창뿐 아니라 이곳 조선에도 있다네. 나빙 못지않은 백담의 인연들도 아직은 자네 곁에 존재하지 않은가. 말해보게, 초정. 자네가 이리 고뇌에 빠저든 까닭이 무어란 말인가?”

“자송문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자송문이라니, 당저계선 까닭 없이 그리하실 분이 아닐세. 대체 무슨 이유로…….”

“오늘날의 부덕은 모두 패관소품에서 비롯된 것이니, 순정한 고문을 본받아 옛 정신을 되찾아라, 이것이 전하의 어명이십니다. 몇 달 전 성균관 유생 이육이 그릇된 문체를 지적받아 영구 파직되었고, 저를 비롯하여 영재와 청장관도 모두 자송문을 쓰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흐음, 문체로 관리들을 통제하겠다, 과연 상감다운 생각이로군. 문풍은 곧 정신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니, 앞으로 더욱 시끄러워지겠구먼.”

“그리고, 스승님. 전하께서, 전하께서 열하일기를 읽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호탕하게 울리는 노인의 웃음소리가 사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덮었다. 잠시 후 가까스로 웃음을 그친 노인은, 여전히 울상인 얼굴인 사내를 바라보며 웃음기를 머금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저계서 뭐라고 하시던가? 연암 박지원은 오늘날 문체의 타락을 꾀한 주동자로, 요사스러운 잡문으로 선비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바, 내 이를 껌씹히 여겨 박지원의 귀양을 명한다, 이렇게 하명하셨나?”

“전하계선, 아직 아무런 하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제 규장각을 찾아오시더니 저를 보시곤 스승을 모시지 못하는 제자라 나무라시며 스승님을 뵙고 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래, 그러실 테지, 참으로 금상다운 태도야. 그렇지 않은가? 현대, 이제 까닭은 모두 알았고, 대처할 도리는 찾지 못하였으니,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을 듯싶네. 3년 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리가 아닌 듯싶네만. 흐음, 자네가 먼저 유리창을 논하며 운을 띄웠으니, 내가 그에 대해 짧은 답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제가 어찌 감히 스승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쫓쫓, 세월은 초정에게도 흘렀구먼. 내가 알던 초정은 이리 유순하지 않았어. 어쨌든, 적적한 노인네를 잘못 찾아온 벌이라 생각하고 듣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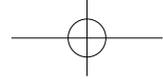
노인은 이미 텅 비어버린 술병이 아쉬운 듯 몇 번 흔들더니, 창호지 틈으로 스며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서적의 향이 흠뻑 묻어나는 달밤에 벗과 필담을 나누던 흥취가 자네가 회상하는 유리창이라면, 나는 좀 다르다네. 물론 마음이 맞는 이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던 밤도 그림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거리의 모습은 밤이 아니라 낮이야. 내가 처음 그 거리에 당도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있는, 유리창이 가장 정신없을 때였다네.

옥류거를 비롯한 서책방 앞에는 새로 들어온 서책을 구입하려는 문인들이 줄을 이어 기다리고, 수레를 끌고 다니는 상인들이 저들의 물건을 더 팔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였지. 시장 한복판에서는 역사가 칼을 삼키는 진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레, 꼬끼리라고 하는 괴상한 동물이 우두커니 서있더군. 27만 칸이라고 하였던가, 붉고 푸른 유리기와에 둘러싸여 있는 그 거대한 거리는 투명한 햇빛에 더욱 반짝였고, 그 화려한 기와 밑을 서역인과 청국인이 함께 걸어가고 있더군.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둘 다 얼굴이 붉어진 것이 아마도 열띤 논쟁을 벌이던 중이던 것 같네. 자네도 알아챘을 걸세. 처음에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멍하니 거리를 응시하다보면, 갑자기 눈앞에 펼쳐져 탁,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 다음의 놀라운 광경을 말아야.”

노인이 말을 멈추고 사내를 바라보자, 사내는 자신도 보았던 그 거리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다음에 꺼낼 말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짐작이 되는 터였다.

“문인들이 줄을 지어 사는 서책은 사서나 삼경이 아닌 소설이고, 수레를 끌고 다니는 상인과 똑같이 소리를 지으며 물건 값을 흥정하는 이는 고관대작이며, 서역인과 청국인이 함께 길을 걸으며 신문물에 대해 논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조선인처럼 앞선 저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보며 유리창이 어떤 거리인지 하나로 묶을 수 있겠던가. 그 거리를 어떤 하나의 정신으로 규합할 수 있겠던가, 초정?”

“정신없는 그 거리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유리창에서는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건 그 곳에 잠시 있어본 이라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초정, 자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있군 그래. 자기에서 나온 생각을 곱씹어 보면 언제나 답은 나타나는 법이지.”

“예?”

“자네가 벌써 그 거리를 하나의 성질로 규합하지 않았던가. 정신없는 거리, 활기로 가득 찬 그 거리는 누군가가 통제할 수 없다네. 그게 내 물음에 대한 답이야. 유리창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고, 더불어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자유롭게 활주하는 곳이라네. 누군가는 어떤 생각을 만들고, 다른 누군가는 그를 추종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생각을 비판하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리창은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해나가는 것이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시끄러운듯하지만 평온한, 균형 잡힌 상태로 말일세. 그리고 그 유리창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청이라는 대국이지. 이 나라의 호사가들이 예를 모르는 무지한 오랑캐라고 경멸하는 곳. 하지만, 도리어 무지한 쪽은 우리가 아닌가. 예라는 틀, 그 허례 허식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가두어 편협해지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이질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논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었던 말이네. 우리도 서둘러야 해. 세상은 바쁘게 흘러가고, 지난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네, 초정.”

노인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빛이 맑아진 사내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밖을 내어 다보니 창호지에 비치는 달빛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흘러간 대화였다.

“금상께서는 절대 이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아니, 금상께서 승리하시면 아니되는 싸움입니다. 문체를 바로잡는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의 본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 모두의 정신을 같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요. 동일한 사유 속에서는 그 어떤 발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시간이 그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에 사내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지난 고민의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을 역지로 막으면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언젠가 독을 터뜨려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리 간단한 이치를 가지고 왜 그리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는지. 전하께서도, 언젠가는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버텨볼 생각입니다.”

말을 마친 사내는 일어서더니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였다. 노인이 먼 길을 다시 급하게 떠나서는 안 된다며, 건강을 생각해 하루쯤 머무르다 떠나기를 권하였으나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대문 밖을 나갔다.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였다.

“저는, 스승님을 찾아 뵈는 적이 없습니다. 길을 걷던 중 발병이 나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느라 스승님을 찾아뵈지 못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내게도 자송문을 쓰라고 하셨을 테지.”

“하하, 스승님께선, 처음부터 알고 계셨겠지요. 역시 스승님을 속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승님께는 그 사실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승님께서는 지금 도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시니 자송문을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테지요.”

“헛헛, 정말 천하의 초정도 나이를 먹나보구면. 알았네, 이 뒷방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네. 자, 갈 길이 바쁘니 어서 가시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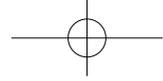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그럼 가보겠습니다. 스승님.”

“초정, 눈은 몸의 구 할이니 소중히 다뤄야 하네. 가끔은 쉬면서 먼 산도 내다보고, 농땡이도 좀 부릴세. 금상께서 자네의 건강마저 살피주시는 것은 아니라네.”

이미 마을 어귀를 벗어나고 있는 성질 급한 사내를 바라보며 노인은 눈시울이 시큰거려왔다. 아직도 금상을 완벽하게 모르는 자신의 제자였다.

“초정, 금상을 믿지 말게. 금상은 이미 알고 있어. 다만 금상이 꿈꾸는 세상은 자네와 다르기에 시간을 유보하는 거지. 힘들 테야. 그러나 초정, 지금의 자네 같은 이들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조선도 유리창 거리 하나쯤은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 그곳에서의 활주가 조선 전체로 퍼지는 날이 오지 않겠나. 나는, 자네를 믿네. 그 젊음을 믿어. 그러니 말일세, 절대로 자네의 글을, 그 정신을 잃지 말아주게.”

노인은 잠시 동안 사내가 지나간 돌길을 바라보았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산줄기 위로 동이 터오를 터였다. 노인은 낡은 도포를 툭툭 털고는 북쪽을 보고 고개를 젓더니 다시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다. 풀벌레 소리마저 들리지 않던, 그 누구도 알지 못할 밤이었다.



운문부 대상

엄마의 혀

2학년 3반 박예리

엄마는 매일 밤 세상을 훑으신다.
 눈도 뜨지 못하는 아지랑이 같은
 우리들의 온기가 그치지 않도록
 엄마는 모든 세상에 혀를 대며
 씻지 않은 모든 것들을 훑아내신다.
 아직 강하지 못한 뺨에 입을 맞추고
 따뜻한 킁킁 타액 한 줄기를
 영원한 기도처럼 붙여두신다.
 그리고도 언제나
 온몸으로 부족하다 여기고
 스스로 꿈틀대는 혀가 되려 하신다.
 오늘 밤에도 엄마는 잠들지 않고
 꼬물거리는 별 하나 훑아내신다.

산문부 금상

뒷모습의 추억

1학년 1반 문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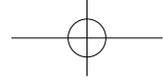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할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손자의 물음에 주춤한 노인 박승환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을 이어나갔다.

“으응..... 그래서 말이지”

1965년 부산, 짙은 녹색의 군복차림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애인, 가족 그리고 친구
 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수많은 손들 사이에도 젊은 군인, 박승환의 손도 하늘을 가
 르고 있었다. 뱃고동 소리가 울리고 배는 천천히 먼 나라, 월남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
 작했다. 사실 그가 월남파병에 참가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15년 전 6.25 동란
 의 아픈 추억을 그로서는 절대로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예닐곱 살이었을 때 부산으로 피난가기 위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원치 않은
 여행길에 오른 적이 있다. 그의 만행은 징집을 당해 생사를 모르는 상태였고 아버지는
 지병이 심해져서 거동도 불편했던 상태였다. 어렸던 그가 가족들과 한적한 건물
 에 잠시 숨을 돌렸을 때였다. 불가피한 여정이 십 며칠 간 진행되었던 상태 하 그는
 물론 언제나 ‘우리 씩씩한 승환이’라고 그를 불러줬던 어머니마저도 한 동안 말이 없
 을 만큼 모두가 지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무겁고 발걸음 소리가 점점 크
 게 들렸다. 어머니는 안 좋은 조짐을 느꼈고 그와 그의 누이를 외딴방에 잠시 옮겨놓
 고 그가, 꼬마 박승환이 항상 수집했던 탄피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잠시만 가지고
 놀아라” 하고 말한 뒤 돌면 문을 잠그셨다. 그것은 그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뒷모습
 이었다. 잠시 후 몇 발의 총성이 울렸고 그는 자신이 어머니와 떨어진 상황을 참지 못
 해 울고만 싶었지만 그의 누이는 자꾸만 입을 틀어막았다. 시간이 흘러 문 밖으로 군
 인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는 혀 굴린 말소리로 보아 미국 군인 아저씨라는 것을 짐
 작했다, 그의 적중은 정확했다. 어느 미군들이 그를 안고 안전한 곳, 총소리와 포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대려다 주려했다. 그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그의 어
 머니와 아버지가 있던 방으로 가려했으나 미군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가 울음을 참



지 못해 엉엉 울자 어느 미국병사가 그를 등에 업히고 달려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울면서 어느 시체 두 구가 반대편 북도에서 실려 나오는 것을 한 미국병사의 등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비록 그를 억지로 업혀 끌고 갔던 미군들이었지만 그와 친해지기 위해서 C레이션과 특히 어린 박승환이 훗날, 지금도 좋아하는 초콜릿을 쥐어주면 그는 웃음을 띠곤 했다. 몇 달이 흐르고 그는 미군부대에 있던 한 통역장교의 양아들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군인은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전 그 병사는 어린 박승환에게 탄피를 쥐어주었다. 그저 닳고 녹슨 탄피였지만 그는 그 탄피를 소중하게 다뤘고 그 병사는 뒷모습만 보인 채 떠났다.

며칠이 지났을까.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기가 벌써 월남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주섬주섬 탄피 목걸이를 챙기고 배에서 내렸다. 월남- 멀고도 먼 나라였다. 무엇보다 그는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6.25 이후 가족과 헤어짐, 가난, 고통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공산주의’ 때문이라 생각했다. 자기가 이곳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이유, 자신의 조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소중한 가족들을 죽이고 어머니의 뒷모습만 남기게 한 그 모든 이유가 바로 ‘공산주의’ 때문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고 친절하게 먹을 것까지 주었던 미국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칠 준비를 했다. 이런 정신무장 덕분이었을까. 그는 여러 전투에서 무공을 쌓았고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 손에 피를 많이 묻힐수록 그의 어렸을 적 기억속의 어머니의 뒷모습은 점점 사라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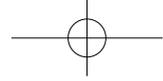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1년 뒤 그는 미국 산하의 월남군사원조사령부 소속 특수작전부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어느 30대 미국 부사관과 한 팀이 되어 북베트남에 대한 공작 활동을 펼쳤다. 어느 날 그의 부대원들은 어느 베트남 진지를 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그는 마을에 폭탄을 터트리고 습격을 시작했다. 탄창을 갈고 갈면서 그는 뒷모습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공산주의자’들을 쏘아댔다. 그런데 그는 이상함을 느꼈다. 마을에는 남자 어른들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여자나 아니면 아이들이었다. 이상함을 뒤로 한 채로 그는 어느 집 문을 열었다. 창고에서 어느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광기를 담았던 눈동자를 풀고 아이를 업히고 안전한 지대를 옮겼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그는 그가 메고 있었던 탄피 목걸이를 쥐어주고 황급히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그가 그토록 증오하던 적 ‘공산주의자’에게 뒷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는 임무 중 이탈과 베트남에 협력했다는 죄로 불명예 제대했다. 그는 그의 의붓아버지에게 더 이상 돈을

못 부치게 되어 아쉬웠지만 전장을 벗어나면서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98년에는 손자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놈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해 한통의 전화가 왔다. 무슨 단체에서 걸려온 전화인데 전쟁 때 자신을 아는 사람이 부탁하건데 꼭 만나고 싶다는 전화였다. 공항에서 약속을 잡자는 말을 듣고 그는 그가 어렸을 적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미국 병사기를 바랐다.

약속 당일, 그는 어느 한 동남아 사람이 통역가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동남아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는 아쉬워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노병 박승환은, 그가 바로 50여년 전 자기가 구해줬던 어린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동남아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듣고 어느 봉투를 건네 받았다. 그가 건네준 탄피 목걸이였다. 그 동남아 사람이 뒷모습을 보이고 떠나자 그는 돌연 이 탄피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뒷모습만 보이고 떠난 그 병사, 박승환, 그는 수소문을 하면서 그 미군병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는 못했다.

그는 손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손자에게 설명하던 중, 돌연 40여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주춤했다. 할아버지가 말을 멈추자 손자는 물었다. “할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노인은 이내 정신 차리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충분히 공감한 손자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곧 손자는 실마리를 찾았다. 탄피 목걸이에 그 병사의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소문 끝에 손자는 그 미군병사를 찾게 됐다. 80세 노인이 된 미군 노병에게 손자는 그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깜짝 놀란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노병은 자신이 그 아이를 6.25때 구했고 월남전에도 어느 한국병사와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가 바로 자신이 구해주었던 아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탄피 얘기를 떠나자 그의 추측은 확신으로 바뀌어있었다. 손자는 전화를 마친 후 그의 할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말하려고 했지만 주춤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 추억에 더 이상 미국병사와 어머니 그리고 그 베트남 소년의 뒷모습을 보고 보여줬던 것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산문부 은상

차가운 우연

1학년 2반 김정현

‘터벅터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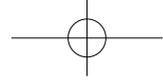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오늘도 힘없이 걸음을 내딛으며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 들어간다. 이미 단지 입구 건너편 상가들은 불이 꺼져있고 노래방 네온사인만이 형형색색 빛을 내뿜으며 번쩍거린다. 그렇게 5분 정도 걸었을까, 어느새 아파트 슈퍼마켓 옆 공중전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미 아파트에 불 켜진 집이 몇 안 될 만큼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 꼭 누구와 말을 이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걸음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다. 그렇게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가 유리벽에 몸을 기대고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낸다. 동전 주머니를 열어보니 동전 수어개가 부스 형광등의 빛을 받아 반짝거린다. 수화기를 집어 들고 있는 동전을 모두 공중전화에 넣었다. “어…….” 하지만 막상 수화기를 집어 들고 나니 손은 다이얼 위에 가만히 떠있다. 그 순간 세 달 전에 통화료가 너무 아까워 만원이라도 절약해보고자 해지했던 낡은 핸드폰이 떠올랐다.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어느 한 중소기업에 채용됐다. 대학 학과를 살려보려 지원했던 기업 서버 엔지니어였다. 꽤 큰 기대를 하고 들어갔지만 밤을 회사에서 지새우길 밥 먹듯 하고 에어컨 바람소리와 타닥타닥 하드디스크 읽는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서버실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 이런 사정이나 사람들과 하는 말은 업무적이고 상투적인 몇 마디가 끝이다. 그렇게 1년여 폐인처럼 살다보니 정작 누군가와 진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수화기를 들어도 늦은 시간에 민폐가 될까봐 발걸음을 돌린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마음속으로 가족과 연락한 날을 떠올려 보니 쉽게 공중전화에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어...음...” 몇 분이나 흘렀을까, 버튼 세 개를 눌렀다. “공일공에-...” 몇 안 되는 가족들 중 고민하다 엄마의 전화번호를 누른다. “뚜--- 뚜---” 신호가 가기 시작한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을 가다듬고 엄마 목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린다. “톡-” 짧고 굵은 소리가 한 번 나더니 높은 고주파 음만이 귀에 들려온다. 이런 소리는 전에도 스피커 선을 잘라먹

었을 때 들어본 적 있다. “에이씨...” 어렵게 결정한 바로 전의 용기를 후회하며 수화기를 내던지듯이 떨어뜨린다. “하필 이럴 때 말썹이람...”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 순간 수화기에서 조금은 종류가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집어 든다. 하지만 이내 당황하고 말았다. 엄마 목소리라기엔 좀 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야- 상운아! 나 핀프렌드 아이디 좀 빌릴 수 있을까?” 곧이어 20대 초반의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 검색만 해줘, 다른 건 건들지 말고...” 그리고 남자가 아이디를 불러주기 시작한다. 갑자기 오만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는다.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 ‘핀프렌드’도 엄청 반가웠다. 유명한 포털사이트의 사람 찾기 서비스인데 마침 우리 회사가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서비스였고 바로 내가 서버 담당자인 서버기도 했다.

“톡-” 갑자기 둔탁한 전자음이 나더니 수화기는 묵묵부답이다. “전화 교환기가 다 운뎠나...” 신기한 경험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호기심 들기 시작했다. 엄청난 집착이다, 살면서 처음. 그 길로 바로 회사로 들어와버렸다. 시계를 보니 시침은 2를 가리키고 있다. 냉장고에서 캔 음료수 하나를 꺼내들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버에 원격 접속을 한다. “Welcome Admin!” 오늘도 셀 수 없이 많이 보는 문장이지만 낯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바로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조금 전에 들은 그 이메일 주소를 검색한다. 걸리면 바로 징계감이다, 월급이야 날아갈 테지만 지금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곧바로 결과를 인쇄해 쪽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박은서라...” 바로 옆에 회원 인적 정도가 눈에 들어온다. “평서아파트 1701동 402호” 놀랍게도 같은 라인이다. ‘데이터가 2분(min)전에 교체’ 그 전화 속 여자가 맞는 것 같다.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부 전산망의 접속 기록을 지우려 회사 전산망에 접속한다. ‘DELETE ALL LOG’ 별 죄책감 없이 명령어를 입력한다. 진행상태 그래프가 점점 초록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음료를 몇 모금 넘기면서 전산망 공지사항을 뒤적거린다. 그 중 굵은 글자로 몇 자가 적혀있다. “하청 교체 및 업무 종료 공지” 별 생각 없이 클릭한다. 뻑뻑한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별일 아니겠거니 하며 스크롤바를 죽 내린다. 집에 갈 때 즈음인 1시간 전에 작성된 글이다. 몇 문장이 강조 표시 되어있다. “서버 이전 및 그에 따른 업무 종료 처리 가이드라인”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천천히 스크롤을 내린다. “회원 정보 및 기타 데이터는 모두 예약 작업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예정 관리자는 작업 자체 요망” 서버에 접속한다. “DELETE COLUMN NO.1119421, Data = Name:박규민; Age:23;.....” 정말로 일어나고 말았다.



갑자기 무언가 나를 잡아끈다. 손에는 땀이 흥건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은데” 머리가 하얘진다. 살면서 처음이다, 이런 집착은, 하지만 모르겠다. 서둘러 움직인다. ‘테구르르 탱’ 음료수를 손바닥에 흘려버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다. 서버 정보 보관실의 문을 연다. ‘그 사람 데이터의 삭제 순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서버 장비로 뛰어간다. 문을 연다. 차가운 쇠덩이에 손을 뺐는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진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다, 그 순간 공지서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간다. “고 중요도의 정보 작업 중, 이상 조작을 막기 위해 전원 공급체계 전환, 강한 전류 인가 중, 접지 없음, 감전 주의 요망”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서버 상태 모니터가 붉게 변한다. “FATAL ERROR! DISK DISCONNECTED” 성공이다. 하지만 잘못됐다. 점점 머릿속이 비어간다.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점점 나는 차가워진다.

산문부 은상

유리창

2학년 2반 강희구

어렸을 땐 몇 시간이고 유리창 앞에 앉아 있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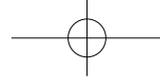
봄에는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를 순하고 부드러운 색깔이 고개를 뺨뺨 내밀고 있는 게 신기했고, 여름에는 삼바의 여왕 같은 강렬한 햇빛이 춤추는 것을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다. 가을에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곱게 물들은 이파리들이 마지막 여정을 떠나는 게 처연하면서도 수수하게 아름다워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고 “아...”하는 탄식을 흘려보냈다.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때는 겨울이었다.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서리에 “후하, 후하야”하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서리들은 파르르, 하고 연약하게, 또 부드럽게 녹아 내렸다. 그제야 끼리끼리 뭉쳐 있던 그들은 제 본 모습을 보였다. 따뜻한 온기를 쥐서 고맙다는 듯이, 투명한 눈꽃 자국 남기고선 말이다.

그 자국을 통해서 우리의 빛은 비로소 완전해졌고, 실처럼 가는 작은 결정들이 자신을 드러냈다. 나는 그것이 신기하고 재미있고 또 아름다워서 끊임없이 내 안의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토해냈다. 그렇게 나를 채우던 조그마한 바람들을 모두 비운 뒤, 나는 내가 만든 풍경을 바라보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얗고 반투명한, 기하학적인 프랙탈 무늬 벽지와 그 위에 송송 뿜린 물방울 같은 구멍들. 겨울의 가늘고 희미한 햇살은 귀소 덩어리로 이루어진 얇은 판자를 지나 그 그림을 완성시켰다. 유리창과 서리는 함께 있을 때 더 반짝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좋았다.

유리창에서 자연과 놀던 시간들이 지나고, 조금 더 자라자 나는 커진 몸의 부피처럼 크고 명확한 것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내가 알던 것들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다양한, 안의 깊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단순히 망막에 맺힌 상으로 추측해야 하는 존재였다. 사람들은 같은 듯 하지만 같지 않았다. 다른 듯 하지만 다르지 않았다. 그



리고 무엇보다도 생기가 넘쳤다.

세상 모든 것이 재미있어 길거리를 헤집고 다니는 어린아이들과 엄마에게 야단을 맞아 썰쭉한 입으로 막대사탕을 빠는 꼬마, 약속 장소를 향해 페달을 밟는 자전거 위 소년과 엄마의 잔심부름으로 사온 콩나물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소녀. 수다를 떨며 까르르 웃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과 학원 끝나고 컵떡볶이에 오뎅 한 개를 찹찹거리며 걷는 남학생, 동창을 만나 추억 따먹기를 하며 동네 커피숍으로 향하는 아주머니들과 아스라이 깔리는 저녁 노을을 함께 구경하는 연인, 그리고 자식에게 줄 과자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아저씨.

나는 먹이를 쫓는 아기 새처럼 조잘대며 눈으로 그들을 쫓았다. 바라보는 것으로나 마 그들의 생기를 함께 호흡하는 것은 꽤나 즐거운 일이었다.

요즘 들어 내 앞에 유리창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갓 세상에 난 알이 자신을 보호할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나올 때 나도 유리창을 둘러치고 나온 것 같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무서움이었. 그러나 동시에 유리창이 주는 묘한 즐거움이었. 나는 유리창을 통해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관찰자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일이 흔히 그렇듯,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에 봉착했다.

그때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다칠 게 두려워서였다. 그러자 주변엔 겹겹이 유리창이 쌓였다. 유리벽이 견고해질수록 나에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두꺼워진 유리만큼 외부에서 오는 아픔이 줄어들수록, 마음속을 쿡쿡 찌르는 아픔은 늘어난 거였다. 고심하던 나는 해가 지나고 유리창이 배로 늘어난 이후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볼 순 있었지만 세상과 닿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책에서 그런 구절을 본 적 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 자신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는 때라고. 유리창을 둘러침으로써 일차적인 고통은 막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킨 셈이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나는 유리창을 깰 수 없었다.

아니, 없었다가 맞나?

어쩌면 나는 유리창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리창을 깨고 마주할 세계의 민낯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모른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유리창을 깰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아, 지영아!”

탄 생각에 빠져 있던 지영은 정신을 차렸다. 무의식적으로 김이 서린 유리창에 손가락을 끼적대고 있었다. 또다. 지영은 입술을 잘근거렸다. 유리창을 보면 손을 가져다 대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 그녀는 어색하게 손을 떼곤 상대에게 인사했다.

“안녕.”

“여기 카페 분위기 엄청 좋다, 그치?”

지영은 부러 활달하게 말하는 그녀의 친구를 보고, 눈치 채지 않게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답했다.

“...그렇게.”

지영의 앞에 앉은 그녀는 연신 탄성을 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유리창이라는 것, 그것은 너무도 투명해서 완전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다.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가오다가는 황, 하고 유리벽에 얼굴을 부딪치기 십상이었다. 그래도 가끔 한둘은 우리가 갖는 특성에 끌려 주위를 맴돌았다. 투명하고, 반짝이고, ...신비스러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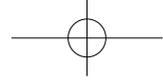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지영은 ‘신비스럽다’는 표현에 거부감이 들어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 ‘신비’가, 정작 당사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 애들은 전혀 모르겠지.

문득 시선이 느껴져 앞을 바라보니,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아니, 그냥”하고 짤막하게 답한 그녀는 아무 의미 없이 앞에 놓인 고운 하늘색의 음료를 빨대로 휘저었다. 동동 떠다니는 하늘색 거품에 엉겨 있는 얇은 실가닥이 눈에 띄었다. 솜사탕을 넣어 만든 라떼라는데, 색다른 맛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달았다. 지영은 괜스레 빨대로 거품인지 솜사탕 조각인지 모를 덩어리를 짓이겼다.

꽤 시간이 흐른 후에야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가 봐야 할 것 같다는 거였다. 같이 나가자고 하는 친구에게 지영은 생각할 게 있다며 그녀를 먼저 보냈다.

지영은 하늘색 라떼 위 잘게 바스러진 솜사탕 거품 덩이가 여전히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영이 손가락으로 끼적거렸던 흔적은 유리창에 사라지고 없었다.

꿈을 꿔다. 오래된 꿈이었다.

꿈은 온통 까만 세상이었다. 아무것도 없네, 하고 고개를 돌릴 무렵, “텅” 하고 흰 알이 어디에선가 굴러 떨어졌다. 지영은 알을 뒤집어 쓴 새의 모습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알은 몇 번을 들썩이다, 이내 잠잠해졌다. 까만 눈이 테구르르 굴러갔다.

새는 알 속에서 그저 가만히 날개를 움찔거리고, 발을 굴렀다. 그 모습을 보자 묘한 안도감이 일었다. 알 안에 있다고 죽은 것은 아니었다. 지영은 어둠 속에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새는 큰 눈을 꿈뻑거리더니, 부리를 벌렸다. “에—” 같기도 하고 “왜—” 같기도 한 소리였다. 새는 날갯짓했다. 발을 차고 또 찼다. 알은 크게 요동쳤다.

지영은 조마조마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견고한 알껍데기는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새의 깃털과 발톱에는 빨간 피가 어렸다.

마침내 “빠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새는 알을 깨고 나왔다. 알 안에 있었을 때 한없이 작았던 새는 세상에 닿자마자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 날아갔다.

지영은 멍하니 새를 바라보았다. 새는 부리를 벌리고 크게 울었다. “에—”하던 파동은 점점 커져 지영을 감쌌다. 한쪽 끄트머리에 일렁이는 흰 빛 속으로 새가 사라지자, 파동은 명확한 소리가 되어 들려왔다.

“압락사스, 압락사스, 압락사스……………”

곧이어 지영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저 멀리서 알을 뒤집어 쓴 또 다른 새가 보였다.

알을 뒤집어 쓴 새의 모습은 어느새 유리창에 간혀 있는 지영의 모습이 되었다. 지영은 유리창 밖에 서서, 처음으로 유리창 안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새가 울고 있었다.

운문부 은상

엄마, 유리창, 손가락, 아들

1학년 4반 김윤영

손가락 하나가 유리창 위를 가만히 짚어본다
하얗게 김 서린 유리창을 유유히 가로지른다

쓴다
지운다
다시 쓴다
이내 곧 지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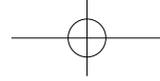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 여자
손가락을 애타게 쳐다본다

여자는 손가락에 다가간다
손가락과 함께 그러나 경찰차는
떠난다

여자가 보이지 않자
조그맣게 귀퉁이에 쓴 무언가

엄마 미안해 못난 아들이라서

눈물이 글자를 지워버린다



운문부 은상

십

2학년 8반 이영주

긴 문장에서 모든 걸 담아내기에 벅차
마침표 사이에 십표를 집어넣는다.
한 박자 쉬고 진행한다.

우리는 끝이 없는 마침표를 향해 달린다.
십표 없이 그냥 달린다.
문장에도 있는 십표를 우리는 그냥 없애버렸다.

교지 작품 응모 수상작

그날의 봄

1학년 6반 김락경

산비탈 흄냄새 속에
꽃 피던
그날의 봄은 오는데

무언가 가버린 것을 그리는
나비가 슬픔으로 날고
떨어진 붉은 봄의 조각
검게 물들 즈음에

홀로
꽃이 쌓인 그 길을 걸으면
떠나가 버린 것이 생각나
가기 전에
더 보아줄 것을
더 아껴줄 것을

수백 번 곱씹으며
슬픈 후회만 하네

누군가의 어떤 시처럼
진달래꽃 사뿐히 즈려 밟던
그날의 봄은 떨어지고
꽃은 가는데



교지 작품 응모 수상작

누가 검은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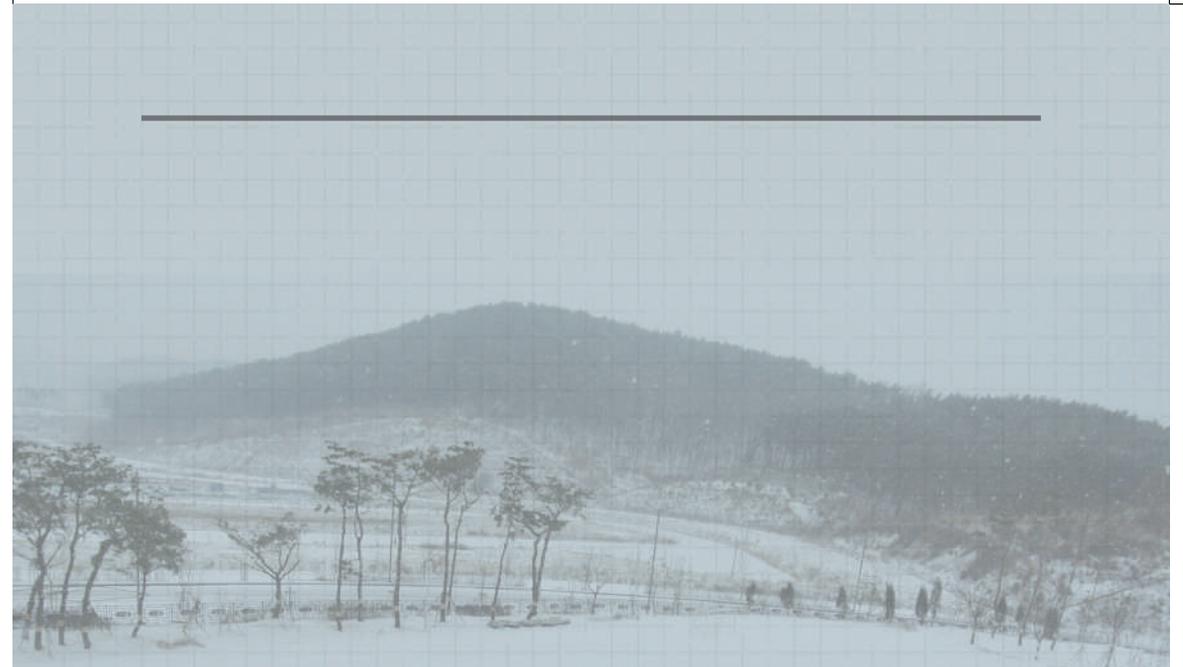
2학년 3반 김보성

검은 건반이 흰 건반에게 안기지 않은 건,
질투가 아닌 사랑의 배려다.
반쯤 올라간 자신의 짙은 색 사랑이
청아한 흰색의 고결한 음율을 망칠까봐

그것은
검은색의 사랑의 방식

팔레트 위 활개 치는 물감들을 보고 웃는 검은 물감과 같이
칠혹 같은 밤 속 촛불위해 자릴 양보한 어둠과 같이
너의 그 밝은 모습 속 그림자가 되어 바라보는 나와 같이
다가서지 않기에 행복한 것을 알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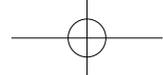
그것은
검은색의 사랑의 방식



어서 와. 이런 소개는 처음이지?

하늘고 사용 설명서
테마로 보는 장소

안녕? 난 인천하늘고등학교라고 해. 너희도 내가 익숙하겠지? 고등학교 3년을 나와 함께 보내니 말이야. 나는 아직도 너희가 중학생 때 선망의 눈길로 나를 쳐다보던 그때가 생생한데, 너희는 '기숙사-식당-교실-면학실-기숙사'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그런지 내게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너희가 가끔 SNS에 내 모습을 자랑할 때나, 고입 시즌에 꼬꼬마 중학생들 앞에서 으쓱으쓱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나를 잊지 않은 것 같아 고맙기도 해. 나에게 무감각해진 너희를 위해 지금부터는 색다른 나를 보여주도록 할게!



Theme 1. 하늘이 잘 보이는 곳

알다시피 나는 통유리가 많다는 특징이 있어. 건축 단계에서부터 3년을 여기서 사는 너희가 자연채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그러다보니 너희는 하늘의 절경을 자주 만날 수 있지. 너희가 일과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교실에도 발코니가 있어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는 달리 너희는 하늘을 보기가 쉬울 거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하늘을 보는 즐거움'을 위해 내가 추천하는 곳은 바로 5층 면학실 가까이 있는 테라스야. 작은 정원과 벤치도 있어 쉬이 필요한 너희들에게 더없이 좋은 공간이기도 해. 날씨만 좋다면 백운산과 함께 어우러진 내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을 걸? 면학실 옆이라서 쉬는 시간에 음식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면학실 내 갈취를 두려워하여 여기로 도망을 오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험을 망쳤다가 친구랑 싸워 울적할 때, 직접 선곡한 음악을 듣고 탁 트인 이곳에 와 쉬었다 가 봐. 한결 마음이 좋아질 테니까!



Theme 2. 수다 떨기 좋은 곳

2층 본교무실 옆 계단은 많은 학생들이 지지배배 수다를 떨거나 운동장의 축구경기를 구경하기에 좋은 장소야. 운동장으로 가거나 외출을 할 때 여길 통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지. 날씨가 좋을 때면, 계단에 걸터앉아 사랑하는 그or그녀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도 느끼게 될 거야.(헉. 내가 무슨 소릴...) 자습에 지친 1,2 면학실 친구들이 뛰쳐나오기 좋은 위치에 있어서 쉬는 시간만 되면 여기저기 퍼져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여.

나를 이렇게 잘 활용해주는 건 정말 좋은데, 여기는 바닥이 많이 쿵쾅거리고 또 바로 옆에 교무실이니까 유의하도록 해. 계단 옆의 좁은 틈에는 교장실로 가는 유리문도 있으니 더 조심해야겠지?



Theme 3.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곳

A동과 B동의 계단은 너희가 조금만 조심해줬으면 하는 공간으로 꼽아봤어. 너희가 위험할까봐 1층에서 5층까지 긴 줄을 연결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래로 내려다 본 1층의 바닥은 많이 싸늘하고 위험해 보이잖아. 줄 사이로 물건을 주고받다가는 물건이 1층까지 추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고, 가끔 이가 빠져있는 계단은 걸려 넘어지기 쉬우니 계단에서는 절대 뛰는 일이 없었으면 해. 급하게 다니다가 낮선 이와 충돌해 본 적 있지? 정말 민망하고 당황스러울 거야. 안전을 위해서도,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안전히 걸어 다니는 게 좋아.

또, 5층 면학실 옆에 인천외국어연수원이 보이는 테라스가 있는데, 가끔 잠을 쫓는다고 그 난간에 매달리는 친구들이 있어 걱정이 많이 돼. 입학 때부터 너희의 모습을 지켜본 내게 언제까지나 웃는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유의해서 꼭 조심해줘~



Theme 4. 쾌변을 부르는 곳

나의 모습을 구석구석 잘 아는 친구들의 제보에 의하면 체육관에서 동아리실로 연결되는 좁은 길에 위치한 화장실이 쾌변을 부르는 공간이라고 해. 물론 너희에게는 기숙사 화장실이 최고의 공간이겠지만, 일과의 대부분을 교과동에서 지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배가 살살 아파올 때가 있잖아.

바로 그때! 친구의 비웃음 소리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없이 오직 세상에 너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요한 이곳을 찾아와 봐.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블루칩이란다. 면학실과 교실에서는 다소 멀지만 숲속의 환경 같이 아늑해서 한번 이곳을 알게 되면 엉덩이를 부여잡고라도 오게 될 거야.



자, 지금까지 너희가 익숙한 듯 낯설게 여기는 나에 대해 소개해봤어. 나와 함께 매일을 생활하기 위해 입학 전 고군분투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앞으로 조금만 더 나에게 애정을 가져주길 바랄게.

하늘고 사용 설명서 - 시상식으로 보는 교복

어서 와. 이런 소개는 처음이지?



교복은 우리를 품고 산다. 아침운동을 나갈 때 기름진 머리를 감춰주는 것이 그들이요, 운동 후 과감히 체액을 머금어 주는 것도 그들이야. 낮 시간 내내 우리와 밀착해 있고, 밤늦게 우리가 잠을 잘 땀 옷장에서 내일의 하루를 준비한다. 교복은 또 다른 우리이다. 교복에 대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우리가 교복과 붙어있는 시간은 더욱 많아졌지만 교복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은 적은 듯하다.

기숙사에 들어서자마자 겨울이면 무거운 교복을 침대에 던져 버리고, 여름이면 땀에 젖어 누레진 옷을 확확 내팽개치지 않았던가. 영종도의 냉대기후에서도 우릴 생존하게 해주었고, 유난히 습한 여름에도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낸 옷들인데 그동안 너무 천대했던 것은 아닌가. 여기서 진행될 교복 시상식은 우릴 위해 살신성인 하느라 지친 그들에게 보내는 오마주이다.

{ 참가자 }

하복 칼라 (와이셔츠, 블라우스의 깃 등) 티



평점 편안함 ★☆☆☆☆
활동성 ★★★★★
심미성 ★☆☆☆☆

특징 자연친화적 색깔
나무 같다
끼슬끼슬한 촉감

동복 칼라 (와이셔츠, 블라우스의 깃 등) 티



평점 편안함 ★☆☆☆☆
활동성 ★★★★★
심미성 ★☆☆☆☆

특징 몇 번 안 입어봄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 있음
끼슬끼슬한 촉감

바람막이



평점 편안함 ★★★★★☆
활동성 ★★★★★☆
심미성 ★★★★★☆

특징 은근 방수 잘 됨
그물 처리된 안감
히늘고 필수템

체육복 반바지



평점 편안함 ★★★★★☆
활동성 ★★★★★☆
심미성 ★★★★★☆

특징 날개 같은 가벼움
사시사철 애용 가능
앉았다 일어날 때 땀 주의

기모후드



평점 편안함 ★★★★★☆
활동성 ★★★★★☆
심미성 ★★★★★☆

특징 모자 끈 물어뜯는 사람 많음
자꾸 늘어남
부담 없이 즐기!

패딩



평점 편안함 ★★★★★☆
활동성 ★★★★★☆
심미성 ★★★★★☆

특징 털 빠짐
겨울엔 몸과 떨어지지 않음
집에서도 가끔 입을. 방어력 상승

춘추복 교복 정복



평점 편안함 ★★★★★☆
 활동성 ★★★★★☆
 심미성 ★★★★★☆

특징 땀 배출 0%
 빨래하면 조끼가 매우 작아짐
 남자는 소매를 걷는 게 포인트
 넥타이, 리본 어디 있지?

하복 교복 정복



평점 편안함 ★★★★★☆
 활동성 ★★★★★☆
 심미성 ★★★★★☆

특징 까슬까슬한 바지의 촉감
 바지에 땀 찹
 셔츠에 국물 묻으면 잔뜩 티 남
 넥타이 없어서 좋음

슬리퍼(Aro)



평점 편안함 ★★★★★☆
 활동성 ★★★★★☆
 심미성 ★★★★★☆

특징 지압의 과학
 잘 안 벗겨짐
 키 작은 너에게 자신감
 탐나는 파란색. 너 이거 Aro?



다큐멘터리 시청 <일상>

🕒 아침 6시: 사감 선생님의 낭랑한 목소리에 일어나 밤새도록 베개에 비벼 딱진 머리를 바람막이 모자로 감추고 운동을 나간다.(겨울철에 이 바람막이를 대신 해 주는 건 패딩!) 한 가지 확실한 건 다른 하늘인의 옷차림도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이다. 눈도 잘 안 떠지지만 어찌랴. 그저 똑같이 입을 앞서사람을 보며 강당 혹은 운동장으로 향한다.

🕒 7시 20분경: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의 지도를 무시히 통과해야 학교로 진입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복장은 가차 없이 별점이다. 흰 티+바람막이 혹은 카디건/생활복과 교복의 요상한 조합/ 체육복이 포함된 의상 전부/ 슬리퍼/ 야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풀어 헤친 와이셔츠/ 전체 조회 있는 날 재킷 실종 등.

1교시~9교시: 아침에 입고 온 옷을 죽 입고 생활해야 하는 시간대. 고로 아무 옷(안 땀 옷, 땀에 젖은 옷)이나 주위 입고 오면 이 시간이 고통스럽다.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친구들도 있는데, 복도를 배회하다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여름철 교복 정복 착용 때는 남학생들 검정색 교복바지가 까슬까슬할 수도, 여학생들 블라우스가 팔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조금만 참아보자.

저녁시간 이후: 체육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나 반 대항 축구로 몸을 불사른 친구들은 누렇게 빛바랜 옷들을 옷장에 맡기고 환복한다. 최대한 자습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묘미! 그렇게 면학실로 돌아오면 동일한 의상을 착용한 친구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겨울철 사골상

후드티+패딩점퍼+기모바지



영종도의 겨울은 뻗속까지 에일 듯 매우 춥다. 그런 날씨엔 위와 같은 복장이 제격이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애용하고 있다. 하늘고등학교의 얇은 바지들은 두툼한 기모바지의 위엄에 맥을 추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모바지는 옵션 상품임에도 거의 필수품처럼 되어 버렸다. 겨울철 옷이라 며칠 동안 내리 입어도 냄새 걱정할 필요 없고, 우중충한 색깔 덕에 때가 탈 위험도 적다. 600명의 하늘고 쌍둥이로 거듭날 가능성만 없다면 아주 만족도가 높은 의상이다.

여름철 사골상

긴팔+체육복 반바지+흰 티



긴팔 체육복은 이 조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여중간한 날씨라거나 냉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조합을 추천한다. 긴팔 체육복 대신 바람막이는 조금 더울 수 있고, 체육복 반바지 대신 카고 바지는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흰 티 없는 체육복은 거칠거칠하고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여름철 사골 복장은 분리할 수 없다. 이 조합도 역시 같은 옷의 아바타들을 수도 없이 생산할 수 있으니 그들과 마주칠 준비가 된 당신, 당장 입고 나가시길!

자연친화상

하복 생활복 세트



정복 입기는 싫고, 그렇다고 체육복을 입고 등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찾게 되는 복장이 이것이다. 다 입고 보면 위는 초록, 아래는 황토색인 것이 저기 백운산의 나무들과 많이 닮았다. 쌍안경만 걸면 곤충 채집 떠나기 3분 전 복장이랄까. 아무튼 이 조합을 걸치고 등교하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복장의 친구들이 많음을 느낄 수 있다. 반팔에 반바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운... 이 느낌은 왜일까.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다음날이면 또 이 조합을 입고 있다...

바람 한 줄기도 용납하지 않겠삼

패딩+바람막이



분명 하늘색 바람막인데, 탕탕 불은 부피감을 선보이는 요상한 복장을 본 적이 있는가? n사의 등산복을 닮아있어 소위 '백운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두툼한 누빔에 바람까지 막아주는 이 옷과 함께라면 백운산 칼바람도 두렵지 않다. 극강의 보온력과 훌륭한 비주얼 덕에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으면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건 남학생에게만 주는 꿀팁!

기숙사 특집

똑. 똑. 똑.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기숙사 기획특집의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인물들과 무관함을 미리 밝힙니다)

316호 : 음식이 풍부한 방 1위

먹었던 음식은?

김○선, 김○현, 강○○, 허○○ : 탕수육, 햄버거, 비타민워터, 피자빵, 꼬깔콘, 콘칩, 커피, 콜라, 게토레이, 프링글스, 삼각김밥, 웰치스, 웨이퍼, 곡물한끼, 말린 과일(살구, 고구마, 크랜베리, 감), 우유, 고구마, 초콜릿, 빼빼로, 라면(치즈볶이, 열떡볶이면, 불닭, 왕뚜껍, 간짜짬), 치킨팝, 체리, 꿀, 바나나, 배, 아몬드, 호빵, 안성탕면 생라면 두 봉지 부셔서 먹음, 허니버터칩, 던킨, 몽셀, 촉촉한 초코칩, 꿀떡, 참봉어빵과자, 번치킨, 빵튀기, 스트로베리 도넛 두 개 등등 입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안 걸리는 팀이 있는지?

김○선 : 점호 하자마자 소등까지 다 먹어 치우면 됩니다. (으쓱으쓱)

김○현 : 에어스프레이!!!

강○○ : 벽에 페브리즈 뿌리는 게 포인트죠~ 쓰레기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김○현 : 귀가 되게 밝은 아이가 한 명 필요해요. 우리에겐 이어폰을 끼고도 발소리를 잘 듣는 강○○이 있어서 좋았죠.





401호 : 가장 재미있는 방, 가장 더러운 방, 가장 핫한 방 1위

‘가장 재미있는 방, 가장 더러운 방, 가장 핫한 방’ 세 개의 영역에서 3관왕을 하시고 특히 ‘가장 더러운 방’에서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1위를 하셨는데요?

김○○ : (정색) 아닙니다. 일단 저희 더럽지 않고요 소문이 이상한 겁니다.

서○○ : 도리어 제일 깨끗한 방이죠.

유○○ : 네, 맞아요. 서○○ 빼고는 다 잘 씻습니다.

서○○ : 아 솔직히 유○○이 제일 더럽다. 애 바디워시도 안 해요.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유○○ : 쌍화점... 아, 응칠 본 거!!

서○○ : 아, 미리 401호 D자리 쓰실 분께 미안하다는 말 전할게요. 저기서 다 먹었거든요.

라면 국물부터 시작해서 치킨 양념이랑 떡볶이 국물 (ㅋㅋ)(뿌듯하다)

유○○ : 저희 굴도 있는데 드실래요? 한 박스 사왔어요.

서○○ : 그래도 대박은 이거다. 김○○의 아침운동!

유○○ : 아, 맞아. 애 아침운동 때 남자애들 보러 가요!

김○○ : 아니, 그게요... (ㅠㅠ) 아침운동을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잘못 갔나봐요. 위치가 같아 자연스럽게 301호를 들어가니까...

서○○ : 남자 두 명은 옷 벗고 있었고, 다른 남자가 누워 있다가 고개 들더니 어? 이랬던데.

유○○ : 그래서 좋았대요!! (움흠흠)

김○○ : 아니에요 (ㅠㅠ) 아무것도 못 봤어요, 진짜. 렌즈도 안 끼고 있어서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이 방이 가장 핫한 방으로 뽑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몸매와 섹시한 목소리가 비결 아닐까요...

사실은 남자 이야기 갑이죠. 그러나 저희는 전부 다 Only one입니다. 모두가 학기 초부터 원빠순이로서 각자 한 남자만을 바라보는 순정파들이죠.



109호 : 학구열이 가장 높은 방 1위

4기 남학생 방 중 가장 학구열이 높은 방으로 뽑혔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송○○ : 초반에 안 친하고 서로 말도 못해서 할 게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봐요.

이○○ : 송○○은 공부하고 강○○은 애니 보고 조○○은 틈 방 애들하고 놀아서 저도 공부만 했어요.

조○○ : 저희 시험 기간 때도 공부 많이 했어요.

서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조○○ : 도움을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송○○ 공부 시간을 절반씩은 잡아먹거든요.

송○○ : 근데 강○○은 귀찮아해요.

이○○ : 저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또 시간 많이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요.

102호 : 음식이 풍부한 방 1위

먹을 게 가장 많은 방으로 뽑혔어요.

김○○ : 역시 뽑힐 줄 알았어요.

윤○○ : 저희 방에 잘 먹는 친구가 있거든요.



서로의 식습관이 어떠한가요?

윤○○ : 김○○은 조용히 와서 뺏어먹고, 과자는 드물게 사와요.

김○○ : 그대신 드물게 먹어요.

윤○○ : 저는 치킨 이후로 사은 적이 없어요. 대신에 생일날 10만 원어치 이상의 과자를 받았는데, 룸메들과 4일만에 다 먹었어요.

김○○ : ○○이는 많이 사오는데 자기가 다 먹어요.

윤○○ : 저번에 제 생일 때 케이크 사왔는데 자기가 3/4를 먹었어요.

김○○ : 1/2이야.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윤○○ : 다음 달에 내가 치킨 사올게.

김○○ : 우리가 같은 방 된 거 개이득.

김○○ : 제발 걸리지만 말자.





116호 : 가장 재미있는 방, 가장 핫한 방 1위

가장 기억나는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이○○ : 일명 '추○○의 예언'이라고, 진짜 소름 돋는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저랑 오○○, 추○○이 함께 있다가 추○○이 "방 바꿀 때 우리 같은 방 되면 개쩔겠다."라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방을 바꾸고 116호에 들어왔는데 추○○이 침대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오○○이 앉아 있었고요. (ㅎㅎ) 그때가 지금도 많이 기억나네요.

오○○ : 저는 여름에 여치가 진짜 많을 때요. 방에 들어왔는데 방충망에 여치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치를 잡아 택배박스에 넣고 먹이로 풀도 넣고 오메가3도 넣어 키운 적이 있죠. 또, 여치로 방 애들을 놀리는 게 시들해져서 다른 방에도 장난을 치고 싶었고, 그래서 정○○의 방에 가서 신○○한테 "야, 여치다!!" 하고 여치를 던진 후 문을 닫았거든요. 비명소리 장난 아니었어요. (ㅋㅋㅋㅋ) 제가 유유히 방에 돌아와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뒤에서 누가 팬티를 잡아당겨 뭔가를 넣는 거예요. 저는 제 엉덩이에서 움직임을 느꼈고, 그게 여치라는 걸 깨닫자 정말 얼어버렸죠. 팬티에서 여치를 빼려고 하는데 추○○이 도와주기는커녕 화장실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겨우 걸어갔죠. 그때 느낌은 진짜...(ㅠㅠㅠㅠ) 화장실에서 팬티를 내려서 확인했는데 여치가 없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제 엉덩이 위에 붙어있었어요. (ㅠㅠㅠㅠ) 그 여치를 떼어내어 다른 여치들과 행복하게 키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집중탐구 여보세요, 더티가이 이○○ 氏?



가장 더러운 방을 뽑을 때, 1학년 남학생들은 '이○○'이라는 이름으로만 투표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개성이 강해서 뽑힌 것 같아요. 사실은 방이 더러운 게 아니라 제가 노는 것이 좀 거칠어서, 여러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지내거든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이 기록사도 집처럼 안락하게 느껴져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은 스스로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겠네요?

'더러움'의 기준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옷을 안 갈아입는 걸 더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면 털털하고, 검소하다고도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씻기도 매일 씻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 가방도 냅니다. 저 더럽지 않아요~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는 면학실을 빼놓을 수 없다. 학습을 향한 우리들의 열의뿐 아니라 툭툭 튀는 기발한 발상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갔다.

2학년이 쓰는 면학실에는 속칭 '타워팰리스'가 있다. 탁 트인 공간 뒤로 큰 유리창이 햇살을 가득 담고 있으며,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주어 면학실 자리를 교체하는 날이면 이 자리에 앉게 되기를 소망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한다.

면학실 벽에 줄지어 서있는 기타도 눈에 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기타 연주 소리는 공부에 지친 우리들을 위로해주는 듯하다.

또한 2학년 여자 면학실에는 화분이 많다. 창가 한편에 웅기종기 모여 벌을 쾅고 있는 화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





2학년 면학실 책상을 통해 그들의 취향을 확인해보자.

무소유를 실천하는 깨끗한 책상

마치 여백의미를 3차원에다가 구현한 느낌이랄까? 언제든지 바로 먼 곳으로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야말로 '깨끗한 책상'. 2학년 면학실에서 가끔씩 보이는 책상의 유형이다.



한 칸의 좁은 공간에서도 '나'를 표현하려는 책상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이나 자신의 목표, 존경하는 위인의 명언이나 책에서 읽은 좋은 글귀 등을 적어 내려간 점착 메모지가 면학실의 대세이다. 사진을 활용해서 꾸민 책상도 눈에 많이 띄는데,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거나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전부이다. 사진 속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 듯하다. 또한 잘 외워지지 않는 개념이나 영단어, 공식 등을 잘 보이는 곳에 써 붙여 한번이라도 더 보고 외우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책상도 많다.



기타

1 작은 면학실 책상은 나만의 또 다른 도서관

국영수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에, 진정한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상당수의 책상들도 눈에 보인다.

2 믿어지지 않겠지만 10대입니다

10대의 감성이 잘 나타나는 시와 글귀 등이 빼곡한 책상도 있다. 인상적인 한 책상은 시가 무려 일곱 개나 된다고!



3 내가 이 구역의 센스쟁이

유난히 센스 있는 친구들은 누가 보기에 '와~' 라는 환성이 나올 만큼 책상을 잘 꾸며놨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소품'을 활용했다는 것. 소품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활용한 책상도 눈에 띈다.



4 I'm always dreaming

자신의 진로, 진학을 늘 고민하며 꿈꾸는 흔적들이 보이는 책상도 있다. 매일매일의 소망이 마법의 문처럼 원하는 진로 앞에서 열리기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가끔 이렇게 큰 학교에서 '혼자'라고 느끼는가?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조차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더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에게겐 우리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의 격려를 들어보자.





2014년도 학생회장 김민성 학생 아버님의 편지

T0. 하늘고 학생들

안녕? 나는 공항신도시에 사는 김우진이야. 요즘 아이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운 점에 대한 위로, 응원 그리고 바라는 점을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여러분에게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

음, 사람의 행복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구조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행복은 자기의 개성과 노력에 의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 역시 온전히 자기 고유의 것일 수는 없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이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원하는 직업을 내 옆의 다른 사람도 원하거든. 좋은 대학과 안정된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꼭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기성세대가 좋은 대학과 안정된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너희들이 지금과 같은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진 않았을 거야. 너희들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사회구조의 모순과 부조리의 해결은 먼저 인생을 살아왔던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27~8년 전에 겪었던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별로 좋아지진 않았어. 오히려 대학진학률이 3~4배 이상 증가하면서 경쟁은 더 심화되었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못하는 상황은 나의 고등학교 시절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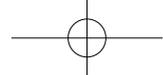
아. 이런 부조리한 모순을 기성세대가 방지해서 혹여 세월호 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언젠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거야. 대학진학뿐만 아니라 직업선택 역시 꼭 너희들의 바람대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세상의 좋은 대학과 안정된 직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결과가 너희들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너무 자책하진 말아. 꼭 너희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니까.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자신을 긍정하고, 너그럽게 자신을 용서하는 용기가 필요할거야.

연극 '맥베스'에서 세 마녀가 "좋은 것은 나쁜 것, 나쁜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무대에 등장해, 현재의 상황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고 나쁜 결과 안에도 긍정적인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무언가 얻기 위해선 반드시 손해를 보기 마련이거든. 너희들이 노력하는 시간에 노는 즐거움과 기쁨을 잃게 되듯이... 너희들이 좌절의 쓴 맛을 보게 되더라도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얻는 교훈도 적지는 않을 거야. 당장 겸손이라는 큰 열매도 얻게 되고 loser를 이해하는 배려심도 갖추게 되겠지. 실패의 쓴 맛을 본 사람만이 성숙한 인간이 되리라 확신해.

남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건강하고 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고 응원한다!

FROM. 김우진



이영종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TO. 하늘고 학생들

‘엄마,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도 홀로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바라는 것은 딱 이거 한가지란다. 당연히 우리 하늘고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우리는 왜 공부하는 걸까?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 인류 평화를 위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첫 번째 이유가 아닐 거야. 그럼? 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이것 역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 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자신의 직업이 된 사람, 그 직업을 통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경제적으로 부족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신이 삶의 주인인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옳고 그름을 따져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과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기에 구차해지지 않을 만큼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거야. 물론 사회, 경제적 조건을 초월하여 신념을 지키는 고고한 인물들도 없지 않으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일 역시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통과하게 하고, 실력을 요구한다. 결국 대부분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와 같은 논리적 과정을 거쳐 내려진 가장 보편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당연한 결론으로 귀결될 이야기를 왜 이리 복잡하게 하시는 건가요?’ 하고 따져 물을 사람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 이 대목에서 역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해.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가?’ 당연히 그렇지 않단다. 왜 그럴까? 그것은 위에서 우리가 찬찬히 따져 온 논리 과정의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이야. 즉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생관이 확립되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는 과정이 아니라 선망하는 직업을 차지하기 위해 능력을 키우는 일에만 몰입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적성이나 신념에 대한 철학적 탐색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그보다 앞서 분명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 ‘왜 공부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도 단순히 ‘무엇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가 되어야 해. 직업만을 전제로 한 도구적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소모적이거든. 하지만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공부는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므로 그 지식의 영향력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미치게 되지. 20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이렇게 말했어.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다.’

The good life is one inspired by love and guided by knowledge.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주는 빛과 같은 지식을 만나는 것이라. 그 지식은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스스로의 삶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줄 거야. 그것은 학과 공부 뿐 아니라 독서,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홀로 하는 깊은 사색이나 여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뻑뻑한 우리 학교의 생활에서 입시 준비 이외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뉴욕치 않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특히 독서를 강력히 권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적 지식은 학과 공부를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줄 신념 체계로서의 지식은 폭넓은 독서를 통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우선 현재의 나와 우리를 알게 해 주는 책임을 권하고 싶어.

1. 칼 세이건 <코스모스>

2. 조정래 <아리랑 12권> <태백산맥 10권> <한강 10권>

<코스모스>는 우주의 형성과 태양, 행성 등에 대해 소개한 책이야. 과학을 주제로 한 듯 하지만 그 속에는 우주를 탐구하는 인간 세계의 지식의 발전 과정이 한편의 철학사를 펼치듯이 전개돼. 무한한 우주 속에 있는 태양계의 작은 행성 지구, 그 한 모퉁이에서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명저이지.

조정래의 소설은 각각 일제시대와 해방 전후 그리고 5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그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사책 못지않은 사실성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그려내. 이 소설 총 32권을 읽어낸다면 지금 우리 한민족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역사는 과거를 말해주지만 우리 그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



T0. 다원

사랑하는 다원아.

하늘고 입학하고 첫 주를 보낸 뒤 '학교가 너무 너무 재밌다'라며 함박웃음을 짓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행평가... 등으로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시험 때문에 마음 편치 않는 날들이 많았을 텐데도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엄마 아빠의 엔돌핀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 공부를 좀 못해도 좋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지 못해도 좋다. 아빠는 우리 다원이가 이 세상을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에 주눅 들지 않고 열정을 품은 채 꿈을 향해 날개 짓을 멈추지 않는 너의 모습이 참 대견스럽다. 무엇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너의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기 바란다. 그래서 너의 삶이 너 자신 뿐 아니라 너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고맙다.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살아 주어서.

FROM. 이영중



몸은 멀리 있어도, 우린 언제나 인천하늘고 바라기!

2014년 2월, 인천하늘고등학교엔 처음으로 '졸업생'이 생겼다. 이들은 학교가 설립되던 해에 함께 입학하고 또 처음으로 졸업을 한 하늘고등학교의 1기 선배들이다. 3년 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한 선배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또 모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윤상아



김현지



박견주



문희상



김병찬



이성호



서주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윤상아 안녕하세요. 1기 졸업생 윤상아입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에 재학 중이에요.

김현지 저는 김현지라고 해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박견주 저는 박견주고요, 중앙대 경영학부에 재학 중이고... 아, 하늘고등학교 CIPiE 창립 멤버였고, 학교의 여러 행사에서 루미난트 공연에 참여한 적도 많네요.

문희상 저는 문희상이고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저도 하늘고 CIPiE 창립 멤버였고... 또, 학교 다닐 때 라크로스도 열심히 했어요.(ㅎㅎ)

김병찬 저는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에 재학 중인 김병찬이라고 합니다.

이성호 전 이성호라고 해요. 연세대학교 교육학부에 다니고 있어요.

서주한 서주한이고요,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대학에서 이제 한 학기를 지내셨는데, 대학 생활은 어떤가요?

서주한 아침점호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만으로도 만족도는 커요.(ㅎㅎ) 시간표만 잘 짜면 아침 9시까지도 자다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성호 맞아요. 1교시가 없는 게 정말 중요해요. 2기 후배들아, 1교시를 신청하지 않는 게 중요하단다.

박견주 (ㅎㅎ) 학교에 있을 때는 아무리 늦잠 자고 나와도 5분이면 도착했는데, 통학을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3년을 여기서 생활하셨으니 학교가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어떨 때 가장 많이 생각나시나요?

윤상아 대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가장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침운동 할 때의 새벽 공기도, 등교하면서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때도 다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김병찬 전 학교 시설 보고 바로 그리웠어요.ㅋㅋ



박견주 맞아요, 대학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시설 진짜 좋은 거예요.(ㅋㅋ)

서주한 (ㅎㅎ) 하늘고 강당에 있는 전자교탁 같은 건요, 대학 안에서도 좀 신식 강의실이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엔 교실에 한 대씩 다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 쓰듯이 그렇게 쓰는데요, 대학 가면 꿈도 못 꾸죠.(ㅋㅋ)

김현지 저는 소소하게 하늘고의 일상, 기숙사에서의 추억이 제일 기억나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하늘고에서 끓여 먹던 맛이 안 나더라고요.(ㅎㅎ) 그럴 때 학교 생각이 많이 나죠.

의 이야기를 만들었죠. 저는 아무 장비도 없던 라크로스 초반에 팀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리더십의 관점에서 썼어요. 전공연구나 방과후 수업, 그 밖의 경험들은 진로로 연결했구요. 학교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잘 연결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같은 활동이라도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거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생각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서주한, 김병찬, 박견주 수시를 입학사정관으로 쓸 생각이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모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게 좋다고 봐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희상 저는 라크로스 덕을 많이 봤죠.(ㅎㅎ)

박견주 애는 진짜 라크로스가 반이에요.(ㅋㅋ)

문희상 원서 쓸 때,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어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으로 저만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윤상아 발표 전엔 걱정이 되면서도 막연한 기대도 있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합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바로 연락드렸어요.

김현지 저는 친구들이 없을 때 몰래 확인을 했어요. 합격 결과를 듣고 난 후, 친한 친구 몇 명한테 알려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소문을 내





서 우리 학년 전체가 다 같이 기뻐했어요. 제가 우리 학년에서 제일 먼저 합격을 했거든요. 엄청 기분 좋았죠.(ㅎㅎ)

서주한 저는 조희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대기자가 많으니까 몇 초 남았다고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ㅎㅎ) '합격'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나서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온 몸에 긴장이 다 풀리더라고요.

김병찬 성대는 합격하면 노래가 나와요. 'We are the champion~' 스피커 최대로 틀어놓고 들었어요.(ㅎㅎ)

문화상 전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불합격하면 상심할까봐 먼저 컴퓨터를 켜고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희상아, 합격했다' 하시며 울먹거리시는데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날 뻔 했어요.

수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의 수능 응원 플래시몹과 당일 응원을 보실 땐 어땠어요?

윤상아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못 잊어요. 되게 짠했고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아마 다들 겪게 되면 알 거예요.(ㅎㅎ)

서주한 사설 모의고사 보고 기분이 나빴었는데, 응원 보고 기분이 풀렸으니까요.(ㅎㅎ)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능 당일엔, 이렇게 응원해주는데 잘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부담은 조금 있었어요.



대입에 대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병찬 수시 쓸 때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요. 입시도 막바지로 달려가니 웬지 준비도 다 된 것 같아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마음을 다잡으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김현지 저는 내신과 수능을 둘 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하고 싶어요. 하나를 포기하면서 다른 쪽에 치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 동기들도 보면 잘하는 애들은 둘 다 잘하지, 둘 중에 하나만 잘하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내신공부의 내용이 수능 공부와 다르지 않으니 둘 다 모두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박견주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다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1에 1체까지지요.

문화상 지금은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알아서 찾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부탁 드려요!

서주한 저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말 하고 싶어요. 동아리도 열심히 안 하고, 학교 활동도 안 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이 기록으로 과연 합격할까 두근두근하거든요. 그리고 면학실에서 자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면학실에서 엄청 잤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윤상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매우 빨리 갈 거예요. 여러 활동이나 모든 생활이 다 좋은 추억이 될 테니 불평불만 갖지 말고 다 좋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인천하늘고, 너를 바라보는 내 사랑의 온도는 100℃!

우리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를 위해 애쓰시고 도우시는 분들이 있다. 기사사의 아버지 박영권 관장님, 하늘고 클래스는 이 정도지! 늘 자랑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가꿔주시는 여사님들, 가장 기대되는 순간- 한 끼의 행복을 책임져주시는 최명근 조리장님, 학교 설립 초부터 하늘고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강희정 행정실장님, 그리고 우리가 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김성욱 경비지도사님.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이 분들을 하늘나래가 만나 보았다.

박영권 관장님

관장님께서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20년 정도 직업 군인으로 일했었고, 가르치는 것을 동경했기 때문에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나와 10년 정도는 수학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에 계실 때나 선생님이 되셨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군대에 있을 때 기억에 남는 건 북한 여군들을 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기억이에요.(ㅎㅎ) 그때 북한과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북한의 여군들은 여름에



도 부츠와 벨트를 갖출 정도로 복장이 매우 멋졌죠. 위장 전술 때문에 외모가 훌륭한 여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쌍안경으로 여군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제가 수학교사로 일했을 때, 제자 중에 수학을 20점 정도 받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저를 유난히 잘 따르던 그 학생이 수학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합격했고 지금은 강원도에서 수학교

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죠.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인천하늘고 학생들은 명문이지만 아직 생활관을 명문화하려면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활관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이자 꿈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자치적이고 활동적인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전통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사님들

여사님들의 아지트라든지 쉬실 수 있는 안식의 공간은 어디인가요?

원래는 체육관 가는 쪽에 있는 여자 휴게실을 썼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지금 그곳은 급식실에서 쓰고 우리들은 대신 체육관 안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합니다. 여름엔 덥다보니 생활관과 급식실 사이에 위치한 벤치에서 쉬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세요!



‘청소 노하우’라기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면 국물을 버리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라면을 먹고 국물을 버기에 버릴 때 국물을 버리고 난 후에 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물을 내림과 동시에 국물을 버리면 번기 안쪽에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어요. 번기에 라면에서 나오는 기름 찌꺼기가 굳

어 번기를 교체한 적도 있으니 참고해줬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큰 걸 바라는 건 없고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더 기른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의 자세도 익히면 나중에 사회 생활할 때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김성욱 경비지도사님

학생들로 인해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으세요?

학생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올 때나 평소에 음료수나 빵을 챙겨줄 때 기분이 좋았죠. 나를 생각해준다는 마음이 드니까요. 그리고 지난 번 스페셜데이 때도 식당에서 석식 제공을 안 하자 학생들이 김밥과 짜장면, 통닭 등을 들고 와서줘서 매우 고마웠어요.



학교를 순찰하시는 경로도 따로 있으세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학교를 돌아요. 처음에는 외곽 담을 타고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는 교과동 A-B동, 본관동 순으로 순찰합니다. 실내는 불 켜진 곳이나 컴퓨터, 난방 등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워낙 착해서 대부분은 인사도 밝게 하는데, 아주 가끔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점만 고쳐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컴퓨터를 쓰고 난 후엔 꼭 끄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나 학생들 편입니다.

강희정 행정실장님

학생들에게 추천하시는 스페셜데이 메뉴는 무엇인가요?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알고 있나요? 개교 초에 1기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외부 음식이 그리워 몰래 주문해서 먹는 걸 행정실 선생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교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견을 받아 다른 학교에는 없는 ‘스페셜데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추천 메뉴는 뭐니 뭐니 해도 삼겹살이 최고인 것 같고요.(ㅎㅎ)

행정실과 관련된 재밌는 사연이 있나요?

에어컨을 중앙통제로 하다 보



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반은 임의 조작으로 패널티를 받아 너무나 더워진 교실을 피하기 위해 단체로 이동해서 수업을 한 일도 있더라고요. 임의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A/S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했죠. 반면에 특기교과실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어 전기세가 걱정된다고 직접 행정실에 찾아와

이야기 해주는 고마운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은 다같이 잘 지켜주고 있어서 절박도 많이 돼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좋지만 인성이 바른 학생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인성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니까요. 그리고 선배간 사이도 더욱 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인연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지막으로 인천하늘고 학생여러분! 무한 사랑합니다. 하트 뽕뽕

최명근 조리장님

하늘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획기적인 메뉴 발상은 어디서 나오시나요?

사실 단체급식의 조리 환경상 조리 가능한 메뉴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아워홈 자체의 메뉴를 활용하기도 하고, 참고자료 등을 통해 가능성을 찾기도 해요. 실험 조리도 하고요.

만들기 힘든 메뉴가 있나요?

새로 나온 메뉴들은 맛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



니다. 대량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맛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같이 더운 날엔 튀김류나 전류가 더워서 아주 곤혹스럽죠.

평소 입으시는 사복 스타일은 어떠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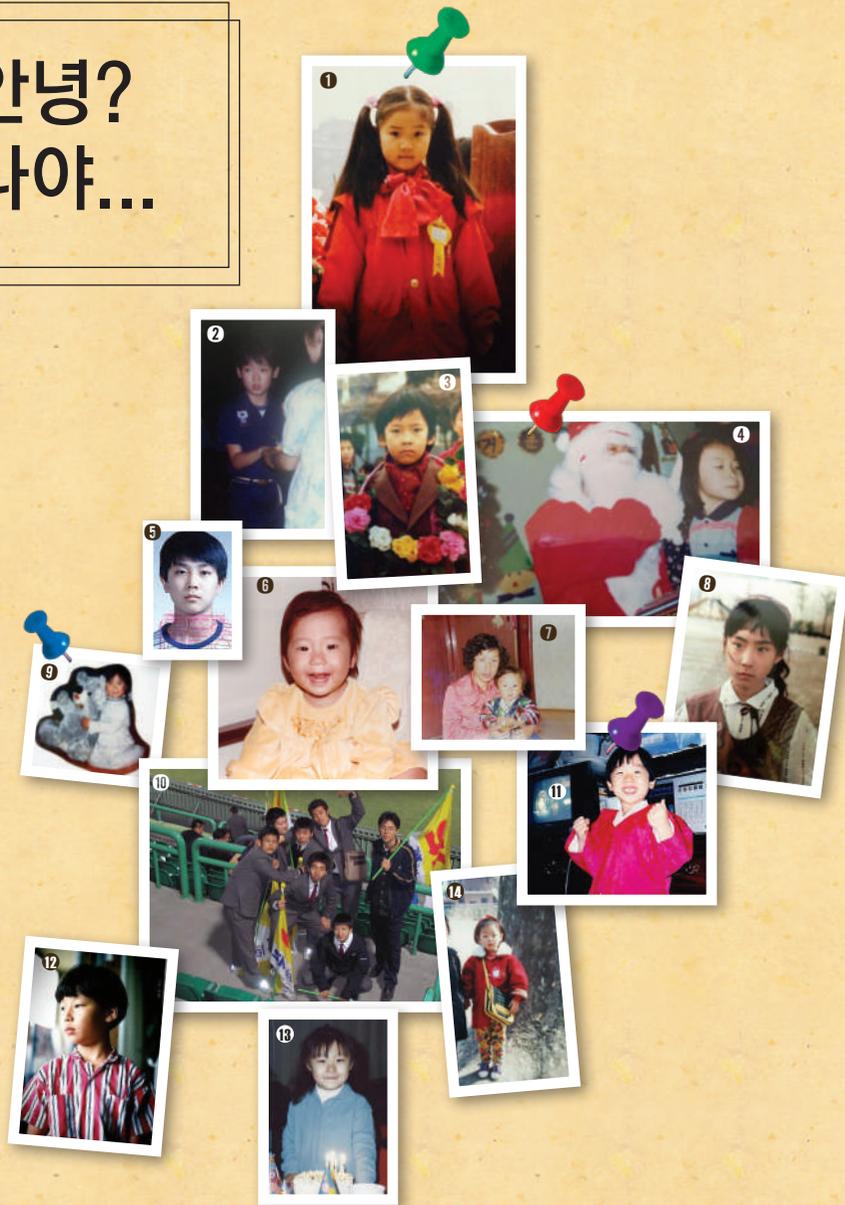
자동차로 출근하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 편한 복장으로? (ㅎㅎ)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이곳에서 매 끼니를 먹다보니 학생들이 봤을 땐 메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지겨울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할 테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급식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문제점이 있으면 편하게 와서 이야기해주세요!

: 쉬어가는 페이지

안녕?
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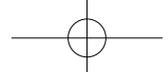


- | | |
|------------|-------------|
| 1. 황혜림 선생님 | 8. 나유영 선생님 |
| 2. 이지현 선생님 | 9. 김지은 선생님 |
| 3. 정주원 선생님 | 10. 최상규 선생님 |
| 4. 김민연 선생님 | 11. 김승호 선생님 |
| 5. 김경훈 선생님 | 12. 이중언 선생님 |
| 6. 김민희 선생님 | 13. 하정선 선생님 |
| 7. 김창재 선생님 | 14. 송남영 선생님 |

훈훈하구나

훈훈하다 뜻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는 따스함이 있다.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억지로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씨, 성숙한 생각,
 그리고 여유가 동반된 위트이다.

하늘고, 참 훈훈하구나!



세대가 바뀌면서 하늘고등학교는 더욱 발전한다



하늘고등학교가 개교한 후 제가 2기로 입학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졸업을 하게 되었네요. 그와 동시에 3기 학생들이 3학년의 자리를, 4기 학생들이 2학년의 자리를, 5기 학생들이 뜻 뜻한 1학년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기수가 계속 바뀌어가며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 또한 발전할 것입니다.

제가 2대 학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학생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다섯 개 부서의 부장과 차장의 역할 분담을 비롯한 학생회의 활성화, 학술발표 위주의 학술제에서 학술적 요소와 축제의 분위기가 공존하는 학술제의 변화, 학교가 주축이 되었던 스페셜 데이에 학생들의 의견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3기 학생들에서 부터 시작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 '힐링 콘서트' 개최, 1기 선배들의 수능 지원을 위한 플래시몹과 수능 응원 문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후대의 학생회와 학생들을 위해 신중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2대 학생회를 마무리하면서 보니 학생회가 했던 활동에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배들이 이러한 개선점을 채워나가고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든든함과 흐뭇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의 생각은 현실이 되어, 3대 학생회와 3,4기 학생들은 인천하늘고등학교의 문화를 훌륭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회의 역할 분담뿐 아니라, 주기적인 학생회 모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학생회를 학교와 학생의 발전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스페셜 데이를 위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요청하여 스페셜 데이를 더욱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수능 응원 문화를 이어받아 선배를 위한 후배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확인하게도 해주었습니다. 오는 학술제 역시 좀 더 신선하고, 유익한 즐거움이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학생들의 문화, 외롭고 지치는 학교생활의 기쁨을 주는 문화, 이전까지는 없었던 혁신적인 문화들이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학교의 상징인 주작처럼, 학업은 물론 문화에 있어서도 최고를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꿈과 열정을 키워주는 학교의 모습이, 그리고 함께 생활하며 높은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학교의 모습이 이렇게 교지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기 선배님들에 이어 저희 2기도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천하늘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매 순간 노력할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운 명문사학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하늘고등학교 파이팅!

제2대 학생회장 조성철

INTERVIEW

2014년 6월, 하늘인들의 행복한 하늘고 라이프를 위해 동분서주할 3대 학생회가 탄생했다. 높이 날아오를 인천하늘고를 상상하며 3대 학생회장단-학생회장 김민성(2학년), 부회장 김도현(2학년), 정나리(1학년)를 만나보았다. 학생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반년이 지나기까지 느꼈던 그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다.

학생회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김민성 2대 학생회장인 조성철 형님의 여러 학교 운영 모습을 보며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김도현 중학교 때부터 학생회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개인이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깐요. 학생회 활동을 하면 정말 무언가에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나리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이고 또 이후에도 저의 모교인 거잖아요. 미래에도 우리 하늘고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조금이라도 더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학생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민성 브라질 월드컵 중 알제리전을 다 같이 체육관에서 응원했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처음엔 학교에서 러시아전만 보자고 하셨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다른 경기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지도부장님의 협조를 얻어 고생 끝에 경기를 보게 되었죠. 새벽에 친구들을 깨우러 다니던 일, 다 같이 응원하며 재미있게 봤던 일 등이 다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김도현 저는 당연하거나 사소한 일들도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친구들이 학교에 건의할 내용을 말해주면 친구들을 대신하여 직접 선생님들께 말씀드려 조금의 변화라도 이끌어냈거든요. 회장단으로서 학교를 위해 뭔가 이루어 내면 친구들도 만족스러워 해서 그런 점이 보람찼어요.

정나리 선배님들을 도와 생활하던 중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추진력 있게 일을 해나간다는 평가를 전해 들었어요. 처음 듣는 칭찬이었는데,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힘이 났어요.



학생회 일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원동력이라도 있나요?

김민성 저는 사실 카리스마가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처음엔 걱정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성격이죠. 친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으니깐요. '소통과 협력'이 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김도현 학생회에 속하기 전 평범한 학생으로 생활할 때는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잘 수용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논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의견들도 있었겠지만요.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조직이잖아요. 학생회를 통해 학생 개인의 합리적인 의견들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면 사명감이 생겨요. 이게 원동력이 아닐까요?

정나리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것에 비해 실현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 여건이나 바쁜 학교 일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항상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부회장이란 직책도 일종의 리더라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끝까지 주어진 일들을 추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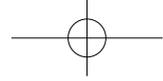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김민성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소통의 창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끊임없이 협동하며 변화하는 하늘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도현 이제는 하늘고만의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학교마다 특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인성이나 예절 등도 좋을 것 같아요.

정나리 전통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도현 선배의 말에 좀 덧붙이자면,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내·외부인이나 선후배 간의 예절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후배 간의 예절 문화는 친밀감과 동질감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깐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전 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둥이 특 집



형 이호준

동생 이영준 군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음... 잘 생각해보지 않아서 대답하기까지 오래 걸리네요(ㅋㅋ) 일단은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부탁하시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들어요. 또 운동도 저보다 잘하고 양보도 잘하는데 그런 점들이 영준이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특히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던 동기는 없어요.(ㅎㅎ) 중학교 3학년 때 진학할 고등학교를 찾다가 인천하늘고등학교가 우리 가족 눈에 들어왔고, 저나 영준이나 할 것 없이 둘 다 입학할 희망했을 정도로 매력적인 학교였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고 입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였기 때문에 발생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건 매년 입학 때나 진급할 때마다 항상 있었던 일인데요.(ㅎㅎ) 막 학교에 입학했을 때나 각각 다른 반으로 배정받고 처음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들이 제가 쌍둥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를 영준이로 착각하며 말을 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계기로 반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ㅎㅎ)

동생 이영준

쌍둥이라서 좋은 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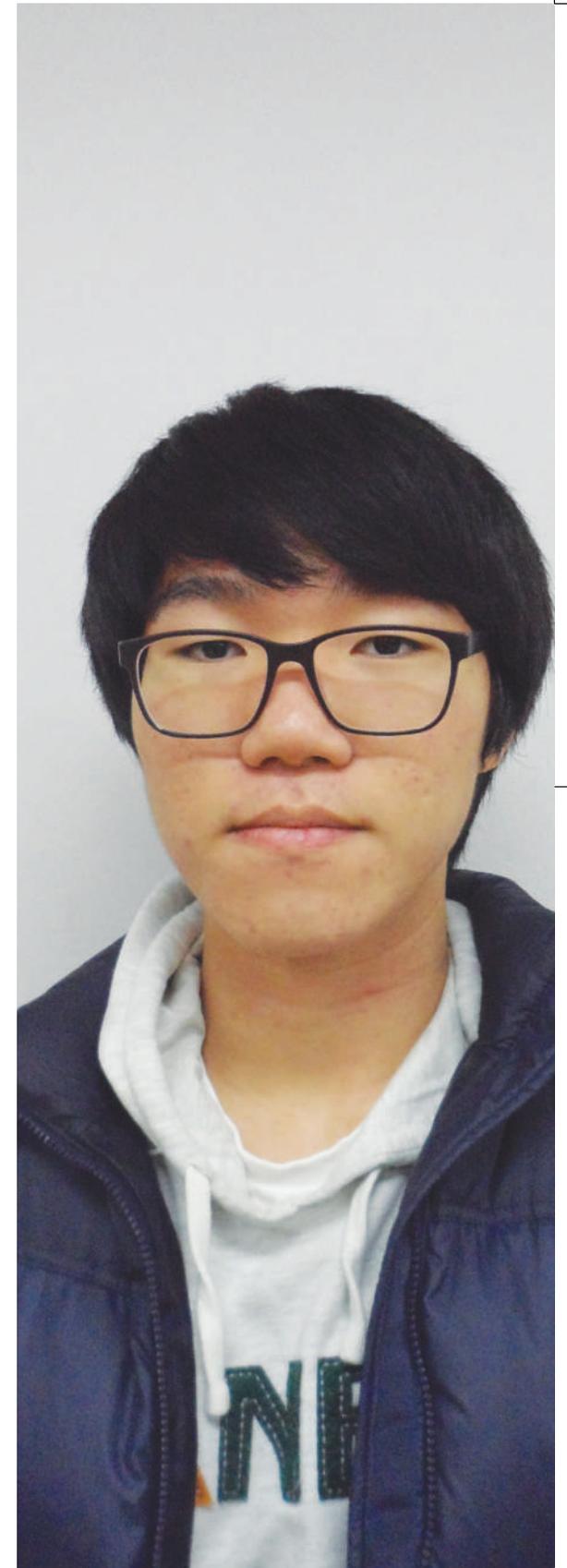
서로가 서로에게 큰 자극이 된다는 점이죠. 저는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호준이를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게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행했을 때 서로를 이기려고 많이 애썼던 기억이 나요.(ㅎㅎ) 그게 무엇이든 아무튼 서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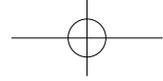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같은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특히 같은 학교에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적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에 비해 제 쌍둥이 형은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했을 만큼 성적이 좋았어요. 저랑 형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제 입장에서도 유리한 전형이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저는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전형으로, 그리고 큰 행운으로 하늘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발생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만우절 같은 때 항상 친구들이 반을 바꿔보라고 권해요.(ㅋㅋ) 선생님들께서도 복도에서 마주치실 때나 시험감독 그리고 수업시간까지도 많이 헛갈려하시죠. 서연희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실 때마다 제가 누군지 맞춰보시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점들을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쌍둥이 특 집

형 김건주

3년 동안 다닌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선 3년 동안 기숙사 학교에서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다. 힘든 시간들 보내느라 고생도 많았고, 학교 일과시간이 너무 바빠 붙어 있으면서도 함께 누리지 못했던 시간들... 이제는 같이 보내자. 언제나 응원한다!

김우주 군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주는 정말로 순진해요. 그래서 어른들께 귀여움도 많이 받죠. 그리고 집에 오면 집안일을 전담해서 모두 다할 정도로 착하고 성실하기도 해요. 정이 많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음... 단점은... 자기 것을 종종 놓치는 거? 물건에 주로 소홀하죠. 지갑, 핸드폰, 시계 등을 깜빡 잊고 두고 오거나 잃어버리는 적이 많아요. 심지어

는 어머니께서 수능 잘 보라고 사주신 시계도 수능 당일! 기숙사에 두고 버스에 타서 부랴부랴 다시 챙겨오기도 했죠.(ㅋㅋ) 안경도 수도 없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발생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1학년 때 호실 이동을 했다가 양태호 선생님께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께서 저를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우주를 저로 착각하시고 우주에게 별점을 주셨더라고요. (ㅋㅋ) 또 2학년 만우절 때, 우주랑 제가 반을 바꾼 적이 있어요. 제가 우주인 척 안경을 쓰고 수업을 들으니, 황혜림 선생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우주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기 전까지 못 알아채셨던 적도 있어요. (ㅋㅋ)



동생 김우주

10층쌍 특 집

3년 동안 다닌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건주야, 하늘고에 입학하고 3년의 생활을 하면서, 가족인 네가 함께 학교에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 우리가 자라는 동안 가치관이나 취향 등도 조금씩 달라지고 일과에 쫓겨 이야기 하는 횟수가 줄어서, 가끔 우리를 어색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더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지내자! 그동안 수고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도 정말 축하해! 앞으로도 만행으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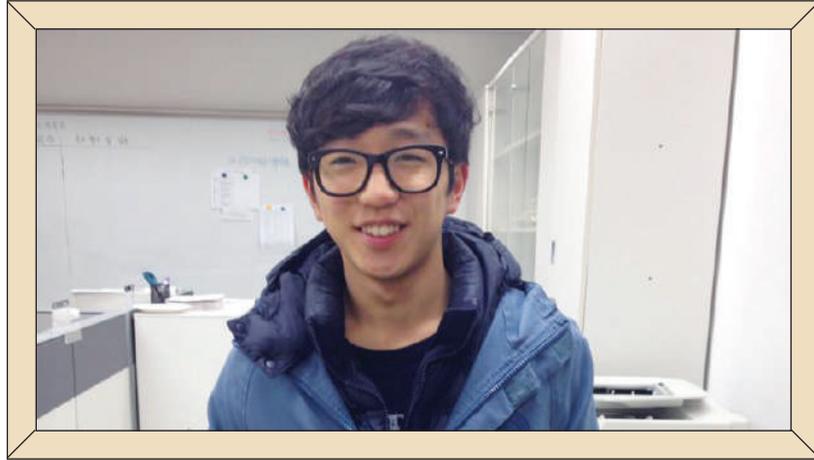
김건주 군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건주는 생각이 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점은... 가끔 시니컬하게 말하는 것과 못생긴 얼굴? (ㅋㅋㅋㅋ)

쌍둥이였기 때문에 발생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만우절에 건주랑 제가 교실을 바꿔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는 4월이 학기 초라서 선생님들께서는 모르셨는데 친구들이 웃어서 들켰었던 기억이 나요. 2학년 때는 이과 전체가 이동수업 중이었는데 건주랑 제가 서로를 아주 비슷하게 꾸며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선생님께서 전혀 눈치 채지 못하셨고 함께 수업을 듣는 여자애들도 몰랐던 적이 있었어요.(ㅋㅋ) 다른 에피소드들도 다 비슷하고요 아, 저를 건주로 아는 후배한테 인사를 받은 적도 많고 먹을 것도 자주 받았던 기억도 나네요.(ㅋㅋ) 솔직히 우리보다는 2학년 쌍둥이들이 더 닮았는데 말이죠. (ㅋㅋ)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는 기숙학교라는 특징이 있어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친구 방 베란다에 숨어있다가, 사감 선생님께서 베란다까지 찾으러 나오시길래 베란다 옆 난간으로 넘어가서 겨울에 맨발로 눈 덮인 난간에 숨어있던 적도 생각이 나네요.(ㅋㅋㅋ)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했지만 절없는 나이의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2013년 학술제의 코너였던 '하늘스타H'에서 친구들과 장기자랑을 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를 잊고 준비했거든요.(ㅋㅋㅋ) 그리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 모두 같은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감동을 받기도 했고요, 경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라크로스, 농촌봉사활동 등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많은 추억들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행복했던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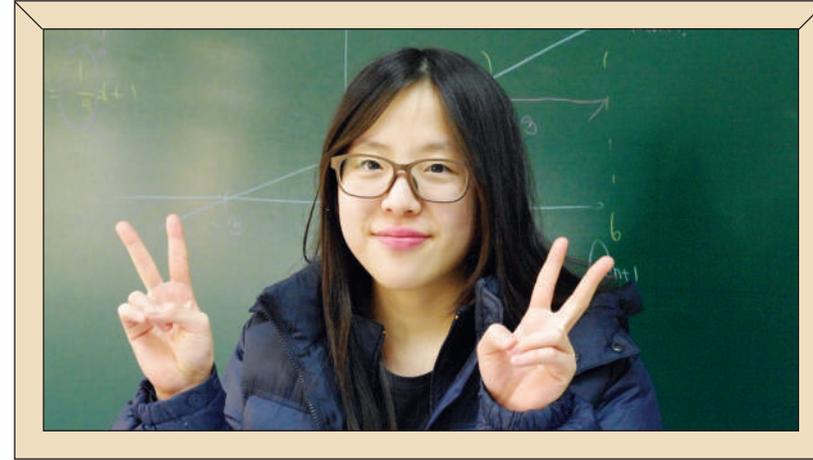
혹시 후회하시는 일 있으신가요?

(ㅋㅋㅋ) 학교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함께 나눌 여자친구가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쉽네요. 솔직히 제 얼굴이 어디서 빠지는 외모는 아닌데 말이예요. 면학실 자습 끝나고 기숙사에 남 녀가 함께

나란히 가는 거 거러 진짜 로망 아닙니까? (ㅋㅋㅋㅋ) 이걸 못 해본 게 한이 났히네요. 사실 제 가슴에 품었던 여자는 많았지만 제가 낮가림이 심해서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못다 이룬 꿈, 사회에 나가서 원대하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민경훈 파이팅!!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말처럼 야망을 가지고 공부든 무엇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고1, 고2 밖에 안됐는데 지레 "하아... 지금 성적이 이 정도인데 얼마나 오르겠어." 하는 생각 따위는 다 버리고 한 번 해보는 데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모습에서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ㅋㅋㅋㅋ) 그리고 고3 생활이 막바지에 오니까 느끼는 것이지만, 학교에서의 좋은 기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좋았던 순간도 추억으로 남게 되는데 후회 없는 일을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 후회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재밌고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만큼 서로가 오래 붙어있는 학교도 없으니까요.(ㅋㅋㅋ) 어쨌든 사랑하는 후배님들, 남은 기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인천하늘고 파이팅!!



인천하늘고등학교를 곧 떠나보내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1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이사하는 기분이에요. 아쉽다거나 섭섭하다는 말보다... 그냥 정든 걸 놓고 가는 그런 기분이라, 아마 어떤 이유에서든 또 다시 찾아올 거예요.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모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학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현재의 저를 만든 기반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하늘고등학교에 입학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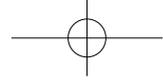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1학년 때의 체육대회요. 아니, 사실은 체육대회 자체보다는 뒤풀이가 더 기억에 남아요. 저녁 삼겹살 파티 후 불꽃놀이도 보고, 불꽃이 피어나는 막대 하나씩을 들고 놀기도 했어요. 불꽃이 다 꺼지고 나서는 운동장 전체에 노래를 크게 틀어 주셔서 전교생이 뒤엎겨 신나게 놀았어요. 1,2학년이 다 같이 모여(그때는 학교에 두 개 학년 밖에 없었을 때) 기차놀이도 했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고, 당시 유행하던 말춤을 추기도 했어요.(ㅎㅎ)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큰 노래 소리 때문에 이웃 학교에 폐를 끼칠 수 있다는 학교의 우려에 노래가 뚝 끊겼어요. 진짜 재미있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했는데 바로 끝나서 너무 아쉬웠어요.

밤에는 기숙사 사제동행이 있어, 기숙사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놀았어요. 예전엔 사제동행 때 선생님들께서 기숙사 방까지 오셨거든요. 애들도 선생님을 위해 간단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학년 구분 없이 2층 로비에 모두 둘러앉아서 노래도 하고, 랩도 하고 그러면서 다 같이 놀아서 기억에 많이 나요.

그럼 재밌었던 일은요?

한문경연대회요. 진짜 대회명은 '한문고전발표대회'였던 것 같은데 왜인지 모두 '한문경연대회'라고 부르고 있네요. 대회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그 날까지의 일주일이 정말 재밌었고, 준비과정이나 결과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러워서 대회가 끝난 후에 짧게 자축을 하기도 했죠. 지금까지도 그때의 이야기를 할 만큼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발표 자체도 독특하고 좋은 팀들이 많았지만, 팀명 자체로도 웃긴 팀들이 있었어요. 저도 '太太老父'라는 다른 팀 이름이 기억나네요.(ㅎㅎ) 한문경연대회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저는 2학년 때도 다시 한 번 참가해볼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회가 무산되어 정말 아쉬웠어요. 경연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다면 청중평가단으로도 참여해보고 싶을 만큼 저에게는 잊지 못할 대회였으니까요.



인천하늘고에서 보낸 편지

세월호 모금활동 최주희 인터뷰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는 4월 20일 오전 8시부터 3학년 선배들의 주도 아래 전교의 모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활동을 실시하였다. 중간고사를 앞둔 시점이었지만, 전국민적 슬픔에 동참하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은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마음을 표현한 모금활동이었다. 이상의 활동은 모금활동 직후부터 여러 매스컴에 보도되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세월호 모금 활동을 주도한 3학년 선배들 중 한 명인 최주희 선배를 만나보았다. 우리가 몰랐던, 선배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당시 모금 활동을 주도한 최주희 선배님 맞으시죠?

네, 3학년 최주희입니다. 하지만 이 모금은 저 혼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였어요. 그렇기에 '최주희가 모금활동을 주도했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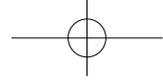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처음으로 '세월호 사건'을 접했을 때는 어떤 심경이었나요?

저 역시 비슷한 또래의 남동생이 있는 누나이며, 많은 후배들이 있는 3학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상황에 이입이 되었죠. 사고를 당한 친구들은 우리 또래니까요. 배가 침몰했다는 사실과 함께, 세월호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은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안타까움과 초조함 그리고 절박함, 애통함 등의 여러 감정들이 온몸에 꽂 차 있는 듯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럼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한 계기가 따로 있나요?

검색을 통해 본 여러 기사에는 구호물품에 관한 게시물도 있었어요. 그때 구호물품을 기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거창할 것 하나 없이 '우리도 하자'는 말과 함께 시작 되었어요. 기숙사 방에 휴지가 많이 남기도 하고, 또 그 정도는 모으기도 쉬우니까 그런 걸 기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죠. '하늘고'라는 단체가 아닌 개인의 입장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작은 생각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입장이 된 거죠.





어떤 모금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지도 궁금해요

석식 시간에 반 친구들의 의사를 물어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 반 친구들도 모금활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점차 인원이 많아져 기부활동의 범위는 3학년 전체가 되는 것 같았죠. 3학년 모금활동을 진행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느껴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각 반에 들어가 양해를 구하고 공지를 할 때, 북받치는 감정에 친구들 모두가 함께 평평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렇게 3학년 전체에 전달을 하고보니, 후배들에게까지도 범위를 넓혀보자는 생각이 들어 1,2학년 면학실에서 공지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 등굣길에 매점 앞에서 모금과 함께 기부물품도 받기로 했고, 저와 친구들은 모금액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액을 기부센터에 보내자는 의견, 유가족들께 직접 연락을 취해 보내자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모금한 돈을 정리해서 절실히 필요한 물품들을 사드리자.'고 결정이 났죠. 필요한 물품들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진도군청에 전화를 했고,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해서 그 물품들을 준비했어요.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모금한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진도까지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도 말씀해주세요.

모금 당일, ATM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후배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친구들의 모금행렬을 보면서 울컥하기도 했어요. 2학년 후배들은 작은 쪽지를 모아 쓴 편지들을 구호물품과 함께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끌어안고 와서 하나하나 풀어 놓기도 했죠. 구호물품 수합과 모금활동이 끝나고, 지구과학실에서의 모금액 확인과 물품 분류작업도 종료됐어요. 운송문제는 퀵서비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물품 구매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모금액으로 약 400만원을 모았는데, 가까운 마트는 규모도 작고 구비되어 있는 상품도 적어 그 돈을 한꺼번에

소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 측에 저희의 취지와 목적을 전달하고 그 쪽의 팀장님과 만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신 점원 분들께서 매장과 창고에 있는 재고 확인을 도와주셨고, 또 많은 물품을 계산해야 할 때도 줄 서 계시던 어른들께서 구호물품이라면 두 개의 계산대를 모두 다 써도 좋라며 흔쾌히 양보해주시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계산된 물품들을 박스에 분류해 넣어주시고 '인천하늘고등학교 일동'이라고 인쇄해 붙여주셨던 직원 분들도 계셨어요. 밖에서 기다려주시던 택배 기사님께서는 짐 나르는 일을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진도체육관 앞에서 택배 인증 사진도 찍어 보내주시고, 구호물품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쓰겠다는 진도 담당팀의 확인까지 전달해주셔서 감사한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렇게 이들 동안 기적 같은 일들이 이뤄졌어요.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는데, 이는 많은 친구들과 도움의 손길들이 협력적으로 이루어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만에 모금활동을 끝낸 점도 대단하고 놀라워요. 주희 선배는 활동 후에 느낀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작은 생각도 큰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단순하게 기사를 보고 '우리도 해보자'는 말을 했을 뿐인데 모두가 힘을 모아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또 '생각은 실천으로 옮겨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는 순간에는 망설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은 반드시 실천으로 바뀌어야 해요. 머리로 생각만 했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값진 일들을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깨달음은 세월호 사건과 함께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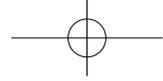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선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모금활동 후에, 기부활동에 일조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는 내용이나 자신의 선배가 되어주어서 고맙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후배들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 제게 과분한 내용이었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격려와 응원, 따뜻한 진심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기억될 유가족들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잊어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탓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고하게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잊지 말고,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금활동 후에 저와 학교는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기에 대표로 인터뷰를 하는 건 '모두의 일'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것 같기 때문이었고, 또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터뷰는 저의 첫 번째 인터뷰네요. 우리 '인천하늘고'라서 편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말한 것이니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생했던 1,2,3학년 친구들아 정말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시작했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 또 저희의 모금활동을 도와주신 마트 직원 분들, 배려해주셨던 많은 분들, 택배 기사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선배들이 들려주는 대입 이야기 - 1

내일의 꿈이 오늘을 지배합니다

수험생활 중 본인을 가장 괴롭혔던 것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가고 싶었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입학정원의 100%를 수시전형으로만 모집하지만, 정기적으로 치르는 모의고사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공부할 것이 산더미처럼 느껴졌던 것이 수험생활 중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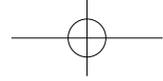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그러나 계속된 공부는 내신공부와 모의고사 공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늘고등학교 국어 빈출 유형인 '보기' 활용 유형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지문을 만나도 보기와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해석하면 된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영어는 사실 2학년 겨울방학까지도 내신과 모의고사의 공부법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ebs 연계지문을 배우면서부터는 지난 2년간의 영어공부가 수능, 모의고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주제를 다루는 독해지문을 보고 문법도 탄탄히 해야 하는 건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수학은 내신과 모의고사가 별개가 아닌 것을 후배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영수를 넘어 내신과 모의고사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은 과학탐구였습니다. 수업시간에 과학 선생님들께 개념설명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과학탐구는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모의고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과목별 공부방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3학년 때 수시와 정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학년이 되면 여러분 역시 진학하는 대학과 전형 방법에 대해 가장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1학년, 혹은 2학년이 끝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후배님들이 자신의 역량을 제한하지 않는 선택을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학하신 학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며 어떤 점이 다른 학과와 차별화 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자유전공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는 아마도 자유전공학부가 있는 대학이 몇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며, 전공선택과정이나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그 두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타 대학에도 일부 자유전공이 있지만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만의 특성이자 장점은 배움에의 자유와 다양한 기회이며, 이는 이공계와 인문계를 모두 선발하여 진정한 융합적 인재를 만들겠다는 건학이념과 의예과와 사범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에서 그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과에 제가 진학을 결심하게 된



3학년 김정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입학 예정



가장 큰 이유는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 그 기술로 더 편해지는 세상을 일관되게 꿈꿔왔던 저는 언제나 제가 어떤 학과로 진학해 어떤 공부를 이어나 가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IT기술들이 조금 더 인간을 위하하였으면, 그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에 녹아 인간성을 유지했으면 바랐습니다. 이공학적 지식의 기반 위에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인류에 대한 이해가 세워지는 제 꿈을 위해서 저는 인문학, 사회학, 심리학, 미학, 철학, 경영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자공학에 대한 전문성이 모두 필요했는데, 그런 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학과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로 저는 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두 개 이상의 전공이 필수이며 학생이 전공을 설계하고 학생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러 학문을 융합한 전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기회를 잡히는 선택이 아닌 기회를 넓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매력에 저를 사로잡아 저는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욕심이 가득 담긴 전공,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전공, 세상에 나만 가질 전공. 이런 '자유' 전공을 간절히 원했기에 절실하게 노력할 수 있었고, 꿈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우리 학교의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나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학교에는 그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고3 수험생활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던 많은 친구들과, 기숙사 침대에 누워 새벽까지 이야기하던 시간들, 주린 배를 부여잡고 밤새 영화를 보거나 몰래 화장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시간들, 식사시간이 끝나도록 축구를 하고 기숙사에 뛰어 들어가 허겁지겁 씻고 나오던 시간들. 돌이켜보면 이제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이 안타깝고 그립습니다.

언제나 저를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던 선생님들. 지난 3년간 부족했던 저를 “예뻐”라고 불러주시며 저를 값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민희쌤과 밤늦게까지 교무실에서 자소서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씨름하던 시간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캠프 참가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던 시간들도,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민희쌤을 마중 나가려 2학년 여자 교무실에 여럿이 몰려가던 시간들도 모두 그립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영어문제를 받아가던 귀찮은 학생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이 언제나 저를 믿는다며 응원해주시던 현주쌤과, 물리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제가 물리를 나름 '잘'하게 만들어 주셨던 연희쌤, 동아리와 생활에서 많은 조언을 주셨던 나영쌤. 이뿐 아니라 과분한 응원을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과의 시간들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아쉽고 그립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들보다 '행복'을 더 잘 찾을 수 있었던 점,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마침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제가 지난 3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이 행복한 일이 있는 매일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 매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선배들이 들려주는 대입 이야기 - 2

꿈을 가질 때 용기가 생깁니다

선배만의 수험생활의 팁(공부 방법이나 졸음을 쫓는 법 등)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저는 예전부터 자유롭게 그날그날 마음이 가는 과목을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고3 학기 초까지는 과목 간의 균형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습이 많아지고 자기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고3이 되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공부량에 대한 점검이 어렵고 교과별로 균형을 이루는 공부도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고3 친구들은 꼭 하루의 시간을 잘 배분해서 활용하시길 바라구요, 특히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국어를 하루 공부의 시작으로 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을 딱히 줄이지 않았는데, 밤에 이렇게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되 아침 수업시간이나 일과시간에는 자습이더라도 절대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면 1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괜찮겠지만 그 이상을 넘기게 되면 생활패턴에 있어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충분한 잠을 자는 대신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채우기 위해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동감할 수 없는데, 고3 때는 '본질적인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 문득 찾아오곤 합니다. 이때 자신을 붙들어줄 수 있는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가족이 필요하니 그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자신을 덮칠 때 각자의 '그분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기회가 없었던 밴드 동아리에서도 다시 활동하고, 보드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또, 제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를 누리기도 싶습니다. 이를 테면 따스한 봄이 오면 대학교 곳곳에 널린 들뜬에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신나게 놀다가 첫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것 말이에요.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학년 이유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예정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두려움을 그냥 뛰어넘어 그저 '패기'로 이것저것에 도전해보려고 했던 점이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어떤 일을 함에 있더라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제가 좀 더 재밌고 행복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악기연주, 대인관계, 수행평가 등 그게 뭐든 간에 친구에게 편지 쓰는 사소한 작업 하나까지 재밌게요! 그중 공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솔직히 공부를 재미 그 자체만으로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공부보다 재밌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다른 유혹을 떨쳐내고 공부에서 정말 티끌만큼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공부,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즐기면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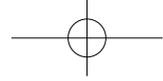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특별한 좌우명이 있나요? 선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이 글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힘들고 지칠 때 기대와 의지할 수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와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큰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너무나도 행복할 때, 그때 바로 '교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기 자신을 엄습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귀는 저를 감사하고 겸손하게 지켜줍니다.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힘을 줄 수 있고, 성공으로 자만할 때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이 말은 제 마음에 평정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에 모든 상황에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 인생의 삼분의 일도 채 살지 않았지만, 짧은 20년 동안 이런저런 경험을 하며 제가 느낀 것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인생은 혼자다'라는 말도 종종 듣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 삶을 반추해보면 제가 혼자 힘으로만 했던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회복시키고 붙들어주었던, 또 깨우쳐주기도 했던 모든 계기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지만 '관계'란 감히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 하나라고 장담할 수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끈을 아름답게 하는 작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고등학교의 현실이 아무래도 공부와 대학을 반영한 성과에 그 중심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대부분 그에 맞춰 살곤 합니다. 저도 그런 학생 중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며 고등학교 생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와 대학 또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진짜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3년만, 1년만 죽은 듯 공부하자”는 말은 너무 잔인한 말 같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생각은 지양하시고, 고등학교 생활도 본인의 인생의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인 만큼 행복하게 보내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



넌 어디까지 가봤니?

컨퍼런스 데이 특집

오늘은 집에 가는 날, 중간고사 마지막 날일지라도 발걸음이 가볍다. 식당 앞에 늘어선 캐리어를 보면 기분은 더욱 들뜨다.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5주에 한 번 있는 컨퍼런스 데이를 집에서만 보내긴 아깝다. 모니터와 대면해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런 황금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는 뭘 했지, 왜 그랬을까'하는 회의감이 밀려 올 것이다.

하늘나래는 페이스북에서 새로고침만을 연타하고 있는 당신에게 휴일을 즐기기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백운산 공기에 익숙한 당신의 건강한 폐에 문명의 공기를, 아워홈 급식에 길들여진 위장에 변화의 음식을 선물해 보자.

자, 발목 한 번 돌리고 출발!

월미도

도착하자마자 번데기, 닭꼬치, 슬러시 등의 먹거리로, 간혀있던 식욕을 분출할 수 있는 곳이다. 음식 삼매경에 빠져 길을 걷다보면 저 멀리 들리는 비명소리에 이끌리게 되는데 바로 '월미도 놀이공원'이다. 그중에서도 '디스코 팡팡'과 '바이킹'은 월미도를 다녀왔다고 하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명소이다. 낯선 사람에게 설 새 없이 조롱당하고 싶으면 '디스코 팡팡'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는 말을 실감하고 싶다면 '바이킹'을 추천한다.



동인천

월미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공갈빵과 화덕만두, 그리고 꼴타래가 기다리는 차이나타운으로 갈 수 있다. 대학을 가면 OT나 MT로 차이나타운의 짜장면을 먹으려도 온다던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명소를 경험할 수 있다니. 즐거운 마음으로 짜장면 원샷!





부평

인천 청소년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부평도 빼놓을 수 없다. 휴일에는 건물목 하나를 건널 때마다 하늘고 사람들을 본다니, 부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겠다. 형형색색의 의류와 다양한 놀거리들로 가득한 부평 문화의 거리를 걷고 있다면, 나의 마음도 어느덧 기숙사를 잊고 '문화 청소년'이 된 것 같아 으쓱으쓱해진다. 그 래... 이 김에 교복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자. 나는 패션왕이니까! 으하하. 부평 지하 상가에 도착해 복잡한 미로를 헤매며 몇 개월 동안 동떨어져 있던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성으로 노력한다. 자신에게 패션 DNA가 없다고 느껴지면 차라리 판매하시는 형님의 조언을 빌리도록 하자.



홍대

학교가 인천이라고 인천에서만 놀 수는 없다. 우리가 또 교복만 벗으면 액면가가 어디에서 밀리지는 않는다.(자랑이니?) 부평이나 구월동에서 도움을 받은 패션 자신감을 걸치고 홍대에서 놀고 싶다면... 대학... 너를 꼭 잡고 싶구나...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과 더불어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홍대는 들어가는 곳마다 개성 넘치는 맛집 천국이니, 제대로 바람 넣고 싶을 땐 이곳을 추천한다.



우리 학교의 고양이 '웨하스'를 아시나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우리 학교에는 어느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생긴 대로 살라고 하면 거리의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있을 누렁이 같은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2기 선배님들의 비단결 같은 마음에 힘입어 팔자에도 없는 귀요미 코스프레를 하늘고에서 하고 있다. 하늘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정도로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도 그동안 고양이에게 공식적으로 붙은 이름이 없어, 하늘나라에서는 이번 교지 테마에 맞춰 'ㅎ'으로 시작하는 고양이 이름을 공모했다. 식당 근처에서 진행된 '고양이 이름을 공모합니다'에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여해주었는데, 그 결과를 나누도록 하겠다.

'호날두', '하메스 로드리게스', '현아' 같은 유명 인사들과, '주석훈 교감선생님', '이현영 선생님', '황해림 선생님' 등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획', '호호', '호로록' 등의 음성상징어, '히키코모리', '호부호형', '호르방우스 1세', '하모닝', '하롱', '홀라후프', '하나비', '하필드' 등 재밌고 개성 넘치는 이름들이 있었다. 하늘나라에서는 여러 이름들 중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부르기도 쉽고 판단되는 '하모닝', '하나비', '하필드', '하롱이', '획', '웨하스'를 후보로 선정하고 설문을 통해 최종 이름을 '웨하스'로 결정하였다.

알려주는 '웨하스'라고 불러주세요! 냐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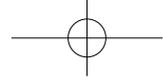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 쉬어가는 페이지



3학년 신용섭 학생 작품 (건국대학교 영상학과 입학 예정)

동행

하늘고등학교가 타 학교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사제 간의 정이 매우 끈끈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을 부모와 같이 따르고 제자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은
 이미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며 동행하는
 여기, 인천하늘고등학교이다.



총옹(聰翁) 정주원

‘귀 밝은 늙은이’라는 의미이다. 담임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점을 찾아본 결과, ‘걸음이 빠르다, 재미있다, 크다, 킥보드, 촌 데레’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귀가 밝다’는 점이 특징적이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호를 정했다. ‘옹’자는 선생님의 연세를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 부장님으로서의 노련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이다.

금연(吟緣) 이지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된 선생님과 ‘인연’이 처음엔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3반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진지하게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모습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서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빛을 켜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우리’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어색했던 인연’을 ‘밝은 인연’으로 기억하고자 이 호를 지었다.



담임 선생님께 지어 드린 호(號)
선생님 사랑해요



감자(甘者) 천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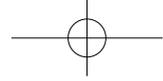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sweet guy’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천도현 선생님께서는 말투와 행동, 성품 모든 것이 달달하시다. 신입생인 1학년 초에도 담임 선생님의 따뜻함으로 인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남학생도 느낄 수 있는 달달함과 따뜻함의 소유자이신 선생님께 이 호를 드린다.



무화(霧花) 황혜경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유머러스하면서도, 또한 누구보다 무섭고 누구보다도 진지하시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고 느껴지는 우리 담임 선생님. 나이를 비롯한 많은 신상 정보가 미스터리한 것이 마치 안개와도 같다고 느껴져 이와 같은 호를 지었다. 그러면 서로 깨알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자 끼워 넣은 꽃(花)!





모호(母虎) 김민연

‘어미 호랑이’라는 의미로, 학생들의 잘못에는 호랑이처럼 엄하시지만 담임선생님으로서 우리를 챙기시는 모습에서 엄마 같은 푸근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호를 지었다. 또 실제로도 선생님은 ‘세훈이 엄마’이시고 우리들은 호랑이따라서 이 호와 의미가 통하기도 한다.



황온(荒溫) 김민희

‘거칠고도 따뜻하다’는 의미로 담임선생님의 두 가지 면을 모두 나타낸다. 우리의 잘못에는 눈물이 속 빠지도록 혼을 내시지만, ‘하늘고 엄마’, ‘하늘고 상담 1인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따뜻하시며 무엇보다도 학급을 많이 생각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께 이 호를 드린다.

선생님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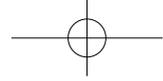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귀염(貴炎) 이병주

‘불꽃 염(炎)’은 불꽃처럼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가리키며, 같은 음을 가진 ‘소금 염(鹽)’으로도 더 의미를 부여해본다면 ‘불꽃처럼 열정적이고 소금처럼 귀한’ 선생님을 표현하고 싶어 이와 같은 호를 지었다. 그리고 ‘귀염’ 자체로도 ‘귀여우신’ 선생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 여러 의미를 가진 호라고 할 수 있다.

효월(曉月) 황혜림

‘새벽달’이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배려하는 모습이 ‘새벽달’과 같아 이 호를 지었다. 또, 달이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8반 걸을 지켜주시는 ‘정신적 지주’라는 의미도 있고, 선생님 얼굴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번 김경훈 선생님

김 | 김우빈, 김수현, 이종석, 원빈,
강동원, 현빈, 임시완보다
경 | 경훈, 당신이!
훈 | 훈훈하고 멋져부령!



2번 김지연 선생님

김 | 김지연 선생님!
지 | 지수함수는
연 | 연속함수입니다. 사랑합니다!



5번 이현영 선생님

이 | 이학년 오반은
현 | 현영쌤께
영 | 영원히 고통(..아.. 아니.. 사랑)
받고 있다.



6번 김원석 선생님

김 | 김원석 선생님
원 | 원하신다면
석 | 석고판 드실래요?

선생님 사랑해요

송 |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
남 | 남들보다 열심히
영 | 영어를 가르치신다



3번 송남영 선생님



4번 이도학 선생님

이 | 이 학교 와서
중 | 중언쌤을 만나
언 |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이 | 이학년 사반과
중 | 중언쌤
언 |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이 | 이도학
중 | 중2병
언 | 언제 끝나나



7번 이지혜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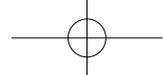
여 | 여봐라
신 | 신발 가져오너라.
지 | 지혜쌤은 가만히 계세요
혜 | 혜재가 가져올 거예요



8번 서연희 선생님

서 | 서럽다
연 | 연희쌤 예쁘신데
아직 결혼을 못하셨어
희 | 희한하네... 우린 어떡하지.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삼행시



그들이 사는 세상

2012년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술제를 경험한 학생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자리에 함께 한 모두가 한 남자의 진심을 담은 프러포즈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학생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았던 김원석, 김민연 선생님께서는 결혼에 골인하셨고, 현재는 김원석 선생님을 꼭 닮은 아들과 함께 인천하늘고등학교의 교사로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자랑스러운 영종도 주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 교지에서는 이러한 두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두 분의 보금자리를 방문하게 되었다.



152

질문 1 <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김민연 선생님 소심하고 말이 없는 여학생이 있었어. 성적은 중위권이었는데, 질문을 하면 얼굴이 새빨개져서 내가 질문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의 안타까운 가정 형편을 우연히 듣게 됐어. 부모님끼리도 서로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이 학생과 꾸준히 상담을 하다 보니 나중엔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성적이 계속해서 오르더라고. 그때 교사라는 직업이 학원 강사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 교사는 학생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김원석 선생님 전에 있던 학교의 여학생이 기억나. 고3이었고 아주 어른스러웠던 학생이었어. 그러나 어른스럽다는 건 상처가 있다는 뜻이거든. 역시나 가정환경이 좀 그렇더라고. 그러던 중에 내가 하늘고에 오기 위해 사직서를 냈을 때였어. 내 입으로 말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정말 내 자리에 성지순례가 일어났지. 아이들이 찾아와서 내 자리에 편지를 쌓아두고 가더라고. 그날 밤에 학교를 나가는데 “선생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뒤돌아보니 그 여학생이었어. 갑자기 그 여학생이 나에게 달려오더니 안겨서 막 우는 거야. 그때 온갖 생각이 들었어. 교사만큼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 또 있을까. 또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사랑 받을 자격이 있을까, 죄책감도 들고. 나는 정말 해준 게 없는데 말이야. 수업을 할 때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교사하기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



153



질문 2 김민연 선생님,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포기하지마라. 수학이 아니다. 산수다. 고등학교 수학이 자꾸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대학교 수학은 머리를 필요로 한다는 말에 공감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정말 노력한 대로 나와. 만약 노력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데 성적이 안 나온다 싶으면 그건 잘못된 노력을 했겠지. 아니면 너무 학원 강의 위주거나 인내력이 없거나.

질문 3 학창시절 공부 방법을 소개하자면?

김민연 선생님 나는 정말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었어. 국어랑 영어는 문제집도 안 풀었어. 하지만 대학을 가려니 국어가 너무 발목을 잡는 거야.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언어영역 문제집은 다 풀었어. 수능 땀 하나 틀렸지, 언어는. 수학은 항상 쉬는 시간마다 정석 한 문제를 풀었어.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말고 예전에 배웠던 거 주면 조금 고민하게 되잖아? 나는 그럴 일이 없었어. 쉬는 시간에 틈틈이 예전에 배웠던 모든 수학 문제집을 계속 풀고 있었거든. 애들이 다 까먹어서 헤매고 있을 때도 난 기억이 났어.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질문 4 김민연 선생님, 김원석 선생님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요?

김민연 선생님 무한대. (김원석 선생님 : 무한대 말고 무한급수가 원석으로 수렴한다고 해줘.) 그러지 뭐. 무한급수가 원석으로 수렴한다.

질문 5 아이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요?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거.

질문 6 김원석 선생님, 평소의 이상형과 김민연 선생님의 일치율은 어떤가요?

김원석 선생님 102%. 200%라고 하면 거짓말 같고 인간미도 없으니까.

질문 7 연애 혹은 결혼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요?

김원석 선생님 프라하 여행 갔을 때겠지 아마? 까를교 주변을 걸었어. 야경을 보면서 맥주도 먹고, 한 순간 한 순간이 모두 드라마 같았지. 계속 걸어 다녀서 좋기도 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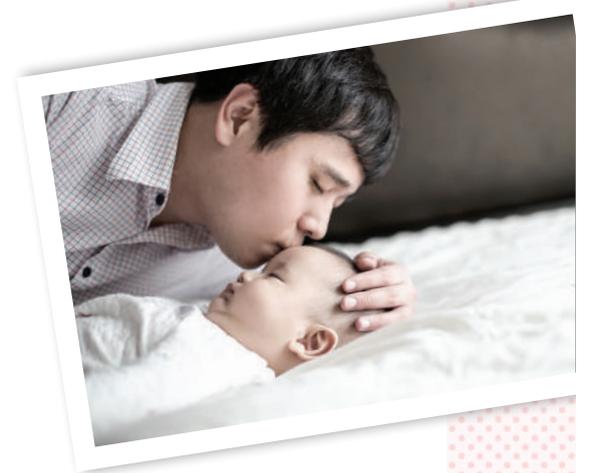
김민연 선생님 나는 프리포즈 받았을 때.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질문 8 김민연에게 김원석이란?

김민연 선생님 로또.

질문 9 김원석에게 김민연이란?

김원석 선생님 연금복권.





QA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풍문으로 들었소

교사 설문지의 질문은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거쳐 선별했습니다.
이하 선생님들의 존칭은 생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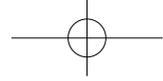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선생님께서 만약 인천하늘고 학생이라면 어떤 항목에서 벌점을 받으실 것 같나요?

- : 틈트 등의 화장품 사용 (이지혜)
- : 학교 폭력, 무단이탈 (이현영)
- : 아침운동 불참, 학교 기물 파손 (최상규)
- : 교내 연애 (김승호)
- : 음식물 무단 반입 (나유영)
- : 기숙사 내 배달음식(치킨) 취식 (황혜경)
- : 보행 중 취식 (이중언)
- : 슬리퍼 등교 위반 (이지현)
- : 교복 미착용 (전민호)
- : 교육시간 지각 (정주원)
- : 음식물 취식 (천도현)
- : 아침운동 불참 정도? 화장 같은 건 했을 리 없고. (서연희)
- : 벌점은 모르겠고 아마도 수업시간에 자주 자서 혼날 것 같아요 (김경훈)
- : 대부분의 항목 -_- 내 학창시절이라면, 이성교제는 해당사항 없었을 듯 (신은재)
- : 연애로 받고 싶습니다. (황혜림)
- : 두발, 화장품, 교복 등의 벌점을 받았지만... 잘 도망 다닐 것 같다. (이병주)
- : 안 받음 (나는 생지부) (이정하)
- : 타호실 이동, 금지물품 반입 (김민희)
- : 반듯 그 자체라 벌점 제로였을 듯 ㅎㅎ (이영종)
- : 저는 원래 규칙에 매우 엄격한 보수적인 사람이라, 벌점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량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이수민)
- : 벌점 0점에 도전함. 학창시절 모범생이었음. (김창재)
- : 받을 일 없음. (조기성)
- : 학창 시절에 모범생이어서 벌점을 안 받을 것 같으나 다시 학생이 된다면 한 번 정도 벌점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 (강선이)
- : '나'라는 사람은 벌점 같은 거 과연 받을 사람인가... (송남영)

2

선생님께서 학생이라면, 홈페이지 검사 때 무엇이 걸렸을까요?

- : 과일 (황혜림)
- : 라면? (이지혜)
- : 컵라면 (이영종)
- : 눈썹 펜슬 (황혜경)
- : 콜라 (나유영)
- : 각종 간식들 (사실.. 지금도 교무실 서랍 속에도 간식이 가득 ㅋㅋ) (김승호)
- : 안 걸린다. (이중언)
- : 걸릴 것 없음~! (김경훈)
- : 바보만 걸림 ㅎㅎㅎ (이현영)
- :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걸릴 걸 가지고 다니지 않음. (이지현)
- : 과자 및 컵라면 (전민호)
- : 먹을 것이라 모두가 생각하겠지만 불온서적, 불법 동영상^^ (정주원)
- : 불온서적 (심주석)
- : 음식물 은닉 (천도현)
- : 먹는 거죠? 주로 과자. 홈런볼 이런 거^^ (서연희)
- : 아마도 먹을 것? 만화책? (신은재)
- : 과자? 음식류 (양예영)
- : 비상식량... 노트북 (금지물품) (이병주)
- : 안 받음 (나는 생지부) (이정하)
- : 써어가는 음식들 (김민희)
- : 홈페이지 '에는' 걸릴 만한 것들을 넣어두지 않았을 듯? (이수민)
- : 걸릴 거 없음. 난 교칙을 준수함. (김창재)
- : 외부 음식 (학생들이 먹고 싶은 걸 참느라 힘들어 하는 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1인) (김민연)
- : 완벽해서 지도 선생님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음. (조기성)
- : 연예인 사진 ㅋㅋ (장윤선)
- : 과자 및 먹을 것을 쌓아놓은 것 (김지연)
- : 나의 사랑 뺨이겠죠. (송남영)
- : 만화책.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화책을 잔뜩 빌린 후 서로 돌려가며 읽었다. 만화책의 교환처는 당연 학교였다. 아마도 불시에 홈페이지 검사를 당한다면 만화책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다. (이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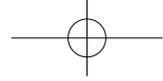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3 만약 담당과목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과목 선생님을 하고 싶으신가요?

- : 음악 (김경훈)
- : 미술 (심주석)
- : 국사 (이현영)
- : 정치, 경제 (최상규)
- : 국어 (문학을 완전 사랑한다는... 그러나 문법의 압박이... OTL) (김승호)
- : 여전히 국어 (이중언)
- : 국어 선생님 (이지현)
- : 수학 (전민호)
- : 체육, 역사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음) (정주원)
- : 보건 (천도현)
- : 미술 (서연희)
- : 역사나 사회 (신은재)
- : 물리, 경제 (양예영)
- : 취향으로는 수학, 능력치로는 역사! (황혜림)
- : 세계사 (이병주)
- : 중국어 (이정하)
- : 상담으로 하느고 위클래스 운영. 지금도 국어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음. (김민희)
- : 컴퓨터 (티켓팅의 정석을 가르쳐야지 ㅋㅋ) (이지혜)
- : 영어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지문을 독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영중)
- : 음악! (이수민)
- : 체육^^ (김창재)
- : 실력만 된다면 미술 선생님 (김민연)
- : 체육 (조기성)
- : 사회과목 (장윤선)
- : 체육 (강선이)
- : 국어. 학생들과 보다 많은 것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하정선)
- :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냥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 ㅋㅋ (송남영)
- : 미술 (황혜경)
- : 월급을 두 배로 줘도 내 과목 아니면 싫어요. (나유영)
- : 전 지금 이대로 100% 만족합니다. 하하^^ (김지은)

4 학교 선생님들 중 자신의 외모 순위는 몇 위라고 예상하시나요?

- : 이제 당당한 1위 (최상규)
- : 최상규 선생보다 짝~곰 앞 (심주석)
- : 순위 평가 따위... 훗 (이중언)
- : 1 (나유영)
- : 5위권 밖 (이지현)
- : 답변거부 ㅋㅋㅋ (전민호)
- :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1등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Pass!!!! (김승호)
- : 뒤에서 3번째 (배성규, 이중언 선생은 적어도 내 밑이라 생각됨) (정주원)
- : 이와 같은 얼핏 문화에 동조하고 싶진 않으나, 아무튼 난 최상위권 (김민희)
- : 3등급 (수도권 진학 가능) (천도현)
- : 중간은 되지 않을까... ㅎㅎㅎ (김경훈)
- : 남녀 합친 겁니까?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겠어요. (신은재)
- : 이럴 거야? — (양예영)
- : 선생님들을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10위권 밖이라는 사실...^^ (김지은)
- : 음... 외모란 각자의 개성으로 어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순위로 매길 수 없는 거죠 ㅋㅋㅋ (하정선)
- : 황튼튼 (외적인 모습이 그런 뜻이라면야...) (황혜림)
- : 외모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이정하)
- : 1위 (당연한 거 아님?) (이지혜)
- : 40대 중에서는 1위가 아닐까 ㅎㅎㅎ (이영중)
- : 1위? 미안하다ㅋㅋㅋ (이수민)
- : 글썸... 나이가 있으니... 대략 10위권(?) 정도 ㅎㅎ (김창재)
- : 중간 (조기성)
- :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서 생각해 본적도 없다. (강선이)
- :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미모가 뛰어나셔서 상위권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연희)
- : 이걸 도대체 왜 묻는지 모르겠다. 0위다. (송남영)
- : 우히히히히 희망 순위를 말해도 되는 건가요? (황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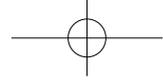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5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후회되세요?

- : 너무 압전했던 것. (최상규)
- : 후회 없이 열심히 놀고, 매순간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김승호)
- : 수학을 더 공부하지 않은 것. (이중언)
- : 친구들과하고 주먹으로 치고 박고 싸웠던 세 번의 기억. (이지현)
- :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 (전민호)
- : 밤새도록 스타를 한 것, 이로 인해 성적이 수직 하락한 것. (송남영)
- : 학창시절 공부 빼고 모두 다 열심히 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질 않았네요.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공부 오덕이 되고 싶어요. (신미영)
- : 시험 기간만 되면 해리포터 전권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다. 너무도 좋아했던 책이었기에 읽고 딱 집중하면 공부도 잘 될 것 같았지만, 시리즈 전권이 10권 가량이었던 것이 함정! 아무래도 현실도피가 주된 목적이었던 듯.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했는데... (이나영)
- : 공부를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죽어라고 해서 결국은 재수) (정주원)
- : 평생 친구를 못 사귄 것. (이현영)
- : 일탈을 경험하지 못한 것. (천도현)
- : 친구들과끼리 여행 못가본 거. 고1 때 아빠가 연예인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네 별장이 경주에 있었어요. 친구들과끼리 거기로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저만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셔서 못 갔어요. 아직도 아쉬워요. (서연희)
- : 친구들과하고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공부만 한 거. 다시 돌아간다면 공부 말고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싶다. 그런 면에서 하늘고 짱짱! (신은재)
- : 친구 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잡은 것. 사소한 갈등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황혜림)
- : 1인1예1체 활동을 좀 더 확실히 안 했던 것. (김경훈)
- : 수업시간에 즐겼던 기억, 공부를 핑계로 학교생활에 소극적이었던 것. (이병주)
- : 선생님들께 반항했던 것. (심주석)
- : 공부하겠다고 동아리 활동 안 하고 특별 활동(C.A)만 한 것. 동아리 안한다고 공부를 더 하지도 않기에 오히려 한정된 경험을 한 것 같아 후회 됨. (이정하)
- :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다른 친구들의 문제를 '내 일'처럼 신경 쓰느라 저작 '나의 문제'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점. 하지만 그 시절이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이었기에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김민희)
- : 그때 남자친구를 만났어야 했는데... (이지혜)
- : 폭넓은 독서를 하지 못했던 점. (이영중)

- : 후회 없이 놀았고, 후회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노력을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공부든 다른 것이든! (이수민)
- : 음...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 ---;; (김창재)
- : 너무 모범적이었던 것. 몸이 안 좋았던 것. (조기성)
- : 외모에 신경 쓰지 않은 것. (김지연)
- : 좀 더 자유롭게 진정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탐구를 할 걸. (강선이)
- : 후회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후회가 남지 않는 알차고 멋진 고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시간들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 (하정선)
- : 연애를 못 해본 것. (나유영)
- : 나 스스로에 대한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것.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웠더라면 행복을 순간순간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학창시절의 추억을 소소하게 쌓지 못한 게 지금은 많이 아쉽네요. (김지은)

6 만약 직업을 바꾸실 수 있다면, 어떤 직업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 : 사건 현장을 누비며 진실을 알리는 기자 (이영중)
- : 실내 디자인, 건축 설계 (김민연)
- : 유전공학자 또는 대학교수 (김창재)
- : 인터파크 티켓담당자(혹시나 티켓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 하여 ㅋㅋ) (이지혜)
- : 파일럿 (김경훈)
- : 정치인. 잘 싸울 자신이 있으니까 (이현영)
- : 메소드 연기 전문 개성파 썬 스티러 배우 (김승호)
- : 잘할 것 같은 건 교도관, 하고 싶은 건 동화 작가 혹은 음식평론가 (김민희)
- : 재즈 밴드의 베이스리스트 또는 파티시에 (강선이)
- : 순수학문연구직 혹은 통계학 관련 업무 (이중언)
- : 광고업계 종사자, 신문기자(이지현)
- : 의사 (전민호)
- : 핸드폰 판매, 음식점 운영(정주원)
- : 유명한 바리스타가 되어 스타벅스 운영. (천도현)
- : 요트 선수 (나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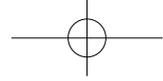


- : 여행 작가 (서연희)
- : 기자 혹은 시사교양 피디 (신은재)
- : 여행자 (황혜림)
- : 국제기구 단체에 들어가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이병주)
- : 저는 천생 교사인 듯 (이정하)
- : 어려운 질문이네요. 직업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도 고민 중 (이수민)
- : 그냥 쉬고 싶다. (송남영)
- : 재즈 가수 (황혜경)
- : 요리사 혹은 사진작가 (김지은)
- : 브루마스터 (신미영)
- : 야구해설가 (최상규)
- : 바꿀 생각 없음. (심주석)

만약 인천하늘고 학생이 된다면, 담임선생님으로 만나고 싶은 선생님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이형주 선생님
↳ 그의 지도 아래 과거시절 했던 스타를 강제로 끊고 싶다. (송남영)
- : 이형주 선생님.
↳ 비록 엄하지만 학생들을 가장 사랑하는 교사인 것 같음. (정주원)
- : 이형주 선생님
↳ 카리스마 있으시지만 따뜻한 모습이 참 좋으시다. (김민연)
- : 정주원 선생님
↳ 나를 아들처럼 여길 것이다. (이중언)
- : 정주원 선생님 (이현영)
- : 이영종 선생님
↳ 자상하시고 위트도 있으심. 게다가 마음을 녹이는 미소까지^^ (김승호)
- : 이영종 선생님
↳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셔서 (서연희)
- : 이영종 선생님!
↳ 나 자신을 담임으로 만나고 싶기도 하다 ㅋㅋ (신은재)
- : 이영종 선생님

- ↳ 이유는 B형 남자의 마성의 매력?!ㅋㅋ (장윤선)
- : 이영종 선생님
↳ 학생들로부터 M5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M5를 통해 학급 친구들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싶다. (이나영)
- : 이영종 선생님
↳ 고3 담임선생님이 참 인애로운 분이셨는데 그 분과 느낌이 참 비슷해서 친근합니다. (김지은)
- : 최상규 선생님
↳ '격'과 '파격'에 대해 몸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영종)
- : 최상규 선생님
↳ 고민거리가 있을 때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고 '내가 왜 이것 일로 마음을 졸였을까?' 하고 훌쩍 털었을 것 같다. (황혜경)
- : Cowie 선생님
↳ 영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전민호)
- : Cowie 선생님
↳ 학생 개인의 주장을 존중해줄 것 같고, 간섭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병주)
- : 나. 제일 좋은 담임 선생님일 테니까 (나유영)
- : 나.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니간 잘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ㅋㅋ) (이지혜)
- : 이강봉 선생님
↳ 꼭 적절한 만큼의 조언+먼저 가서 말 안 해도 이미 알아봐주시는 센스 (황혜림)
- : 조기성 선생님
↳ 인격적으로 정말 배울 것이 많고 존경스러운 분이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개그도 너무 재미있으십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정하)
- : 교감 선생님. 진로 조언을 구할 때 친절히 알려주실 듯. (김창재)
- : 김민희 선생님
↳ 사랑받을 것 같아서. (심주석)
- : 김민경 선생님
↳ 나를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궁금함. (조기성)
- : 김지연 선생님
↳ 학생들이 항상 웃는 것으로 보아 뭔가 매일매일 흥미진진할 것 같음. (김경훈)
- : 송남영 선생님
↳ 재밌잖아. (최상규)
- : 수학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수학 선생님 반. (이지현)
- : 어느 교사도 나름의 개성이 있어서 다 흥미롭다. 특별히 한 사람을 꼬집을 수 없다. (강선이)



: 내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두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최선의 교사, 최고의 교사이다. 담임 선생님이 그 누가 되신다고 해도 만족도는 100%일 듯! (김민희)
: 없다. 다들 너무 관리가 철저해서 힘들 것 같다. (천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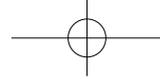
8 자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성을 하늘고등학교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어쩔 수 없죠. 일단 공부해야죠. (이정하)
: 매일매일 아주 환하게 웃어줄꼬야 ^-----^ (김민희)
: 당연히 Dash~~!!(더 기다릴 순 없쉬~~!!) (이지혜)
: 매일매일 편지를 쓰고 있겠지... (이영중)
: 은밀하고도 은밀하게... (천도현)
: 그럴 리가 없다. (신은재)
: 사랑하는 이성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니? (홀썩) (이수민)
: 일단 만나고 생각해볼까요? (황혜림)
: 대학 가서 만나자 (김창재)
: 3년 동안 지켜보다 졸업한다. (조기성)
: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고 싶다. (강선이)
: 먼발치에서 지켜봤을 듯합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수줍음이 많아 이성 친구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말을 걸지 않았을까 싶어요 ㅋㅋ (하정선)
: 지금 사랑하는 이성이 없는데 ㅜㅜ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도 자존심 때문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고. (서연희)
: 우선 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의 공부(진로&진학)에 도움을 준다. 동료, 멘토 관계 같은... (이병주)
: 그와 함께 자퇴 하겠다. (송남영)
: 우리 신랑은 하늘고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따라서 하늘고에서 우리 신랑을 만날 가능성은 제로! (신미영)
: 건전하게 잠깐 사귀겠다. (나유영)
: 조용히 짝사랑? ^^ (김지은)
: 늘 말했듯이 짝사랑만 하다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후에 고백할 것임. (김경훈)
: 내가 평생 함께 할 여자라면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반드시 만나게 됨. 지금은 이성 말고 훨씬 더 재미난 게 많음. (이현영)

: 그러면 양대요~ (김승호)
: 고등학생 때였다면 지금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중언)
: 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을 테니 졸업 때까지 기다릴 것. (이지현)
: 대학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공부에 몰두한다. (전민호)
: 서로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학교보다는 귀교한 후에 밖에서 만나겠음. (정주원)

9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서 하실 선택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쉬움이 남는 기억은 있지만, 바꾸고 싶은 기억은 없다. 그걸 바꾸면 지금의 나도, 지금의 시간도 없을 테니까.(김민희)
: 대학 재도전. 1년의 시간은 평생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투자할 만한 시간이다. (천도현)
: 뒤돌아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아예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남자로 태어나는 것 같은? 왜냐하면 아예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 보고 싶어서요. (서연희)
: 살아온 인생을 바꾼다라... 있습니다만 노코멘트 하겠어용 ㅋ (신은재)
: 고 1.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너무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양예영)
: 20대 초반에 영어공부, 운전면허 미리미리 할 걸 싶어요. 해보지 않은 일에 두려움이 큰데, 미리 해보면 지금 더 막 할 수 있을 듯해요. (황혜림)
: 사대에 진학하지 않는다 ㅋㅋ (이병주)
: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을 걸! 좀 더 생각도 넓게 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들! (이정하)
: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음.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 (이지혜)
: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겠죠. 지금을 더 잘 살려고 노력해야죠. (김경훈)
: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음. 물론 뱀과 같이 사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ㅎㅎ (이현영)
: 살이 찌지 않겠습니다. 맞는 옷이 없음. ㅠㅠ (김승호)
: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 시점이 너무 많아서 선택할 수 없다. (이중언)
: 대학 진학(개인적으로 재수를 해봤으면 하는 욕심) (이지현)
: 고1 여름 이과를 선택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 (전민호)
: 가끔 농담처럼 말하지만 로또 맞으면 사표 내고서 시간강사로 수학을 가르



치며 평생 지내고 싶음. (지금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가 꼭 해야 되는 수업과 상담을 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급은 적지만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기 시간강사를 택해 학교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함) (정주원)

: 고교 동창이 돌연사로 죽기 전날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로 다음날 보자고 한 것. 그때부터 누군가의 한마디를 쉽게 거절 못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음. (조기성)

: 배낭 하나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선택할 것 같다. (강선이)

: 스페인어를 선택한 것. 제3외국어를 선택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로 인해 고등학교 성적표에 9등급이 남았다. (송남영)

: 당근 바꿉니다. 왕비의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 태어나서 왕비처럼 살아 봤을 좋겠네요.. 아~ 어쩔!! 지금의 이... 시너 근성!! (신미영)

: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밝힐 수 없음 (나유영)

: 피아노 외에 다른 것을 배워보는 것, 평생 한 가지만 해와서인지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아쉬움 등이 있다. (김지은)

10 학창 시절 때,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 이승환, 서태지, 조승우, 김연아... 내가 한때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그들 (올 연말도 이승환의 콘서트와 조승우의 지킬 앤 하이드와 함께 합니당 ^^) (이지혜)

: 성경 (이영종)

: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저와는 달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알미워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정말 미친 듯 무섭게 공부를 한 덕분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수민)

: 마이클 크라이튼(주라기 공원 저자).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희망이 '유전 공학자'였을 정도로 유전공학에 대한 자극을 줌. (김창재)

: 이현세 만화 (조기성)

: 나 자신 (심주석)

: Rock music!!! (강선이)

: 과외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좋아서 그에게 질문하기 위해 공부하다 보니 수학에 눈을 뜨게 됐음. → 그러나 곧, 다시 눈이 달렸음. (황혜경)

: 철학 서적 (이중언)

: 지금까지도 만나오고 있는 친구들 (이지현)

: 재수할 때와 대학 시절 학원 다닐 때 나에게 맞는 영어 학습법을 알려주셨던 선생님 두 분 (전민호)

: 교회, 신앙 (내가 만약 이 둘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교도소나 조폭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음) (정주원)

: 태사자 (나유영)

: 부모님 (김지은)

: 뽀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 (천도현)

: 고등학교 때 물리선생님. 여자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항상 폭풍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습도 멋지고요. 그래서 물리 선생님을 꿈꿨던 것 같아요. (서연희)

: 아버지 (신은재)

: 신화 (SHINHWA) (양예영)

: 커피우유. 모두 나의 삶이 됨. 모든 집중력의 원인! 서울우유 No. 우유 속의 모카치노 Yes. 영어 듣기는 커피우유와 함께 (황혜림)

: 친구. 친구를 보며 닳아가고, 경쟁하고, 격려하며 함께 꿈을 꾸었던 시간들 (김경훈)

: 부모님의 기도 (이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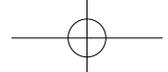
: 중1 사회시간. 기억도 안 나는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꿈이 뭐냐고 물어봤다. 난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요." 라고 했고, 그게 내 꿈이 되어 평생 동안 함께 할 직업이 되었다. (최상규)

: 대광고등학교 (좋은 선생님들,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친구들 대광고에서의 모든 기억이 크고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김승호)

: 담임 선생님 (이병주)

: 친구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돌아다녔던 것이 건장한 체력과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듯. (이정하)

: 신앙 그리고 다양한 군의 여러 친구들 (김민희)



우리들의 해피엔딩

각각의 퍼즐 조각만으로는 그림의 가치를 짐작할 수 없지만,
퍼즐이 완성될 때는 비로소 귀퉁이의 작은 조각도
그 의미를 찾게 되는 법이다.
당신의 뜨거웠던 2014년도 반드시 그런 해피엔딩의
그림 속 한 조각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1학년 1반 반별 한마디

1. 강남옥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대개 즐거웠던 것 같다. 앞으로 반도 바뀌고, 기숙사 방도 바뀌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살자 고마워!
3. 강수완 아무것도 준 것 없이 폐만 끼쳐 미안하고 제멋대로인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 사랑해!!
4. 김교인 1학년 1년 동안 즐겁고 고마웠어.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만 지내자!
5. 김창준 3.5 5.7 11.13 17.19 29,31 ...
6. 명인선 그동안 즐거웠고 남은 시간들도 알차게 보내자!
7. 문규성 즐겁게 멋지게 살자. 1년 동안 고마웠어!
8. 박규철 지금까지 재밌었고 더 재밌는 일 만들어 보자!
9. 박용제 공부보단 건강이 우선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늙어서까지 만나자!
10. 박주영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11. 박준혁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살자! 다들 잘 지내길~
12. 박진우 고등학교 1학년, 중요한 시간을 함께 즐겁고 뜻 깊게 보내서 좋았다. 고마워~
13. 성승우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2년만 더 버텨서 인생 멋있게 살자
14. 오상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15. 우재현 우리 20년 뒤에 각자 아빠들 돼서 동창회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ㅋ
16. 윤성하 주어진 날들을 버리지 말고 살자 *^&^*
17. 이민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면 성공한 거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18. 이찬열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 남는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추억 만들고 우리 인생 멋지게 만들어가자!
19. 이창호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다 그리울 친구들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자!!
20. 장선재 남에게나 나에게나 부끄럽지 않게 살자 Yee!
21. 장인후 내가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줄게. 사랑한다~
22. 장재운 평생 지내게 될 고등학교 친구들아! 각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자!
23. 전동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서로서로 도와주며 잘 지내자
24. 정상운 1반에 피해만 주는 것 같아 일단 미안하고 다들 소중한 친구들로 남게 될 텐데 남은 시간 재밌고 알찬 추억 만들어가자.
25. 정태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비록 여기 와서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우리 꿈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 Fighting!!!
26. 조완희 소중한 친구들아, 1년 동안 고마웠고, 사회 나가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인연이었으면 좋겠다.
27. 조용완 1년 동안 즐거웠고 너희들과 같은 반을 하게 되어서 좋았어. 앞으로 남은 2년 즐겁게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만날 때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8. 최혜성 애들아, 1년 동안 정말 고마웠고 남은 시간 동안 정신 차리고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파이팅!
29. 함승헌 항상 너희한테 고마웠어. 1년 동안 수고했다!



1학년 2반 반별 한마디

1. 김민규 2학년도 흐트러지지 말고 잘 지내자! 피라미를 낚지 말고!
3. 김범철 공부도 Top 운동도 Top!! 우리 반은 못하는 게 없나, 사랑스럽게 ㅋㅋ 앞으로도 잘 지내자.
4. 김병노 고등학교 들어와서 가장 재미있고 화목한 반이다!! 당연하다!!
5. 김승진 1학년 2반, 내가 만났던 반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게 지내자.
6. 김영웅 우리 1학년 2반, 최고의 반. 앞으로도 기억에 오래 남을 2반. 존재해서 감사하고 우리 반 우정 영원하자!
7. 김인성 두 명이나 떠나가서 많이 당황스럽고 아쉽지만 우리 더 밝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지내자!
8. 김정현 학창시절 중 가장 재미있던 반으로 기억될 것 같다. 1학년 2반 친구들이 사랑한다~
9. 김태양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아. 앞으로도 잘 지내자.
10. 나일호 고등학교 오고 처음 만난 반이 2반이어서 좋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앞으로도 별일 없이 이렇게만 지냈으면~
11. 박성진 이렇게 특색있고 재밌는 아이들과 같은 반이 된 건 처음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12. 박정완 애들이 1학년 2반이 가장 재미있는 반인 것 같아. 잘 지내자.
14. 소 윤 사랑해
15. 송승원 중학교 때와는 클래스가 달랐던 우리 반, 2학년 때 문이과로 나뉘어서 못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끝까지 잘 가자!
16. 여시명 항상 재미있는 우리 반 모두 사랑하고 열심히 해서 잘먹고 잘살자~
17. 유현승 1학년 2반!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자. 고맙고 사랑한다잉~
18. 이다원 거침없이 보여줬던 내 모습으로 많이 당황시켰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게. 인생 짧다. 열심히 하자. -대관령 장인 이다원.
19. 이정현 1학년 2반 친구들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잘 가라. 그리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20. 이준엽 수업시간에 우리 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커서 얼마나 좋은 어른들이 될까 항상 상상해. 죽을 때까지 연락하자. 사랑한다♥
21. 이진우 1학년 2반, 내가 만난 반 중 최고의 반이야. 앞으로 변하지 말고 잘 지내자.
22. 이찬빈 지내다 보니 느낀 건데, 정말 배울 점 많은 친구들이 많은 반이었어. 부족한 내게 많이 가르쳐줘서 고마워어~ 언제나 고맙고 사랑한다♡
23. 전승환 앞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24. 정대호 공부도 잘하고 단합도 잘되는 우리 반! 남은 시간 잘 지내고 커서도 연락하자~
25. 정승원 1학년 2반, 수업시간에 너무 조용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 장난 많이 쳐서 미안하구 남은 한 학기도 기억에 남는 추억 많이 만들자.
26. 천금환 애들아, 잘 대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지내자! 대학 잘가라! 우리 모두 황금 낚시대가 되도록 노력하자!
27. 최승환 모르는 것 물어볼 때마다 멍청하다고 하면서 다 가르쳐주는 너넨 너무 멋져!!
28. 최효범 두 명이 떠났지만, 이제 슬픔도 덜고 흐트러지지 말고 평소대로 잘 지내자! 황인혁 부반장 수고했음!
29. 추교영 1학년 2반 내 생애 최고의 반!! 조합도 오지게 되었으니 남은 2학기도 잘 지내자!
30. 황인혁 1학년 2반 내가 만났던 반 중에 제일 재미있는 반은 아니지만 제일 착한 반인 것 같아. 1년 동안 즐거웠어~

1학년 3반 반별 한마디

1. 강여명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균형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나가는 우리 반! 앞으로 더 힘내자!
2. 김대유 상처 많고 고민 많고 사고뭉치인 반이지만, 긍정적이고 서로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반! 파이팅! 힘내자!
3. 김민욱 3반하면 그 특유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3반! 앞으로도 이 개성 살려서 더욱 열심히 하자!
4. 김성년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3반이 되자!!!
5. 김성학 단합 잘되는 우리 3반이 짱이지~ 계속 열심히 해서 2학년 때도 웃음 많은 모습 잃지 말자. 파이팅!
6. 김영욱 여기까지 올라온 3반! 우리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 김의연 모였대! 힘됐다! 나아간다!
8. 김준석 개개인도 특별하고, 반도 특별했던 3반, 서로의 개성을 계속 살려 나가자!
9. 김진현 지금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3반이 되자!
10. 김현민 남자만 있는 반은 처음이었는데 유니크한 1학년 3반 정말 좋다!
11. 김호찬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3반이 되자
12. 문형섭 비운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제 굳는 일만 남은 반! 앞으로도 더 힘내자!
13. 민승용 할 수 있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지현 쌤 잘 따라서 다같이 가자.
14. 박종성 배의 방향을 놓치지 말고 서로서로 도우며 앞으로 나아가자
15. 백승훈 우리 반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좋고, 너희와 같이 반이어서 자랑스러워. 핑크 반티 버리지 말도록 합시다~
16. 서준혁 서로서로 도와가주는 우리 반!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친구들 중에 최고다. 다들 무언가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너희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
17. 송일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잡생각 말고 공부하자.
18. 신준용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잘했고, 이제 우리가 원하던 것들을 얻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참고 열심히 하자. 파이팅!
19. 신창준 3반 친구들! 너희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미래의 우리가 있어. 우리들 모두의 성장과 우정을 위해 서로의 버팀목이 되자!
21. 오윤석 재미있는 3반! 항상 모든 일에 hustle하고 졸업 때까지 힘내자!
22. 윤동규 자기 자신보다는 서로서로를 위하는 3반이 되자. 1년 동안 정말 재밌었어. 3반 사랑해. 커서도 좋은 모습으로 꼭 만나자.
23. 이용훈 우리 3반 ㅋㅋ 1년 동안 감사했구요, 서로서로 다 잘됐으면 좋겠어. 우리 반 평생가자~ㅋㅋ 스름흔드♡
24. 이주형 서로서로 아껴주고 개성 넘치는 T.O.P 3반.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열정적으로 지내자. 친구들아!♡
25. 정구윤 3반 돼서 정말 기쁘다.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고 사랑한다 친구들아!
26. 정민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고 함께 도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께 땀땀 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랑한다 3반♡
27. 정유찬 3반!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열심히 남은 시간 보내자~ 몇 년 뒤 꼭 웃으면서 볼 수 있게!!
28. 조우현 공부 힘내서 열심히 해가지고 각자의 원하는 자리에서 성공하는 3반이 되자~
29. 조항빈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영원한 3반이 되자 ~!
30. 황상민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3반! 너희 한명 한명이 자랑스럽고 고마워, 우리의 목표를 잃지 말고 나아가자!



1학년 4반 반별 한마디

1. 강예나 1년 동안 완전 행복했어. 다들 고맙고 잊지 말자♡
2. 고은별 벌써 이런 글을 쓸 때가 오다니ㅠㅠ 4반, 남은 고딩 2년 여기서 모두 잘 지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잘하기~!!
3. 구서현 한 해 동안 너무 고마웠어. 사랑해♡
4. 김다혜 벌써 우리 2학년 되는 거야?? 우리 잊지 말고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하자ㅠㅠ고마워♡
5. 김연수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 진짜 최고의 반이었고 잊지 못할 거야 ㅠㅠ 2학년 때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사랑해 4반♡
6. 김예리 1년 동안 참 고마웠어. 못난 반장 잘 따라줘서 고맙고, 이런 화목한 반에 있었다는 게 진짜 행운이었던 것 같아.
7. 김유림 다른 반 되기 싫어ㅠㅠ 우리 폐북 그룹 영원히 삭제하면 안 돼. 1학년 행복한 기억 남겨줘서 고마워♡
8. 김채영 1학년 4반 고마워.
9. 김태연 일 년 동안 다들 여러모로 수고했어. 웃으면서 1학년 마치자. 다같이 하늘고도 졸업하고♡
10. 류희조 1학년 4반 진짜 완전 고맙고 사랑해♡♡♡ 졸업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친하게 지내기:)♡
11. 박담인 여기 들어온 지 일 년이 다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ㅠㅠ 다들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4반 사랑해♡
12. 박정은 4반!! 벌써 헤어지는 게 아쉽다 ㅠㅠ 그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13. 신예나 4반 우리 만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진다니 ㅠㅠ 많은 추억 만들지는 못했지만 정말 행복했어. 다들 올라가서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거 하면서 살자. 사랑해.
15. 오정인 이제 벌써 11월이야. 그동안 너무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16. 유예린 우리 꼭 졸업하자 하늘고에서 ㅎㅎ 사랑한다 4반♡
17. 유채린 4반! 항상 고맙고 너희가 다 짱이야 ㅎㅎ 사랑해 4반! 사랑해 신혜연!!
18. 유현아 우리 진짜 24시간 같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빨리 많이 친해진 것 같아 ㅠㅠ 어른 돼서도 연락 하면서 지내자~!!
19. 이도경 모두모두 가족 같은 친구들이었고 잊지 못할 거야. 너희들 다 최고였고 덕분에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었어. 고맙고 사랑해~
20. 이수민 우리 이제 같이 스페셜데이 때 광란의 춤도 없는 거야? 슬퍼ㅠ 2학년 때도 4반 잊지 말자!! 사랑해♡
21. 이진희 보고 싶을 거야 ㅠㅠ 진짜 좋은 반이었어. 전학 가지 말고, 하늘고에서 지내면서 꼭 보자~
22. 이한나 가족 같은 녀석들ㅎ... 평생 기억할 거야 ㅠㅠ
23. 임하연 1년 동안 고마웠어 애들아 ㅎㅎ 많은 거 배우고 간다.
24. 정선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2학년 돼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1학년 4반 고맙고 사랑해♡♡
25. 최예슬 하늘고 들어온 지 벌써 1년이야. 4반만큼 재미있던 반 없었어. 2학년 때도 친하게 지내고 잊지 말자, 사랑해♡
26. 최인서 4반 진짜 못 잊을 거야. 절대 서로 잊지 말자. 많이 고마웠어.
27. 한지울 2월까지 너 달 남았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잊지 말고 친구로 남자~
28. 김윤영 전학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어 가는데 정말 잘해줘서 진짜 고맙고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
29. 흥기림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4반 모두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 2학년 때도 서로 아는 척하자~

1학년 5반 반별 한마디

1. 구지윤 5반 짱 사랑해♡ 아이시페루♡
2. 김보현 5반~ 나를 믿고 반장으로 뽑아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5반 파이팅!
3. 김아연 5반♡ 하늘고 적응하느라 고생했고 이젠 공부, 놀기, 모두 잘하는 짱짱 5반이 되자♡ 우리 반 최고! love you~♡
4. 김유빈 이 반에서 항상 재밌고 즐거웠어. 지금 같이만 지내자!
5. 김하은 5반~ 처음 만났을 땐 다들 어색하고 멋쩍어 했는데, 이제는 완전 친해져서 좋당 ㅎㅎ 1년 동안 고마웠어. 1학년 5반 파이팅♡♡
6. 김현정 5반! 이제 1학년이 끝났는데 모두 수고했어! 2학년도 별 탈 없이 모두모두 잘 지내~ 5반 파이팅!
7. 김혜현 우리 5반이 있어서 짱짱 신났었어♡ 앞으로 3학년 때까지 서로 파이팅! 합시다!♡ 알럽해 자기들!!
8. 박소은 5반 너무 잘 지내줘서 고맙고 서로서로 잘 지내자.
9. 배혜연 지금까지 즐거웠어! 5반 사랑해!♡
10. 백은서 5반 1년 동안 수고했고, 내년에도 무슨 일 없이 잘 지내자.
11. 송은서 같은 반에서 지내면서 긴긴 일 년 동안 정말 즐거웠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내가 우리 반 짱 좋아하는 거 알지♡ 라뷰라뷰 하고 졸업해서도 친하게 지내자~
12. 유다솔 모든 면에서 5반이 최고임~ 사랑스러운 5반♡
13. 유수빈 분위기도 반 단합력도 좋고, 장학금도 입학식 때부터 1학기까지 제일 많이 받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어!
14. 윤소정 5반 짱짱걸들 너네가 최고야 라뷰♡
15. 이규배 5반! 같은 반으로 지내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생활하자!♡
16. 이문영 우리 반이라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반 서로 분위기도 좋고 ♪ 꼭 잘 지내자♡♡
17. 이주연 5반에서 너희와 함께라는 게 즐거웠어! 앞으로도 잘 지내자♡
18. 이하영 남은 2년 동안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벌써 고등학교 생활 3분의 1이 지났어!!
19. 이하은 우리 5반♡♡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하늘고에서 우리가 1학년 5반으로 만난 건 엄청난 lucky야! 5반왕짱★
20. 전효정 나는 우리 반 너무 좋아!♡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항상 밝게 잘 지내서 좋았어♡
21. 정혜지 1학년을 같이 무사히 잘 보낸 우리 반!!! 항상 밝은 우리 반!!! 항상 고맙고, 사랑해 애들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즐기자♡
22. 조서연 친구들! 항상 고맙고 미안해!♡
23. 최윤정 일 년 동안 나름 잘 지냈고 앞으로 더 특별하게 시간 보내자! 모두 열심히!
24. 최현정 항상 분위기 짱짱이었던반~!! 앞으로도, 평소처럼 재미있게 지내자!♡
25. 한윤지 같은 반 되어서 정말 행복했고 남은 학년 즐겁고 열심히 보내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26. 흥수지 교실에서도 보고 면학실에서도 매일 매일 같이 생활하는 5반 남은 한 학년도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1학년 5반이 되자.
27. 홍지혜 5반! 일 년 동안 즐거웠어. 앞으로도 친하게 잘 지내자. 파이팅!
28. 황지은 한 학기 동안 나름 반장이었던 내 말 잘 들어줘서 고맙고 서로 도와주고 챙겨줬음 좋겠어!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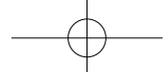


1학년 6반 반별 한마디

1. 강소영 일 년 동안 즐거웠고, 수고했어 모두들! 남은 2년도 힘내자!
2. 김덕선 2014년이 지나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 모두모두 고맙고 6반 파이팅!
3. 김락경 일 년 동안 6반이어서 즐겁고 고마운 일만 있었던 것 같아. 남은 시간 동안도 지금까지처럼 잘 지내자. 2015년도 파이팅!
4. 김민우 ππ 영영 벌써 헤어지다니 믿을 수 없어... 다들 내년 내후년에도 행운이 넘치길 바라. 너무 행복했어.
5. 김수빈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처럼 잘 지내고 1학년 6반 포에버!!
6. 김지민 이제... 2014년도 끝나가는데 다들 건강한 2015년이 되길 바라! 4기 1학년 6반 최고다!!
7. 나경미 힘들지만 즐거웠던 2014년 잘 마무리하고 기분 좋은 2015년 알차게 보내자~
8. 남윤아 벌써 1년이 지났다~ 다들 수고했고 졸업할 때 다시 모이자♡
9. 류진하 일 년 동안 너무 즐거웠고, 2015년에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1학년 6반 파이팅!!
10. 문하영 솔직히 우리 반이 짱이었다. 진짜!! 다들 미안하고 고맙고 잘 지내♡ 나 까먹지 말고~ 쌤들도 다 사랑해요♡
11. 박보영 2014년 한해를 잊지 못할 만큼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연락하자. 파이팅♡
12. 서예인 2014골렘, 2015열공, 2016성공, 2017 다시 만나자♡
13. 서정연 올해 진짜 제일 재미있었어!! 내년에도 또 만나자~♡
14. 성현지 하늘고에 와서 된 첫 반인데 너무 착하고, 밝아서 진짜 좋았어!! 고맙고 미안하고 또 사랑해♡
15. 송민지 다사다난했던 6반이었지만 올 한 해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행복했다! 평생 연락하자!♡
17. 신주화 2014년 내내 추억도 많고 즐거웠고 2015년은 더 잘 지내고 우리 모두 파이팅 하자!!
18. 양현주 고등학교 1학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πππ 정말 즐거웠고 2017년 2027년 영원히 우정 잃지 말자!!
19. 이수빈 옛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 남은 2년, 버티는 게 아닌 즐기면서 지내자! 6반 파이팅!!
20. 이은비 벌써 1학년이 끝이구나... 난 6반이 제일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고맙고 이런 나를 잘 대해줘서 고마워! 헤어지기 싫다♡ 6반 알라부♡ 1학년 쌤들도♡♡
21. 이현재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후년도 수고해야지? 애들이 돌아 돌♡격
22. 이해연 진짜 헤어지기 싫다. 우리 진짜 졸업하고 꼭 만나야해~
23. 정지윤 추억도 많고 정도 많은 6반!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까지 모두 좋은 인연 이어가자!!
24. 정하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서로 위로해주는 착한 6반 친구들!! 내년 문이과 나눠져도 6반 우정 변치 말자! 남은 2년 불태우고 2017년 예뻐져서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기 약속!! 사랑해♡♡
25. 차하은 정도 많고 눈물도 많았던 우리 6반! 벌써 헤어지는 것 같지만 동창회에서 꿈을 이룬 사람이 돼서 다시 만나!!
27. 하수빈 벌써 1년이 지났구나... 6반 잊지 못할 거야. 2,3학년도 친하게 지내자♡♡
28. 허우림 예고예고... 1년이 이렇게 빨리 끝나면 2학년은 얼마나 빨리 갈까?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

1학년 7반 반별 한마디

1. 고나영 벌써 일 년의 절반이 지나다니. 어디서 이런 조합의 반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항상 고맙고 사랑하♡
2. 고주은 일 년 동안 재밌었고 고마운 것도 많고 정말 좋았어! 나중에 커서 꼭 만나자♡
3. 김가현 걱정 많았는데 이렇게 서로 다 친해져서 너무 좋다. (이런 반 처음인 듯) 내년에도 7반 함께 해요♡
4. 김윤서 1년 동안 7반 진짜 재밌었던 것 같다 ㅎㅎ 계속 계속 잘 지내자♡
5. 김채리 정말 1학년 7반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또 있을까? 사랑하는 7반 고마워♡
6. 김하린 항상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 다들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10년 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항상 고마웠어!
7. 김하연 일 년 동안 1학년 7반에서 행복했던 순간들 많았는데, 2학년 때도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하는 우리 반 되길 바라!
8. 김한주 너희랑 같이 1학년 7반이어서 정말 기뻐어♡ 다들 고마웠고, 앞으로도 꼭 1학년 7반은 영원하~
9. 문채영 안녕 우리 반? 일 년 동안 모자란 나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지내자!
10. 박민선 어색하고 낯선 학교에 들어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힘들 때도 도와줘서 고마워♡ 1학년 7반 졸업하고 나서도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해 7반♡
11. 박소민 하늘고에서의 1학년을 너희랑 보내서 정말 재밌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 앞으로도 즐겁게 지내자♡
12. 박소현 일 년 동안 정말 고맙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반이 될 것만 같아~
13. 박영주 놀 때도 잘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7반♡ 못잊을 거야 πππ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짝짝 만나자♡
14. 서연주 사랑하는 7반! 일 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울고 웃고 ㅋㅋ!! 진짜 재밌었다~♡ 사랑해♡
15. 송경화 고등학교 첫 시작을 7반 친구들과 보내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파이팅!
17. 심하영 1학년의 꽃 7반이 짱이지♥ 너희와 같은 반이어서 정말 좋았어!
18. 안윤영 1년 동안 별일 없이 잘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 학교 처음 들어와서 힘들 때 서로 위로해 주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도 좋아♡
19. 안혜민 7반 아이들아, 어른이 되었을 때 각자가 원하는 꿈을 이룬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20. 오현지 1년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아.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처럼 밝게 웃으며 만났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사랑해♡♡
21. 이수빈 일 년 동안 내 별명을 잔뜩 만들어낸 7반 친구들아! 그래도 너희 덕에 이 학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
22. 이유민 너희랑 함께 한 시간은 평생 갖고 갈 기억인 듯♡♡ 나중에 커서 꼭 만나자~
23. 이은비 하늘고 들어와서 처음 반이 1학년 7반이어서 진짜 행복하고 재밌었고,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2학년 때도 친하게 지내자!:)
24. 이정은 내가 그동안 짜증 많이 낸 것 같은데, 모두에게 미안하고 민희쌤 반 아이들로서 7반으로서 잘 살아보자 ㅋㅋ 사랑해♡
25. 이지원 애들이 1년 동안 정말 즐거웠어! 그리고 고마웠어. 우리 2학년 때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26. 전정은 정말 잊지 못할 1학년 7반이었어! 너희들과 함께 해서 고맙고 즐거웠어.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자♡
27. 정다현 처음 들어왔을 땐 걱정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친해져서 너무 좋아♡ 7반 엄청 그리울 것 같아 πππ 커서도 연락하자♡
28. 정유연 7반! 함께 보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 7반은 어떻게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앞으로도 잘 지내자.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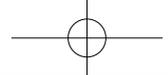


1학년 8반 반별 한마디

1. 강다영 부반장 말 잘 듣자♡
2. 김기림 8반 너무 재미있었어~^^ 커서도 꼭 연락하며 지내자~
3. 김두리 우리 8반 남은 학기도 훈훈하게 살자~^^ 스름흔드♡
4. 김선민 8반 너무 좋아♡ 사랑한다 우리 애기들♡
6. 김세정 내 고등학교 1학년을 즐겁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ㅎㅎ
7. 김세희 앞으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웃으면서 남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살찌지 말자 --
8. 김수현 항상 행복하고 너희들의 앞길에 기쁨만이 가득하길~
10. 김유경 항상 피곤하지만 재미있게 살자!
11. 김찬미 8반 모두가 세상을 좀 더 의미있게 하는 존재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12. 문 빛 남은 시간 더 잘 보내자 ^^ 알라봉~♡
13. 박정연 진짜 우리 반 애들 다 한 명 한 명 뽀뽀해주고 싶을 만큼 개성 있고, 모든 면이 너무 좋다. 너희들이 제일 좋다.
14. 백윤진 항상 웃으면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면서, 언제나 노력하는 1학년 8반 되길^^
15. 송지영 건투를 빈다, 친구들아~~ 1년간 너무 재미있고 수고했어!!
16. 송해영 고등학교 1학년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헤림쌤 고맙습니다♡
17. 위하영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너희가 되길..♡
18. 이세린 8반, 3년간 모두 친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자♡
19. 이소정 첫 고등학교 1년을 같이 보내서 너무 즐거웠어♡ 헤림쌤과 8반 아이들! 영원하자~
20. 이지현 2년 뒤에 서울대에서 봐 애들아^^ 1학년 8반 다 서울대 갈 거 아님?!?
21. 이채린 1학년 8반 귀요미들~♡ 우리 평생 동창회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성은이도!!
22. 이태림 1년 동안 수고 많았고 남은 학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자!!!
23. 이현지 고등학교 3년 즐겁고 알차고 후회 없이 보내자!~♡
24. 임수현 8반 친구들아~ 일 년 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8반 Forever:)
25. 정나리 8반 일 년 동안 즐거웠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하시고 생활하자. 알람♡
26. 정다혜 행복하고 재밌게 살자.
27. 최영산 사람답고 인간답게(?) 인정 많고 예쁘게 살자♡
28. 홍유라 끝까지 웃으면서 살자♡

2학년 1반 반별 한마디

1. 김길재 1반이 짜세지~
2. 김도현 평생 잊지 못할 1년을 만들어준 1반 남은 1년 열심히 하자!!
3. 김민성 문과 3반 중에 제일 분위기 좋은 우리 반! 앞으로 남은 기간 계속 지금까지처럼 친하게 지내자~
4. 김민재 내게 합반이라는 새로운 환경, 추억을 준 1반. 수능 대박 나고 졸업할 때 웃으며 보자!
5. 김준한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우리 1반,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잊지 못할 거 같다.
6. 노성준 1반, 단순히 한 교실이 아닌 같은 시간을 공유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 모두들 행복하길.
7. 여평기 아마 하늘과 역사상 유일한 합반일 듯한 2014 문과! 앞으로 다들 후회 없이 남은 수험생활하고 웃으며 졸업하자.
8. 이민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1반! 앞으로도 기억에 남는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ㅎㅎ
9. 이주형 몇 살에 다시 만나건 간에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할 올반, 사랑한다~
10. 이태현 커서 보충 빼고 모든 연락 환영.
11. 임창현 돌이켜보면 좋은 기억만 남은 1반. 다들 원하는 대로 이뤄 갔으면 좋겠다~!
12. 허 준 미술 때도 없었고 뭐 1년 내내 행복했음 :) 이거 볼 때면 고3...ㅋㅋ 흥하자 2014 201!
13. 강지수 미술 때도 있었지만 항상 고마웠던 우리 반. 우리 모두 서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14. 고우림 우왕. 양념 반 후라이드 반 1반. 항상 하는 모든 일 잘 되고 잘 풀려서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15. 구정연 말마따나 글마따나 필요있나. 2-1 그냥 최고 ㅎㅎ
16. 김민아 2014년 하늘고 2학년 1반! 우리 모두 수능 대박!!
17. 김소연B 1반 짱짱맨
18. 김찬희 ♡
20. 박민경 정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거야. 함께 웃으면서 지난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미래의 어느 날이 기다려진다:)
21. 서한나 너희들과 한 반이어서 행복했고 감사했어~ 모두들 어느 자리에서든 사랑받는 사람이 돼라♡
22. 신재림 항상 고마웠고 남은 1년 잘 보내자!♡
23. 윤예린 처음에 합반 한다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깐 더 좋고 재밌는 것 같아!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2016년도 수능 대박!!
24. 이지원 항상 기억될 2-!!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 되길!
25. 이진솔 거의 4-5년 만에 처음 해보는 합반이라 걱정했는데... 분위기도 좋고 다들 성격도 좋아서 같이 지내는 동안 정말 최고였어! 2014학년도 2학년 1반 짱♡ 모두들 수능 대박! <
26. 이채은 너희와 함께여서 즐겁고 소중한 1년을 보낼 수 있었어. 고마워♡ 반창회 꼭 하자ㅋㅋ
27. 임해경 우리 나중에 동창회 때가 기대된다! 정말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어!! 1반은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반 되어도 모른 척하기 없기 ^^
28. 최미나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많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좋아여! 1반 짱짱♡
29. 최소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합반이 된 거라 걱정했는데 너무 좋은 반이어서 행복했어.
30. 방관익 1년 동안 재밌었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문과 오기 잘 했다.
31. 김경태 처음에 걱정 많이 했는데 1반으로 온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2학년 1반 파이팅!



2학년 2반 반별 한마디

1. 강병현 참 고마운 1년이었어 ㅋㅋ 서로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는 것 같다!! 2반 만세~
2. 강병훈 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청소로써 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았던 고2~
3. 고승재 지난 시간 동안 영원히 잊지 못할 여러 즐거움을 맛보았지. 고맙다. 2-2 모두들
4. 김경오 2-1, 2-3 이었으면 1년이 힘들었을 것 같다. 우리 반이 짱임 ㅋㅋ
5. 김경찬 힘들 것 같던 고2 시절의 박카스 같은 존재의 2반 사랑해요~
6. 김민성 처음엔 내가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ㅋㅋ 남은 시간 지금처럼 찰지게 보내자!
7. 김정근 합반 참 힘들지만 나쁜진 않았다.
8. 송솔빈 우리 반 시너지 효과 좀 쪼는 듯 ㅋㅋ 완전 잘 맞는 것 같아. 즐거웠고 우정 변치말자!
9. 송용현 언제나 활기차고 잘 웃는 2반!
10. 이익준 역시 2반! 인제가 넘쳐나는 1년이었어.
11. 이재하 문과반 중에서 우리 반이 짜세인 듯 ㅋㅋ
12. 임세환 언제나 포텐 터지는 2반이어서 맨날 재미짐 ㅋ
13. 강희구 처음엔 걱정했는데 진짜 재밌다 ㅋㅋ 앞으로 더 재밌는 추억 많이 쌓자 :)
14. 김다영 활기찬 2학년 2반. 고3 되고 졸업해도 아는 척 하자!
15. 김성은 2반이어서 1년이 더 즐거웠던 거 같아. 2반이 짱인 듯♡ 모두 고맙다.
16. 김소현 하늘고에서 합반이라는 기적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 반 ㅋㅋㅋ 자랑스럽다♡ 재밌고 좋았고 고마웠당~
17. 김은별 합반이러서 더 좋은 2학년 2반, 서로 너무 솔직해서 더 좋음♡ 짱짱맨 2-2
18. 김지예 2-2 분위기 좋음. 가끔은 조용하고 가끔은 활발해서 참 조오다.
19. 박미리 내가 꿈꾸던 '뚜룩뚜룩'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지만... 이제야 좀 공학 같긴 함!
20. 박소연 진짜 2반이 짱인 듯
21. 박소영 짱짱 합반 2반! 앞으로는 서로에게 좀 수줍어하자 ㅋㅋ 찻든 2-2 짱!
22. 신정음 하늘고에서의 합반이라 어색할 것 같았는데 아직도 그럴긴 하지만. 진짜 재밌었다!
23. 이채복 처음엔 서로 많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좀 스스로없어져서 좋다! 내년에도 합반 고고!
24. 전경린 2반! 생각보다 기억에 남을 일이 많았네. 끝까지 가자♡
25. 정진아 우리 2-2, 틱틱 거리다가도 서로 챙겨주는 매력쟁이들!
26. 조윤지 문과 짱짱반 2반♡ 우리 반 매력 포텐 터지는 반♡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했다~ 고마워 202♡
27. 지가은 매일 티격태격 거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심동체가 되었던 2반! 이런 2반이어서 더 좋았어.
28. 한영선 쓸 말이 진짜 없다... 뭐, 모두와 같은 생각 + 느낌이랄까...?
29. 홍인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2반 우리가 짱이지 :-)
30. 이예주 한 달 늦게 입성했지만, 지금은 완전한 2학년 2반인 게 좋아^^ 2반이러서 더 적응 잘한 것 같아.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2학년 3반 반별 한마디

1. 김보성 아자아자 파이팅!! ^^
2. 김종찬 남은 학기 잘 보내자~
3. 문효경 2 : 2학년 즐거웠고 / 학 : 학교생활 힘들게 건던 만큼 1년 뒤에 / 년 : 연고대는 물론 서울대도 갈 수 있기를! / 3 : 3반 친구들아! / 반 : 반드시 원하는 목표 이뤄서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길...
4. 박범석 3반! 10년 뒤에도 만나자! 같이 모여서 옛날 얘기 했으면 좋겠어. 서로 도와주고 연락하면서 지내자!
5. 박영호 2학년 3반 좋아요!
6. 박찬우 아자아자 파이팅!! ^^ 2학년 3반 다시 최고의 반으로 도약하자!!
7. 백승하 모두가 꿈을 이루기를! 히든카드 fighting!!
8. 손동찬 활기참 하나는 딸! 2-3 보기 좋다.
9. 윤건우 남은 시간도 함께 잘 지내보자. 반장인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
10. 이창현 2학년 3반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11. 정경욱 친하게 지내자!
12. 황준희 고마웠다. 사랑한다.
13. 구민수 2학년 벌써 끝나가는데 그동안 재밌었고 남은 하늘고 생활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원하는 대학으로 가길 바라!
14. 구지은 우리 반이 짱이지! ^^
15. 김경민 우리 반은 재수 없다!
16. 김지희 2학년 3반! 처음의 어색함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진짜 친해진 거 같아서 너무 좋음! 남은 시간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놀면서 추억 많이 만들자~ 파이팅!
17. 김혜미 우리 다 같이 만난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네.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 재미있고 알차게 보내자~♡ 우리 놀러가기 가는 거지? ㅋㅋ
18. 김혜주 정말 재밌고 활기차고 밝은 3반 너무 좋다! 남은 시간 아직 안 뒤집은 카드 다 뒤집어 보자!
19. 라유미 가장 즐거운 3반! 우리 남은 학기 재수 없게 파이팅하자♡
20. 민현경 3반 완전 즐거웠고 고마움!! 남은 시간 더 즐겁고 친하게 지내자 ^^
21. 박소정 히든카드 3반!! 한 학기동안 고생 많았고 남은 시간도 힘내서 항상 웃는 우리 반 되자!
22. 박지우 3반!! 내년에 2호선에서 함께 만나자! 그리고 다같이 한 번 올해 놀러가자!
23. 박해민 버린 카드에서 히든카드가 된 3반! 그동안 즐겁게 잘 지내서 좋았고, 내년 11월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각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24. 양한비 학기 초에 제일 조용해서 걱정 많던 반이었는데 어느새 히든카드로 변모한 2학년 3반! 자랑스럽다♡
25. 윤희진 초등학교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남녀 합반... 힘들었지만 남은 시간도 잘 돌아가길!!
26. 이은서 벌써.. 한 학기가 끝나고 짧디 짧은 2학기네.. 최고반인데 아직 못 친해진 애들이 많아 아쉽기도 하다! 3반 영원히 행소하자♡
27. 임애린 이제 한 학기도 채 안 남았는데 같이 힘내서 꼭 내년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자! 다들 고맙고 더 잘 지내고 친해지자 ㅎㅎ
28. 최윤미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히든카드의 진면목을 보여주자! 파이팅!
29. 박예리 가장 분위기 좋은 3반! 3반이라 좋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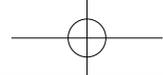


2학년 4반 반별 한마디

1. 고승규 단합력만큼은 우리 반이 최고였다. 남은 일 년 동안에도 잘 지내보자.
2. 고영재 일 년 동안 노잼이라 미안했고, 너희들 덕분에 즐거웠다. 앞으로도 잘 지내자.
3. 구건모 2학년 들어서 항상 즐거운 추억들 밖에 안 남은 것 같다.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4. 김대희 짐승들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짐승들의 집합소 2학년 4반 사랑한다! 그리고 고3 생활도 열심히 공부하자~
5. 김도훈 영재야 미안하면 내년엔 웃겨줘. 그리고 완상이가 이상한 말 하는데 영재야 부탁해..
6. 김용호 일 년 동안 재미있었고 3학년... 조금만 더 참고 제대로 짐승같이 놀아보자.
7. 김지운 와 이제 점심 1등이다.
8. 노주원 벌써 일 년 남았네...
9. 문경덕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네. 일 년 동안처럼 앞으로도 잘 지내자
10. 박세웅 좋은 지구과학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서동우 일 년 동안 정말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아. 남은 일 년도 잘 지내자.
12. 안성준 일 년 동안 애들이 모르는 거 승규한테 물어볼 때 못 본 척 하느라 힘들었다. 앞으로 나한테 오자!
13. 안진홍 모두들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14. 우진영 이렇게 활발한 반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ㅋㅋ 다들 고맙고 내년에 뽀세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자!!
15. 이도학 암 걸리는 줄 알았다. 짐승들이 사랑해.
16. 이승희 너무 재미있었지만 영재랑 원명이가 괴롭혀서 힘들었다.
17. 이완상 나는 재미없지 않다.
18. 이원명 이렇게 체육 잘하는 반 처음 만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내년에도 잘 지내자.
19. 이종욱 일 년 동안 즐겁게 보냈다! 내년에도 잘 지내자!
20. 이호준 2학년 동안 4반 덕분에 재미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도 재미있게 지내자.
21. 이화준 즐거웠다. 성공해서 보자!
22. 이희우 일 년 동안 솔직하게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 일 년 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23. 정우성 일 년 동안 재미있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 남은 2학년의 생활도 좋은 추억 만들면서 보내자!
24. 정찬호 일 년 동안 재미있었고 3학년도 즐겁게 학교생활 하기 바라~
25. 최지훈 놀 땐 놀고 할 땐 하는 4반! 일 년 뒤에 좋은 모습이기를~

2학년 5반 반별 한마디

1. 감지웅 우리 반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해서 공부도 단합도 최고의 반이 되자! 남은 1년 반 파이팅!
2. 공성호 누구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2학년 5반이 되자! 파이팅!!!
4. 김기환 한 학기 남았네. 나머지 시간도 언제보다 열심히 살아보자~
5. 김상건 오리걸음도, 어그로도, 축구도, 공부도 1학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5반이 되어 다들 대학가자!!♥
6. 김수민 2학년 5반! 남은 학기동안 활기차고 재밌게 지내자!
7. 김중수 벌써 1학기가 지난 게 너무 아쉽다. 영원히 기억될 반으로 2학기도 알차게 보내자!
8. 김태원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반 년 동안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2학년 5반이 되자!
9. 김태훈 내년에 보자. 2학년 5반 아자아자 파이팅!
10. 류상준 진정한 싸나이들의 이야기. 하늘고의 전설이 될 2-5 파이팅!!
11. 박건우 사랑해
12. 박동환 <2-5>의 조합은 하늘고 최고인 것 같다. 2학년 5반 파이팅!
13. 박승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14. 박준호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 있다! 2학년 5반 파이팅!!
15. 방건호 원하는 대학 가서 보자! 2학년 5반 파이팅~
17. 서형석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2-5 파이팅!~
18. 성민석 1학기 때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2학년 5반 파이팅!
19. 이영준 2학기 동안 단합 잘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 났으면 좋겠어!!
20. 이주영 2학기 마치고 다 같이 웃으면서 고3 되자. 파이팅!
21. 전우진 2학년 5반은 최고의 반이닷!
22. 정경환 소수정예 2학년 5반 내년에도 열심히...
23. 정희룡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쌓자! 2학년 5반 파이팅! 오리걸음 파이팅!
24. 조해원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더 열심히 하자 2-5 fighting!
25. 허준명 현영쌤과 함께 하는 즐겁고 유쾌한 5반이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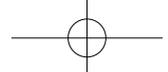


2학년 6반 반별 한마디

1. 강재연 우리 반은 반장님이 발차기로 지켜준다!!
2. 공기문 공기문에게 밥 한 공기문 주세요.
3. 김상현 전 2학년 6반의 힙합의 중심이 아닙니다.
4. 김성찬 1년 뒤에 나 멋있어질 거야 진짜. 살도 뺄 거야.
5. 김세열 2-6이 제일 졸잼 ㅋ 털ㄴ업
6. 김지윤 난 상현이와 양대산맥, 너를 본 내 손모양도 산뒀(山)
7. 김태인 조싸. 그만 좀 사달라고 해. 돈 없어 임마.
8. 문지원 6반에 올라타 내 남자친구 반보다 더 잘나가지. 털ㄴ업
9. 배범준 저는 눈이 부셔요.
10. 손원태 2학년 6반 친구들아, 모두 잘 되어서 만나자~
11. 신형섭 The end
12. 안해인 지1 개꿀
13. 옥수민 내 필통 ㅠㅠ
14. 윤지휘 멍하게 다니지 마라
15. 이건민 공부하자 애들아
16. 이경호 석식 노답
17. 이승연 지금까지 이승연을 이용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8. 장재호 6반 고마웠다. 파이팅!
19. 전기호 우리 반, 수많은 보석들과 같지. 그중에 난 원석.
20. 조승현 우리 반에는 졸보가 한명 있습니다.
21. 조형용 2학년의 원석 6반
22. 조형조 6반 만족 담당
23. 천의범 수박을 초초초초초초 초 잘라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24. 최민주 2학년 6반 나중에 다같이 성공해서 만나~

2학년 7반 반별 한마디

1. 강석희 대세는 2-7이다! 놀기도 잘하고 단합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우리 반 너무 좋다 ㅎㅎ♡
2. 고승희 Pretty Lee 지혜쌤과 함께 하는 7반! 뭔가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좋음 :D
3. 구희경 우리 7반은 태초부터 다르다! 공부 잘하는 특해! 수학 1등반인 우리 반 자랑!
4. 김나래 하늘고 최강 생물 지혜쌤과 아이들!!! 2학년 7반 된 거 정말 만족!!
5. 김서현 우리 반 재미있어서 너무 좋아 X 나의 하늘고 활력소 2학년 7반, 사랑행♡
6. 김소연A 우리... 치킨 먹을 수 있을까?.. ㅋ ㅋ 우리 올해 안에 꼭 지혜쌤's 치킨 먹자 ㅋ ㅋ ㅋ
7. 김은비 잉어킹 지혜쌤과 함께 하는 망둥어 2학년 7반 종합 어류세트 구성 짱짱 좋음!! 무결점 2학년 7반 사랑해♡
8. 김지영 이과 여자반 申 2-7반!! 많이 아낀다잉~ ㅋ ㅋ 2학년 7반 짱♡
9. 김지원 우리 7반이 가장 짜센 거 알지 ㅋ ㅋ 2학년 7반 화이또 ㅋ ㅋ
10. 박다정 함께 하면 항상 즐거운 7반!! 우리 반 너무 좋아 ♡_♡
11. 박수현 학기 초부터 다사다난 했지만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어♡ 207 forever♡
13. 박예빈 한 마디나 필요 있나? 그냥 우린 필승 전승 압승!!
14. 백지원 7반이 짱이다 ㅎㅎ♡ 평생 함께 하자 ㅋ ㅋ!!
15. 복지현 각자마다 개성 넘치는 2학년 7반! 사랑해♡
16. 신가는 내년에도 같은 반 고고생! 열공 뽀공 즐공 하자 7반!!
17. 신정은 진짜 2학년 7반이 제일 재밌음! 공부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하는 2학년 7반 항상 파이팅♡
18. 윤다영 항상 활발하고 기운 넘치는 2학년 7반!! 앞으로도 많은 추억 만들면서 잘 지내보자~^^
19. 이다슬 7반이 짱짱♡ 아프지 말고 남은 시간도 잘 지내보자~♡
20. 이소희 2학년 7반 대다나다♡ 앞으로도 많은 추억 만들어가자 ㅎㅎ
21. 이수빈 2학년 7반! 같이 있으면 즐겁고 기분 좋아짐♡ 내년에도 이대로 가고 싶다 ㅠㅠ
22. 이연정 2학년 7반이라서 신난다 ㅋ ㅋ 각자 다 재밌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아. 우리 반 파이팅!!
23. 이정은 27은 좋은 숫자다. 30-3=27이고 3의 3승= 27이고. 오!! 그래서 2학년 7반이 좋다.
24. 이태경 항상 활기차고 잘 놀지만 공부도 풀리지 않는 7반 최고! 앞으로도 더, 더, 열심히!
25. 임연진 모두가 매력이 넘치는 2-7 망둥어들아~ 우리 계속해서 행복한 7반을 만들어가자♡
26. 조성연 서로 위해주고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는 7반! 남은 학기도 잘 놀고 열심히 공부하자!
27. 조은지 lim(n이 2-7로 갈 때)n=♡ 최강의 멤버구성 2-7은 진리!
28. 주지연 2학년 7반으로 고등학교 생활 일 년을 추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ㅠㅠ 사랑해 애들아♡
29. 최해재 우리 2학년 7반 너무 좋다♡ 조금만 더 힘내자! 파이팅~
30. 한혜진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7반♡ 2학년 7반 모두 사랑해♡
31. 김채린 이과가 수학 1등이면 말 다한 거 아님? 놀 땐 놀고 단합도 최강인 7반♡ 전과 후회 안 하게 해줘서 진짜 고맙고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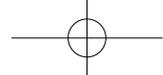


2학년 8반 반별 한마디

1. 강지우 이과 최강 8반! 활기찬 분위기 그대로 남은 학기 잘 보내자 ㅎㅎ
2. 김문주 전화번호 안 바꿀 테니까 꼭꼭 연락해라잉♡ 사랑해 2학년 8반.
3. 김지영 아... 2학년 8반 뭐지? 뭐야! 넘 좋아 흐허허형. 애들이 좋아해 :-)
4. 김지우 208 짱짱.
5. 김채원 208! 남은 기간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6. 김초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끝장 최강 8반! 지금까지 함께여서 행복했고 남은 2학기도 겁나 재미지게 보내자♡♡
8. 김혜연 이과 최강 여신 208! 남은 한 학기도 즐겁게 보내자♡
9. 류승주 2학기도 우리 반 모두 힘을 합쳐서 좋은 추억 만들자!
10. 박희진 잊지 못할 거야! 2학기도 즐겁게 보내자! 대박나세요 2학년 8반~
11. 백명원 남은 시간 동안 더 재밌고 좋은 추억 만들자!
12. 손채연 208 영원히 흥하셈! 파이팅!
13. 안지우 사랑하는 이과 최강 반 208!! 한 학기동안 즐거웠구 남은 시간에는 추억 더 많이 쌓자♡
14. 위인미 2학년 8반 너무 즐거운 한 학기 보냈으니까 남은 한 학기도 재밌게 보내자!!
15. 유지영 이과 최강 이쁜이들 그동안 진짜 고마웠고 사랑해♡ 연락해~!!
16. 유지우 우리 반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남은 시간들도 알차게 보내자 ♡
17. 윤예담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2학년 8반♡이 되자♡
18. 윤화진 8반이여서 행복했던 1년! 앞으로도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19. 이수진 우리 모두 한국사 볼 일 없도록 파이팅 하자♡
20. 이영주 사랑하는 이과 여신 2학년 8반! 남은 시간도 같이 맛깔나게 보내자!
22. 이예진 208 귀요미 여신님들♡ 사랑하고 남은 시간도 우리가 다 정복하자)(
23. 이유진 최강 이과 208! 남은 학기도 장난 아니게 보내자♡ 사랑해
24. 이정인 공부면 공부, 놀기면 놀기, 뭐하나 흠 없이 다 잘하는 우리 반 덕분에 많이 웃고 즐거웠어♡
25. 이채빈 말이 필요 없는 8반이지! 너희와 함께 해서 정말 행복하고 우정해~♡
26. 이현주 남은 시간도 파이팅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27. 임수빈 사랑하는 2학년 8반!! 그동안 진짜 재밌었고 남은 2학기도 잘 보내자♡
28. 임채현 이과 최강 208!! 남은 시간도 까리하게 ㅋㅋ♡
29. 정유진 사랑하는 8반. 항상 응원하고 아낀다.
30. 정혜영 2학기에든 재미지게 보내자. 파이팅!

3학년 1반 반별 한마디

1. 권재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일 년은 똑같이 흐른다.
2. 김남훈 기회는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3. 김다찬 채빈아 파이팅!!
4. 김대호 유패드 파이팅!!
5. 김민광 학교에서 롤하면 망한다!!
6. 김민재 1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힘내자.
7. 김백호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8. 김영빈 후배님들 열심히 하세요~
9. 김정원 행복해~ ㅎㅎ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10. 김태운 대학은 이과가 잘 간다.
11. 김태현 정시에 올인하면 안 된다.
12. 김학균 모의고사에 일희일비 하지 마라. 너희의 성적은 수능날 결정된다.
13. 민경훈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야.
14. 박수빈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만들어라.
15. 백승준 백승훈 공부 열심히 해라
16. 서창민 무엇이든 열심히 하세요~
17. 신용섭 내가 예체능이다.
18. 안제희 welcome to Australia~
19. 염승주 털~업! music is my life!
20. 이병욱 노력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을 했대요.
21. 이홍희 다들 힘내라.
22. 임승환 하늘고 사랑합니다. 다해 파이팅!
23. 임채훈 나는 개잘생겼다.
24. 장동욱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25. 전용익 진심 공부 열심히 해라.
26. 정민혁 내일을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27. 정현철 유패드 파이팅!!
28. 조성철 공부, 운동 모두 열심히!!!
29. 최대훈 학교 노잼이다. 나가면 재밌다.
30. 최수혁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해라.
31. 최재우 잘하는 것을 찾아라.
32. 탁현창 사랑은 열린 문이다.
33. 하현구 먼나라 이웃나라 중국
34. 한규민 내년 이맘때쯤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하고, cielo, 미상 파이팅!!
35. 홍예찬 공부 열심히 해라!
36. 황선휘 후회 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방송부 특히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



3학년 2반 반별 한마디

1. 강규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생각나는 하늘고 2기 되길 ^^
2. 강노을 그동안 고마웠어 :D
3. 강유리 다들 그동안 수고했고, 연락 계속하자♡
4. 권솔희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졸업하길 바라~
5. 김고경 꼭 연락하자. 사랑해♡♡
6. 김민경B 애들이 잘 지내~ 안녕!!
7. 김민지 애들아, 가끔 연락하고 나중에 꼭 보자♡
8. 김보민 다들 수고했다~ 나중에 지나가다 만나면 다들 꼭 아는 척 하자♡
9. 김성민 파이팅!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길...
10. 김이영 :D 졸업해서 모두들 행복해지길 바랄게~
11. 김지윤 다들 3년 동안 수고했다. 다들 잘 지내길~
12. 김하늘 3학년 2반 애들아♡ 1년 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장~!
13. 박진현 항상 후회 없게^^ 대학생들도 재밌게 잘하자♡
14. 봉수지 고생했고, 또 보자!
15. 서예린 수고했어 다들! 어딜 가든 항상 열심히 하던 우리 모습, 유지하자!
16. 손아영 연락해^^ 난 언제나 시간 남아~♡
17. 신지영 애들아, 잘 지내고 꿈을 꼭 이루길 바라!!
18. 심정인 보고싶을 거야ㅠㅠ 원하는 꿈 꼭 이뤄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
19. 심지현 우리 모두 수고했어, 고생했어 ^^
20. 오현지 졸업할 때 울 것 같다... ㅠㅠ 애들아 보고 싶을 거야. 꼭 연락해라..♡
21. 유수민 다음에 꼭 보자♡
22. 이선경 애들아 사랑해. 말이 필요 없음♡
23. 이인우 3년 동안 수고 많았어 친구들 :D 연락하자!!
24. 이지원 모두 수고했고 꼭 모두 잘 돼서 언젠가 다시 만나자 :)
25. 전해준 다들 수고했고 연락 자주 하자~
26. 최지유 항상 후회 없는 하루하루 보내길 바랄게♡
27. 한영주 다들 잘 지내~ 보고 싶을 거야~
28. 허민희 다들 수고 많았어~ 잘 지내!! ㅎㅎ

3학년 3반 반별 한마디

1. 고혜원 고3은 시간이 참 빨리 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거라~
2. 구희연 난 떠난다. 학교 잘 지켜라.
3. 김민경A 남은 기간 열심히. 즐겁게 보내고, 대학교에서 보자~
4. 김아연 끝까지 힘내고! 할 수 있어!
5. 김예솔 안녕 애들아, 열심히해 ^^
6. 김지호 사랑하는 후배들,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7. 민사회 이 시간만 견디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8. 박지연 후배들 ㅎㅎ 파이팅 ♥
9. 박혜진 안녕 후배들~ 항상 응원할게~^^
10. 변예린 힘내!! 조금씩 하다보면 어느새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11. 송채연 안녕, 애들아! 수능 끝나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공부하렴♡
12. 안소현 끝까지 열심히 하자! 파이팅!
13. 안하영 애들아! 시간 후딱 가니깐 힘내!! 파이팅~
14. 유승희 공부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 지나면 별 거 아니니깐 걱정하지마.
15. 이다영 애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시간 진짜 빨라 ㅠㅠ 힘내!
16. 이시은 고3은 KTX~ 모두 잘 달려라! 빠샤~
17. 이예지A 앞으로 겪을 많은 일들도 힘차게 파이팅!
18. 이유나 모두들 수고했고 앞으로도 더 파이팅 하자 ㅋㅋ
19. 이재운 안녕 후배들. 잘있어.
20. 이지예 잠만 안 자면 고3은 성공한 거야. 파이팅!!
21. 이한이 일 년만 하고 끝내자! 길게 끌지 말고~
22. 임지은 후회 없는 일 년 보내기를! 응원할게~ 파이팅♡♡
23. 전소연 안녕! 1년만(2년) 열심히 하면 놀 수 있어 힘내!!
24. 정유민 난 유민상이야 ㅎㅎ 모두들 아이시떼루~♡
25. 주인해 힘들지만 일 년 금방 가~ 파이팅 3기!!
26. 표수진 힘내렴. 나와 함께 하자. ㅠㅠ
27. 허정연 안녕 후배들아 후회 없길 바랄게. 힘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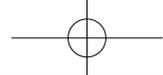


3학년 4반 반별 한마디

1. 강동혁 고3 끝까지 파이팅!
2. 강호형 여러분 지구과학이 표정이 좋아요.
3. 구희성 희경아 1년도 안 남았네. 잘하던 대로 힘내자!
4. 김건주 정말 값진 하늘고 3년 즐거웠습니다.
5. 김동후 모두들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파이팅!!
6. 김상원 3학년은 수능이 제일이다.
7. 김준일 수고하세요.
8. 박기석 좀만 더 노력해서 꿈을 이루자.
9. 박민수 축하한다 경운아 ~ ^^
10. 배승욱 힘내.
11. 상희석 좋은 소식 있길 바라~
12. 손동재 나는 키가 크다.
13. 송영우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14. 송진우 한 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15. 여 찬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16. 오웅렬 후배 여러분 좋은 결실 맺으세요.
17. 오준규 난 귀여운 선배야.
18. 유병진 체력이 중요.
19. 이승렬 힘내! 좋은 결과 있기를!
20. 이 훈 3년 동안 수고 많았고. 대학 가서도 자주 만나자!
21. 임성준 임하연 2년만 힘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결과 잘 나올 거야~
22. 정경운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것을 이뤄
23. 정민석 HTTP 파이팅! 수능대박!
24. 조은상 난 도서부였다.
25. 최강민 모두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렴!
26. 하혜관 애들이 롤 하면 망한다
27. 허근태 ㅋㅋ 열심히 해 ㅋㅋ
28. 홍경태 2015 수능은 수학이 어려울 듯

3학년 5반 반별 한마디

1. 가웅현 열심히 해라
2. 김경환 3-5 지킬 건 지키자! 도박은 인생의 낭비다!
3. 김명진 조금만 힘내고 수능 잘 봐.
4. 김우주 고3 힘들지만 꿀잼~
5. 김정환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즐겁게 하루하루를 즐기기를~
6. 김창준 3기 파이팅!
7. 김태욱 수시 꼭 써라~
8. 박현범 잘 지내.
9. 소준석 3학년 5반 turn up!!
10. 신동기 고3 힘들지만 시간이 금방 가니 열심히 하자~!
11. 신희준 고3 너무 부담 갖지 말고,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면 힘 빠지니깐 쉬엄쉬엄 해라.
12. 안건주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한테 특별한 날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좀 해라.
13. 안동선 열심히 해
14. 안민규 수고해라. 1년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15. 안현수 안녕 공부 열심히 하렴
16. 양혜성 선택과목은 수능 볼 때까지 유,불리 모르는 거다.
17. 오대산 수능 대박 나라!
18. 오승찬 공부하자.
19. 이규철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20. 이범우 수시 짱!
21. 이승일 열심히 살아
22. 이재웅 고백 환영
23. 임재현 공부에 매달리지 말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
24. 정현수 하늘고 2기 모두 수고했고 3기들 열심히 하자
25. 최성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실패 해도 후회가 없어.
26. 최태욱 공부 열심히 해
27. 한상철 쉬면서 공부해. 수능 대박!
28. 황인성 안 되는 놈은 해도 안 된다.



3학년 6반 반별 한마디

1. 공효식 사랑합니다
2. 구민석 대학은 수시입니다
3. 김민관 안녕히 계세요
4. 김재영 평생가자♡
5. 김주연 모두들 3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늘고 3기 파이팅!
6. 민경태 시간 빨리 간다.
7. 박장호 시간 빨리 가니까 열심히 해
8. 박지원 수고했어요.
9. 박태준 선생님들 감사했습니다.
10. 손유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면 성공한다!
11. 안용우 인생은 수시다.
12. 오현택 수능이 전부가 아니다~ 일기나 써!
13. 이상범 힘내라 3기!
14. 원종범 힘들어도 버티면 결과가 나온다.
15. 유웅진 내가 돈 벌어서 이 학교 산다.
16. 이동환 녹록한 눈은 어느새 녹록한 곡으로 뒤집혀 새 눈이 되길 기다립니다.
17. 이명상 수능 잘보세요~
18. 이재철 힘내 후배들아 금방 끝나~
19. 이정현 하늘고 대박나자 파이팅!!
20. 이충현 연수 잘 챙겨라.
21. 이현웅 공부 안하면 나처럼 재수한다.
22. 전재완 루미난트 3기 파이팅!
23. 전현구 자나깨나 탐구공부!
24. 정범욱 눈이다~!! 눈이다!!!
25. 정승원 자유인이다!
26. 조건흠 하늘고 파이팅!
27. 조동현 ㅎㅎ
28. 조성환 후배들아 사는 거 별 거 없단다. 남은 학창 생활 1년 열심히 보내렴 ^^

3학년 7반 반별 한마디

1. 김문주 졸업하고도 다 연락하고 잘 지내자!
2. 김예영 졸업해도 연락하기 꼭★
3. 김우정 라면은 기숙사가 제 맛 ㅋㅋㅋ
4. 박지영 잠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
5. 설성심 후배들~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
6. 송민주 우리 계속 연락하자 보고싶을 거야 ㅠㅠ
7. 양세영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하고 잘 지내자
8. 유다금 다들 보고 싶을 거야~
9. 이가연 지금 너의 생활을 최대한 즐겨라!
10. 이선명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변하자! 잘 지내!
11. 이소연 계속 연락하자~! 잘 지내 :-)
12. 이수정 돌아봤을 때 후회 없도록 노력하기를!
13. 이예지B 행복하게 살자!
14. 이우정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진심임.
15. 이해리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16. 임소진 졸업하고도 연락하고 지내자!
17. 전이정 지금 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자~!
18. 전체린 졸업하고 모두 잘 지냈으면 해.
19. 조현정 졸업한 뒤에도 잘 지내자~
20. 지선영 보고 싶을 거야. 계속 연락하며 지내자.
21. 최예지 졸업하고도 사이 잘 이어나가자~
22. 최은지 졸업하고도 잘 지내자!!
23. 최주희 다들 열심히 살고 졸업 후에도 꼭 연락해 다 받아줄게(문이과 무관함^^)

3학년 8반 반별 한마디

1. 김경희 3학년 8반♥ 일 년 동안 재미있었어. 나중에 다시 만나용~
2. 김도희 3학년 8반! 가장 힘든 시기에 아무 탈 없이 모두 다 잘 지내서 좋았어♥ Biotam! 항상 고마워♥
3. 김지아 3학년 심신이 많이 지쳤었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웠음 :) 움벨트.. 그동안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마웠음. 잘 지내렴.
4. 김채린 1학년 8반, 2학년 8반, 3학년8반, 교봉, 학습동아리, 무용부!! 3년 동안 너무 고마웠어! 사랑해♥
5. 노유진 3학년 8반 최고!! 이제 2학년도 고생 시작^^ 까들자식 보고싶음 거야♥
6. 류향은 3학년 8반!! 일 년 동안 너무 고마웠어 ㅎㅎ 덕분에 즐겁게 지낸 것 같아! 우리 만남은 끝이 아니야! 또 만나, 사랑해♥ 바이오팜, 라크로스 동생들 고마웠어♥
7. 문성윤 하늘고에서 3년 동안 다들 수고했어! 3학년 8반 너무 고맙고 예뻐져서 다시 보자♥
8. 민아영 우리 3학년 8반 최고 ♥_♥ 10년, 20년 뒤에도 꼭꼭 만나자 ㅎㅎ
9. 박다인 3학년 8반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 카리타스!! 다는 말 못하지만 너무 고마웠어 사랑해! 민수쌤 나영쌤 미영쌤 정선쌤 정말 표현 못할 만큼 감사합니다!
10. 박유빈 3학년 8반 최고♥♥
11. 박은진 최고의 3학년 8반, 내 사랑 무용부~ 즐겁고 행복했어^_^ 우리 서로 잊지 말고 꼭 만납시다. 3년 동안 같이 다니느라 고생했다 송♥
12. 박혜리 달라져서 다시 모이자! 물론 좋게 달라져서!
13. 송고은 3학년 8반~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고 즐거운 수험생활을 보낸 듯! 다시 만나서 놀자!! 미영쌤~ 감사해요♥
14. 원재연 영원한 3학년 8반! 우리 꼭꼭 다시 만나자! 정말 즐겁고 고마웠어♥ 까노동 짱!
15. 이승민 일 년 동안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줘서 우리 8반 너무 고맙고 민연쌤 연희쌤 나영쌤 민수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16. 이시현 일 년간 힘들었지만 즐거웠어. 8반 짱!
17. 이윤희 3학년 8반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모이자:) 안녕♥
18. 이채영 3학년 8반 친구들 사랑하고! cielo 친구들 후배들도 고마워♥ 민희쌤 민수쌤 못난 학생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 이채원 일 년 동안 평화롭게 잘 지낸 것 같당~ 수험생활 하면서도 다 같이 잘 지내서 너무 좋았고 8반 사랑해ㅋㅋ 우리 오합지졸 오케스트라 흥해라!
20. 전희진 8반 친구들 일 년 동안 고마웠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21. 조혜원 1년 동안 고마웠고 8반 모두 앞길에 행운만이 있기를!
22. 하채운 3학년 8반 아무도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졸업! 시간이 흘러서도 잊지 말고 다시 꼭 만나자! 아프지 말고... 파이팅!
23. 황지원 3년 동안 같이 지내서 좋았어. 보고 싶을 거야!! 3학년 8반 나중에!! 다시 봅시당ㅋㅋ

3-8 일동 민수쌤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저희에게 많이 어색하고 낯설었던 선생님이셨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년 이 지나도 잊지 않을게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편집후기

이익준 선배님들의 완벽한 창간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막막했는데 이렇게 끝나고 나니 신기하네. 어떻게 만들지 걱정만 앞섰는데 이렇게 끝나니 마음이 놓인다. 다들 너무 고맙고, 김민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꿈을 조금 맛본 것 같아서 즐거웠던 경험이 있어! 3기는 2015년 미련 없이 열심히 하고, 4기도 공부 열심히 하자!

최미나 낭랑 18세, 고등학교 2학년. 이 꽃다운 나이를 함께 해준 교사와, 같이 전력을 다해준 내 후배 지민이, 김민희 선생님, 그리고 배경이 되어준 하늘고등학교에 감사 인사를 보낸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시절을 하얗게 불태우며 온 학교를 누빈 만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우리 학교에 대해 친구들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읽은 후엔 하늘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스스로에 대한 기특함을 느낄 수 있기를.

김민성 1학기를 흘러보내고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틈틈이 좀 해놓을 걸...이라는 생각이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면 무엇이든 힘들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었다. 편집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김민희 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현아!! 너랑 나랑 겨우 둘이서 한 조여서 비교적 할 게 많았지ㅋㅋ 별로 도움 안 되어서 미안하다ㅋㅋ

강희구 첫 스타트를 선배들이 멋지게 끊어주시고 나서, 저희에게 있는 자료라곤 그저 교지 초회본 밖에 없던 때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교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욕만 앞서지 막상 어떤 교지가 나올지 상상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2회 교지를 눈앞에 두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분량상의 교지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은 지금도 아쉽습니다. 같이 교지를 만드느라 힘써준 교지편집부와 김민희 선생님 모두 고맙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이 교지를 들춰보며 '그땐 그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현 별다른 동기 없이 시작했던 교지 활동이 마 우리가 되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며 활동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건들부터 자잘한 사건들까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자니 하늘고등학교라는 하나의 필모그래피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허세 넘치는 ㅋㅋ 이렇게 써야 교지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고 그랬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직접 작성한 교지라 뿌듯하게 자주 펼쳐볼 것 같습니다. 편집부원들 그리고 전속 후배 이종성, 이수빈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구정연 교지 활동은 글을 쓰는 직업이 꿈인 내게 무척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 또한 학교 내에서 여러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성취되는 결과를 보며 몹시 뿌듯했어. 아마 이 두 번째 교지는 나의 '자랑'이 될 것 같아요! 교지편집부 친구들과 회의하는 일, 학교 내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 글을 편집하는 일 등 너무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하늘고 교지편집부 3기 친구들과 후배들도 수고 많았어♥ 김민희 선생님 감사해요! 하늘고 교지편집부 지금처럼, 지금보다 파이팅!

이수빈 설렘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교지 제작. 선배님들이 구상해놓은 틀에 맞춰 내용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도 처음이라는 변명 아래, 어렵다 툴툴대며 어설피게 내용을 채워나갔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 하늘나래 2호를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신 교지 선배님들과 김민희 선생님, 또 교지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ㅎㅎ 하늘나래 2호, 어여쁘게 봐주세요 .XD

전정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지만 모두의 노력이 담긴 훌륭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정말 기뻐요 ㅎㅎ 우리 하늘고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보물창고



같은 하늘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웃음과 감동을 안겨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기저기 취재하느라 돌아다니고 밤낮으로 글 쓰느라 바빴던 교지 선배님과 친구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하늘고 선생님들과 학생분들 그리고 우리의 열정 넘치신 민희쌤까지♡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조우현 교지 제작에 대한 의지와 열심히 가득했던 학기 초가 생각납니다. 막상 교지에 참여하다 보니 힘들고 바쁠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같은 파트를 맡은 민성이 형이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한 게 없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내년에도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민성이 형처럼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모두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송해영 두둥! 드디어 하늘나라 2호가 완성되었어요!! 보다 의미 있는 교지를 만들기 위해 방학 내내 정연이 언니, 그리고 용훈이와 고생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니 시원섭섭하네요. 다들 수고 많았고 특히 2학년 선배님들과 김민희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2014년 하늘고의 모습을 담은 교지가 모두에게 아름답게 간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지편집부 4기 친구들은 지금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선배님들 뒤편까지 더 열심히 교지 활동하자! 파이팅^^ 하늘나라 with 민희쌤 포에버♡

이용훈 '우리들끼리 과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교지를 완성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교지가 완성될 수 있게 지도해주신 김민희 선생님, 술선수범해주신 선배님들, 같이 참여한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협조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쓴 교지 부족해도 잘 읽어주시고 앞으로로도 좋은 글 쓰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

박종성 '학생 생활' 파트를 태현이 형과 수빈이랑 맡으면서, 비공식 동아리랑 힐링 콘서트 때 등장한 분들 처음에 사진 잘못 찍어서 다시 찍는 데 별 불평 없이 사진 찍어준 거랑 우현이가 계속 옆에서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웠고, 일 년 동안 교지 편집 부원들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거랑 태현이 형한테 여러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지 편집부 부원들하고 민희 쌤, 1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민 2014년이 저물고, 하늘나라 ver.2도 마무리되어 가네요. 동아리도 아니었던 하나의 모임(?)같은, 교지 편집부!! 정말 즐겁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학교' 파트라서 설문지와 인터뷰가 많았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ㅎㅎ 학교에 관한 글을 쓰고, 취재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민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짝사랑(?) 미나언니! 언니와 제가 한 팀이 된 건 정말 신의 한수ㅋㅋ 이제 하늘나라 ver.3에서 보자 4기 편집부!

지도교사 김민희 행복했던 2014년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도, 이 책을 펼치면 언제나 2014년이 있으니 추억을 기록하는 작업은 '축복'인 듯합니다. 나의 2014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인천하늘고등학교에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